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

연구기간 : 2020. 6. 8. ~ 12.14.

연구기관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자 : 정인경(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위라겸(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정지연(송실대학교 시간강사)

※ 이 보고서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목포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목포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목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목포시청 수탁 연구과제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 경 주

제1장 총괄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4
4. 연구수행체계	6
제2장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및 여건	9
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9
2.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30
3. 상위계획	43
제3장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요구 조사	49
1.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 요구조사	49
2. 양성평등정책 발굴 원탁회의	80
제4장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	87
1.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87
2. 정책 비전과 목표	88
제5장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95
1. 성평등 인식 문화 확산	97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102
3. 여성 대표성 제고	108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	112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117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21
* 지역특화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127
참고문헌	132
[부록] 설문조사지	133

〈표 Ⅰ-1〉 유효표본	5
〈표 Ⅰ-2〉 원탁회의 개요	5
〈표 Ⅰ-3〉 전문가 워크숍 개요	5
〈표 Ⅰ-4〉 연구흐름도	6
〈표 Ⅱ-1〉 성별 순이동률(2019)	10
〈표 Ⅱ-2〉 연령별 순이동률(2019)	10
〈표 Ⅱ-3〉 가구 유형별 현황	13
〈표 Ⅱ-4〉 2세대 가구 유형별 현황(2019)	13
〈표 Ⅱ-5〉 목포시 경제활동인구 총괄(2020 1/2)	14
〈표 Ⅱ-6〉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0 1/2)	15
〈표 Ⅱ-7〉 성·연령별 고용률	15
〈표 Ⅱ-8〉 산업별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현황Ⅰ	16
〈표 Ⅱ-9〉 산업별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현황Ⅱ	16
〈표 Ⅱ-1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17
〈표 Ⅱ-11〉 연령별 구직자 현황(2019)	17
〈표 Ⅱ-12〉 학력별 구직자 현황(2019)	17
〈표 Ⅱ-13〉 취업자 직종별 분포(2019)	18
〈표 Ⅱ-14〉 목포시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	18
〈표 Ⅱ-15〉 목포시 기초의원 현황(2020)	19
〈표 Ⅱ-16〉 목포시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2020. 1.)	19
〈표 Ⅱ-17〉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현황(2020. 1.)	19
〈표 Ⅱ-18〉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15% 미만 위원회 현황(2020. 1.)	20
〈표 Ⅱ-19〉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	21
〈표 Ⅱ-20〉 영유아 인구 현황	22
〈표 Ⅱ-21〉 보육시설 현황(2017-2019)	22
〈표 Ⅱ-22〉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대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이용률(2020)	23
〈표 Ⅱ-23〉 국·공립어린이집 현황(2020)	23
〈표 Ⅱ-24〉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2019)	23
〈표 Ⅱ-25〉 유치원 현황(2019)	24
〈표 Ⅱ-26〉 초등학교 인구조형 현황(2019)	24
〈표 Ⅱ-27〉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24
〈표 Ⅱ-28〉 지역아동센터 현황	25
〈표 Ⅱ-29〉 아동 생활 복지시설 현황	25
〈표 Ⅱ-30〉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26
〈표 Ⅱ-31〉 여성복지시설(생활) 현황(2020)	26

〈표 II-32〉 여성복지시설(이용) 현황(2019)	27
〈표 II-3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2017~2019)	27
〈표 II-34〉 EQ-5D(2017~2019)	28
〈표 II-35〉 자살률 현황(2017~2019)	28
〈표 II-36〉 지역 안전등급 현황(2019)	28
〈표 II-37〉 성폭력 발생 및 검거 건수 현황(2017~2019)	29
〈표 II-38〉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현황(2017~2019)	29
〈표 II-39〉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현황(2017~2019)	29
〈표 II-40〉 자치법규 현황	30
〈표 II-41〉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구조	31
〈표 II-42〉 여성가족과 조직·인력 현황	32
〈표 II-43〉 여성가족과 팀별 인원 및 업무	32
〈표 II-44〉 2020년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추진방향	32
〈표 II-45〉 2020년도 본예산	33
〈표 II-46〉 2020년도 예산 현황	34
〈표 II-47〉 2020년도 예산 재원	34
〈표 II-48〉 2020년도 주요사업 사업비 현황	34
〈표 II-49〉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 현황	35
〈표 II-50〉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2020. 10.)	35
〈표 II-51〉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현황	36
〈표 II-52〉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2017~2019)	37
〈표 II-53〉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2019)	38
〈표 II-54〉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실적(2019)	39
〈표 II-55〉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현황(추진중)	39
〈표 II-56〉 전라남도 2020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44
〈표 III-1〉 설문지 구성	49
〈표 III-2〉 응답자 특성	50
〈표 III-3〉 성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51
〈표 III-4〉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부정 응답률)	52
〈표 III-5〉 남성성 통념 및 이성관계의 주도성에 관한 인식(부정 응답률)	52
〈표 III-6〉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태도(긍정 응답률)	53
〈표 III-7〉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한 인식(긍정 응답률)	54
〈표 III-8〉 성차별 경험	55
〈표 III-9〉 양성평등교육 경험	56
〈표 III-10〉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57
〈표 III-11〉 폭력 등에 대한 허용 정도	58
〈표 III-12〉 강력한 처벌에 대한 동의 수준	59
〈표 III-13〉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 정도	59

〈표 Ⅲ-14〉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	60
〈표 Ⅲ-15〉 두려움을 느낀 경험	61
〈표 Ⅲ-16〉 성추행, 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여부	62
〈표 Ⅲ-17〉 양성평등 수준	63
〈표 Ⅲ-18〉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것	64
〈표 Ⅲ-19〉 목표의 양성평등 수준	66
〈표 Ⅲ-20〉 목표의 성평등 환경인식	66
〈표 Ⅲ-21〉 목표의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67
〈표 Ⅲ-22〉 목표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68
〈표 Ⅲ-23〉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69
〈표 Ⅲ-24〉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0
〈표 Ⅲ-25〉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1
〈표 Ⅲ-26〉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2
〈표 Ⅲ-27〉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2
〈표 Ⅲ-28〉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3
〈표 Ⅲ-29〉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4
〈표 Ⅲ-30〉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5
〈표 Ⅲ-31〉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5
〈표 Ⅲ-32〉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6
〈표 Ⅲ-3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7
〈표 Ⅲ-34〉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78
〈표 Ⅲ-35〉 설문 영역별 주요 결과 요약	79
〈표 Ⅲ-36〉 정책영역별 중요도 1순위 과제 및 가장 시급한 과제	79
〈표 Ⅲ-37〉 문화·예술 분야 원탁회의 개요	80
〈표 Ⅲ-38〉 청년 분야 원탁회의 개요	81
〈표 Ⅲ-39〉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원탁회의 개요	83
〈표 Ⅳ-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의 구조	91
〈표 Ⅴ-1〉 정책영역별 과제 총괄표	129

그림 목차

[그림 II-1] 인구 현황(2020. 8.)	9
[그림 II-2] 인구 변화(2015-2019)	9
[그림 II-3] 전입·전출 인구 현황	9
[그림 II-4] 여성 연령별 순이동률(2019)	10
[그림 II-5] 남성 연령별 순이동률(2019)	10
[그림 II-6] 연령별 인구 규모(2019)	11
[그림 II-7] 고령인구 규모(2017-2019)	11
[그림 II-8] 행정구역별 인구 규모(2020. 8.)	11
[그림 II-9] 0-4세 인구(2020. 8.)	12
[그림 II-10] 35-39세 여성 인구	12
[그림 II-11] 외국인 인구 규모(2018)	12
[그림 II-12] 세대구성별 가구	13
[그림 II-13] 연령별 1인가구 현황	13
[그림 II-14] 혼인·이혼 건수(2014-2019)	14
[그림 II-15] 합계출산율(2000-2019)	14
[그림 II-16] 목포시 경제활동참가율(2015~2020)[상반기]	15
[그림 II-17] 연령별 고용률	15
[그림 II-18]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2020)	31
[그림 II-19] 행정단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2017-2019)	37
[그림 II-20] 행정단위별 개선계획 수립 비율(2019)	38
[그림 II-2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SWOT 분석	41
[그림 II-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3
[그림 II-23]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 목표와 추진방침	44
[그림 II-24] 2030 목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 및 정책체계도	45
[그림 II-25] 목포형 청년정책 비전 체계	46
[그림 II-26] 2020년 시정방침	46
[그림 III-1] 성차별 경험('있음'만 표시)	56
[그림 III-2] 폭력 등에 대한 허용 정도	58
[그림 III-3] 두려움을 느낀 경험	61
[그림 III-4]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62
[그림 III-5]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	65
[그림 III-6] 목포의 성평등 환경 인식	67
[그림 III-7]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68
[그림 III-8]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68
[그림 III-9]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69

[그림 Ⅲ-10]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보장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1
[그림 Ⅲ-1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3
[그림 Ⅲ-12]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4
[그림 Ⅲ-13]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6
[그림 Ⅲ-14]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77
[그림 Ⅳ-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비전, 목표, 정책영역	89
[그림 Ⅴ-1] 단계별 추진계획	128

제 1 장

총괄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수행체계

I

총괄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 기존의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도 강해짐. 이에 따라 성차별적 관행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 두드러짐.
-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성·세대·계층 간 인식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음. 특히 20-30대 여성이 공론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자, 남성의 ‘역차별’의식이 부상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반발도 나타남.
-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고 주요 사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망의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발맞춰가는 한편, 목포시민의 욕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포시 여성발전 5개년계획(2009-2013)」이후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
- 이에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향후 5년을 내다보는 비전·목표·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은 민선 7기 정책비전인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일상 속 양성평등 실현 구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임. 양성평등정책이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함.
 - 성에 근거한 차별·배제·폭력이 없는 양성평등 도시구현은 목포시민의 자긍심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목포시 전체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25년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1) 국내·외 양성평등정책 환경 및 동향 분석
 - : 성별 관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 검토
 - : 양성평등정책 현황(주요 법제, 정책보고서 등) 및 우수 사례 검토
- 2)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
 - : 목포시 기본 현황 분석
 -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현황 분석
 - : 목포시민의 양성평등 의식과 정책 수요 조사
 - :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연구자, 활동가 등) 자문
- 3)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및 비전 제시
 - :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반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 4) 정책영역 별 세부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 분야별 과제 도출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국내·외 양성평등정책 동향(관련 법제, 추진기반, 주요 사업 등) 검토
- 목포시 주요 현황(인구·가구통계, 행정통계, 사회지표 등) 자료를 토대로 성별 요구 분석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진단(SWOT 분석)
- 민선 7기 공약사항 외 각종 계획·정책 등을 검토, 양성평등정책 연계지점 도출

○ 목포시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 요구 조사

- 양성평등 의식과 경험, 목포시 환경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 영역별 욕구 등 조사
- 지역·성·연령에 따라 표집된 목포시민 372명(19세 이상) 대상 대면 설문조사

〈표 1-1〉 유효표본

구분	모집단	유효표본	지역(선거구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상동 삼향동 옥암동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전체	157,470	372	73	45	31	41	24	82	111	
남	계	80,131	151	26	17	16	18	11	28	35
	20대 이하	14,918	26	5	2	3	3	3	5	5
	30대	14,480	28	5	3	3	3	2	4	8
	40대	19,601	37	7	4	3	4	2	8	9
	50대	18,134	35	6	4	4	4	2	6	9
	60대 이상	12,998	25	3	4	3	4	2	5	4
여	계	77,339	221	47	28	15	23	13	54	41
	20대 이하	12,776	28	6	3	2	3	3	6	8
	30대	13,652	40	9	5	3	2	1	10	9
	40대	18,489	65	14	10	2	6	4	11	11
	50대	18,277	52	13	6	3	5	3	10	10
	60대 이상	14,145	36	5	4	5	7	2	4	4

○ 분야별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 중장기계획 수립 조사단계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표 1-2〉 원탁회의 개요

구분	내용
• 관광,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정책 발굴 회의	성인지 관점에서 목포시 문화·예술정책 검토, 개선 방향 모색, 현장 사례 공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제시 등
• 청년 분야 양성평등정책 발굴 회의	성인지 관점에서 목포시 청년정책 검토, 개선 방향 모색, 현장 사례 공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제시 등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회의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 개선 방안 논의, 현장 사례 공유, 민관협력 방안 모색 등

○ 전문가 워크숍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비전, 목표,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검토

〈표 1-3〉 전문가 워크숍 개요

구분	구성	내용	시기
전문가 워크숍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정책 연구자 목포시 담당 주무관	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의 타당성 추진기반 설계의 적합성	10월

4. 연구수행체계

○ 연구 추진체계

〈표 1-4〉 연구흐름도

단계	방법	주요내용	추진체계
[1단계] 연구 기획	문헌연구	연구 배경	착수보고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조사설계		
[2단계] 조사 분석	정책 환경 및 여건 파악	중간보고	
	양성평등 의식 및 요구 조사		
	의제발굴 원탁회의		
[3단계] 결과 분석	전문가 워크숍	최종보고	
[4단계] 보고서 발간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발간		성과품 제출

제 2 장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및 여건

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2.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3. 상위계획

II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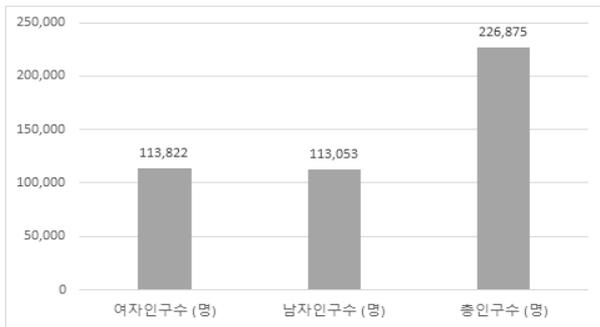
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가.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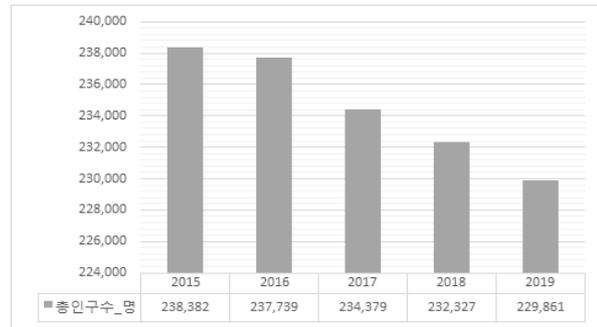
○ 인구

- 2020년 8월 기준, 목포시의 인구는 226,875명임. 이중 여성은 113,822명, 남성은 113,053명으로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99.3(명)임.
- 지난 5년간 목포시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II-1] 인구 현황(20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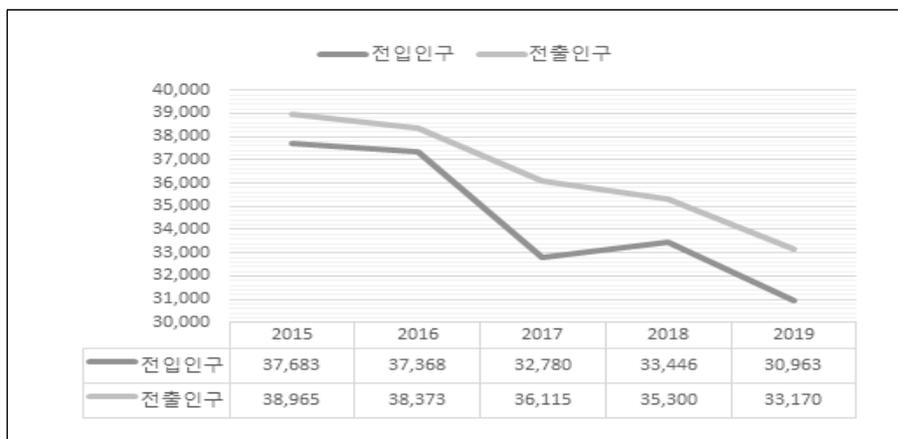
[그림 II-2] 인구 변화(2015-201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의 순유출이 일어난다.

[그림 II-3] 전입·전출 인구 현황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도 내 시·군 간 전입률과 전출률은 차이가 없음. 결국 순이동률¹⁾로 측정되는 인구의 순유출은 도 간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남성보다 여성의 유출이 더 많음.

〈표 II-1〉 성별 순이동률(2019)

구분	순이동률	목포시 내 전입(출)률	도내·시·군구간 전입률	도내·시·군구간 전출률	도 간 전입률	도 간 전출률
계	-1.0	7.0	3.4	3.4	3.1	4.1
남	-0.8	7.1	3.6	3.5	3.4	4.3
여	-1.1	6.9	3.2	3.2	2.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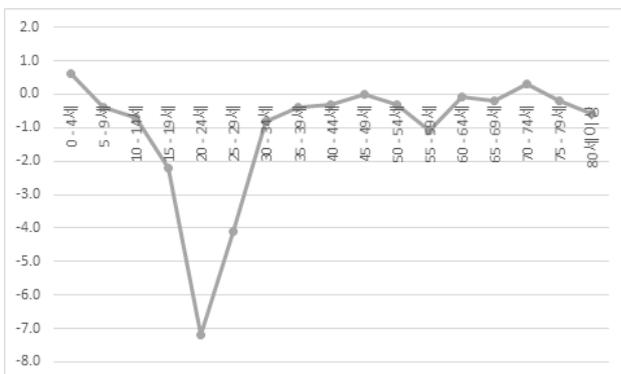
- 연령별 순이동률은 20~24세가 -5.6%, 25~29세가 -4.1%로 가장 높음.

〈표 II-2〉 연령별 순이동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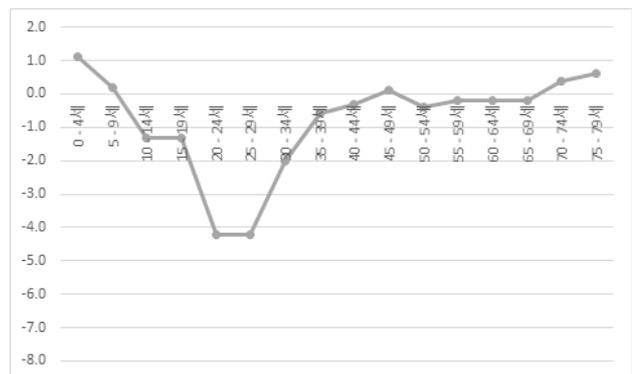
연령(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4	9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순이동률(%)	0.9	-0.1	-1	-1.7	-5.6	-4.1	-1.4	-0.5	-0.3	0	-0.3	-0.6	-0.1	-0.2	0.4	0.1	-0.5

- 20대 내에서도 20~24세 여성의 순이동률(-7.2)이 남성의 순이동률(-4.2)보다 더 두드러짐.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목포시를 떠나는 2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4] 여성 연령별 순이동률(2019)



[그림 II-5] 남성 연령별 순이동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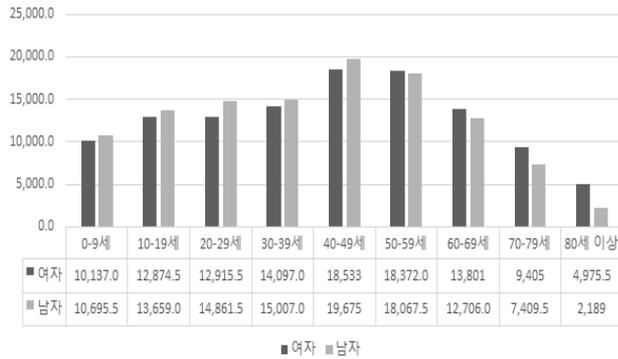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연령별 인구는 40대(38,208명, 16.66%)가 가장 많음. 성별로는 40대까지는 남성이, 50대부터는 여성이 더 많음. 특히, 80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두 배 이상 더 많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19년 15.7%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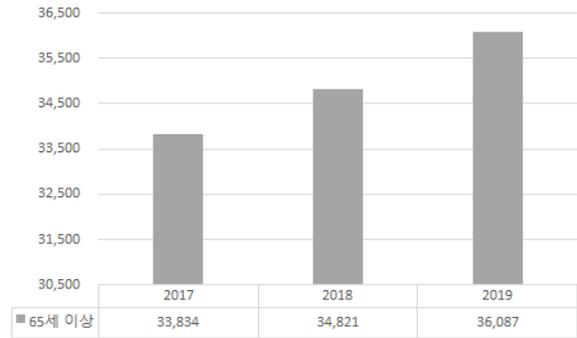
1)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로 산출됨.

[그림 II-6] 연령별 인구 규모(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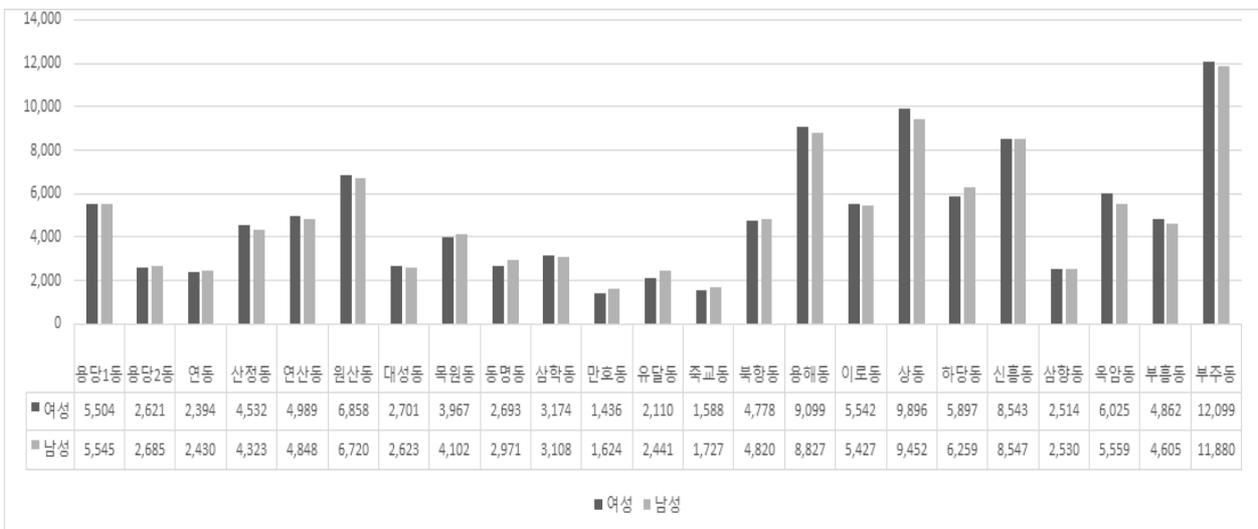
[그림 II-7] 고령인구 규모(2017-201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별로는 부주동, 상동, 용해동, 신흥동의 인구가 많고, 유달동, 죽교동, 만호동의 인구가 적음.

[그림 II-8] 행정구역별 인구 규모(20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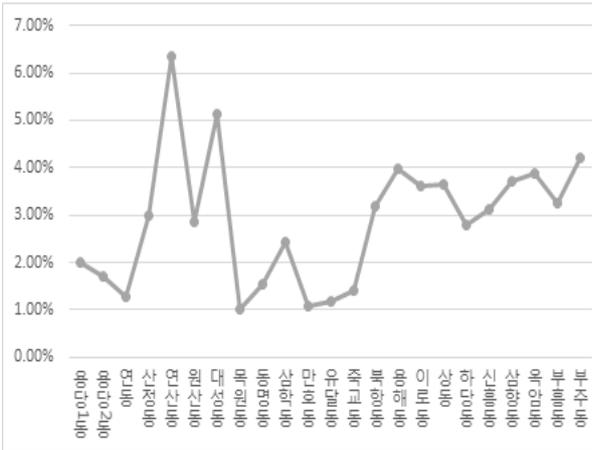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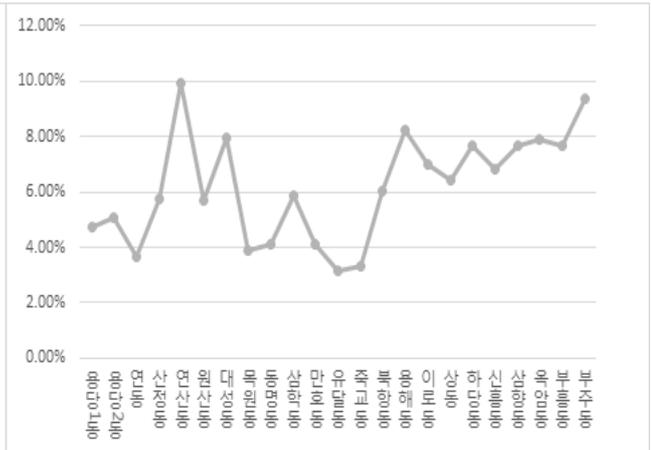
- 0~4세 인구가 4%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연산동, 대성동, 부주동임. 반면 목원동, 만호동, 유달동, 연동의 경우 1%를 약간 넘는 수준임.2)
- 0~4세 인구나 35~39세 여성 인구의 분포가 비슷한 경향을 보임. 35~39세 여성 인구가 8% 이상인 연산동, 부주동, 용해동, 대성동은 0-4세 인구 비율도 높은 반면, 35~39세 여성 인구가 4% 미만인 연동, 목원동, 죽교동, 유달동은 0~4세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음.

2) 연동과 만호동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임(위라경, 2020).

[그림 II-9] 0-4세 인구(20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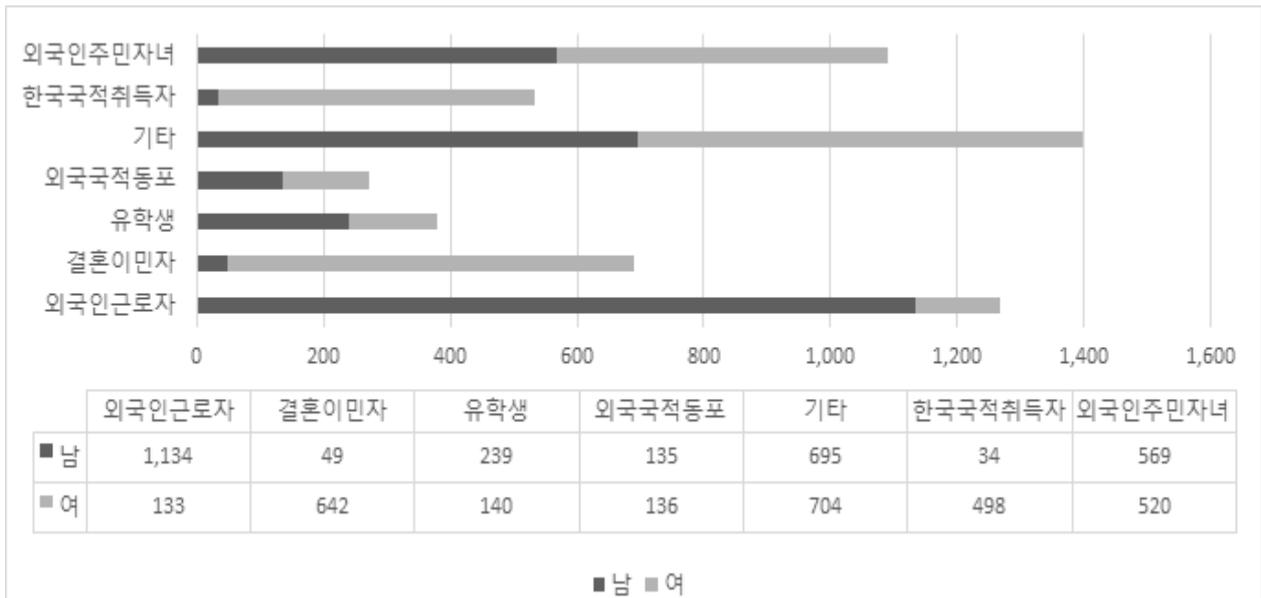
[그림 II-10] 35-39세 여성 인구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8년 기준, 외국인 인구는 5,628(2.43%)임. 남성(2,855명)이 여성(2,773명)보다 약간 더 많음.
-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1,134명)가 가장 많고, 여성은 기타 범주(704명)와 결혼이민자(642명)가 큰 비중을 차지함. 한국 국적 취득자는 여성(498명)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림 II-11] 외국인 인구 규모(2018)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가구·가족

- 2019년 기준, 목포시 총가구 수는 93,916가구이며, 이 중 일반가구는 92,846가구임.

〈표 II-3〉 가구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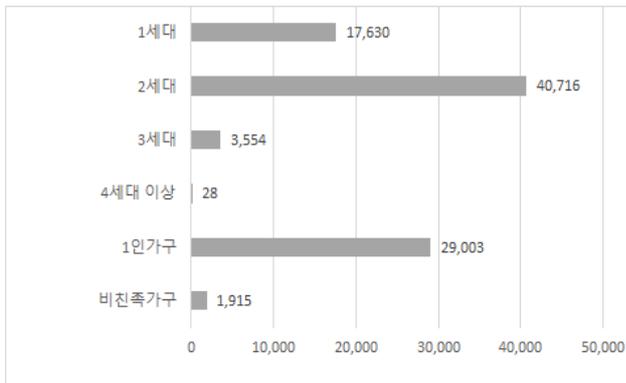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총가구 가구원	일반가구 가구원	집단가구 가구원	집단시설 가구원	외국인가구 가구원
93,916	92,846	30	51	989
228,876	217,091	245	5,833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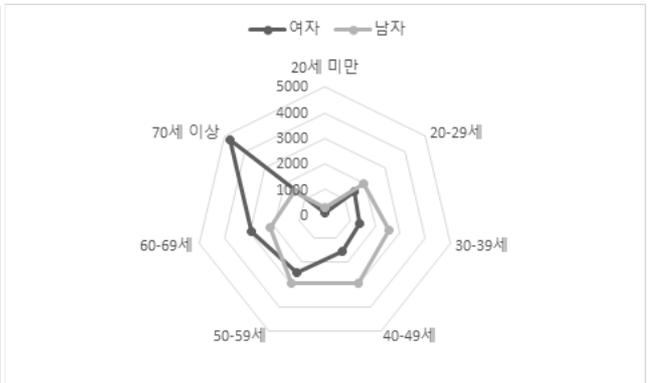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 일반가구의 세대구성은 2세대(40,716가구)가 가장 많고, 1인가구(29,003)가 그 뒤를 이음.
- 1인가구는 50대까지는 남성 가구가 많으나 60세 이상부터 여성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음.

[그림 II-12] 세대구성별 가구



[그림 II-13] 연령별 1인가구 현황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 2세대 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57.8%(23,527가구), 모자가구는 21.2%(8,635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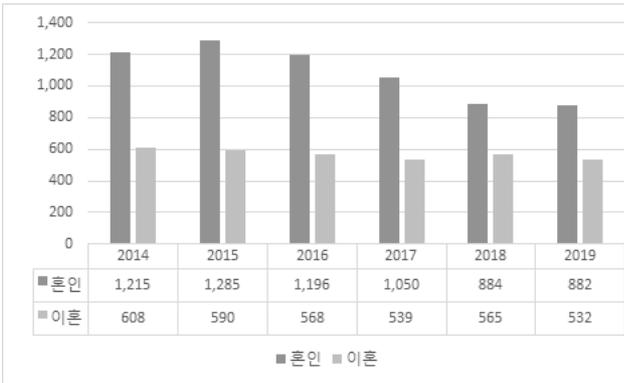
〈표 II-4〉 2세대 가구 유형별 현황(2019)

구분	계	부부+ 미혼자녀	부+미 혼자녀	모+미 혼자녀	부부+ 양친	부부+ 한부모	부부+미혼자 녀+부부미혼 형제자매	조부모 +미혼손 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 손자녀	기타
가구	40,716	23,527	3,191	8,635	67	488	283	175	369	3,981
비율	100%	57.8%	7.8%	21.2%	0.2%	1.2%	0.7%	0.4%	0.9%	9.8%
가구원	131,762	86,107	7,806	21,161	268	1,464	1,348	573	827	12,208
비율	100%	65.4%	5.9%	16.1%	0.2%	1.1%	1.0%	0.4%	0.6%	9.3%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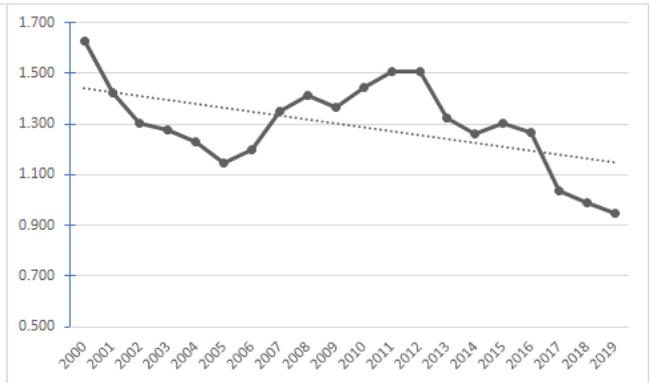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에 따르면, 목포시 다문화 가구³⁾는 1,374가구(가구원 4,379명)임.
- 2019년, 혼인 건수는 882건, 이혼 건수는 532건임.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27명에서 2019년 0.948명으로 떨어짐.

[그림 II-14] 혼인·이혼 건수(2014-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4-2019)

[그림 II-15] 합계출산율(2000-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19)

인구·가족 부문 현황

-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혼인 건수가 줄고, 합계출산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함.
- 20대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큼.
- 35-39세 여성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0-4세 영유아 인구 비율도 높음(연산동, 대성동, 용해동, 부주동).
-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하고 있음.

나. 사회참여

○ 경제활동

- 15세 이상 인구는 약 1,952,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1,084,000명임.

〈표 II-5〉 목포시 경제활동인구 총괄(2020 1/2)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195.2	111.9	57.4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고용률 (%)
108.4	3.6	55.5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832,000명이며, 이 중 육아·가사 중인 인구가 367,000명임.

3) 다문화 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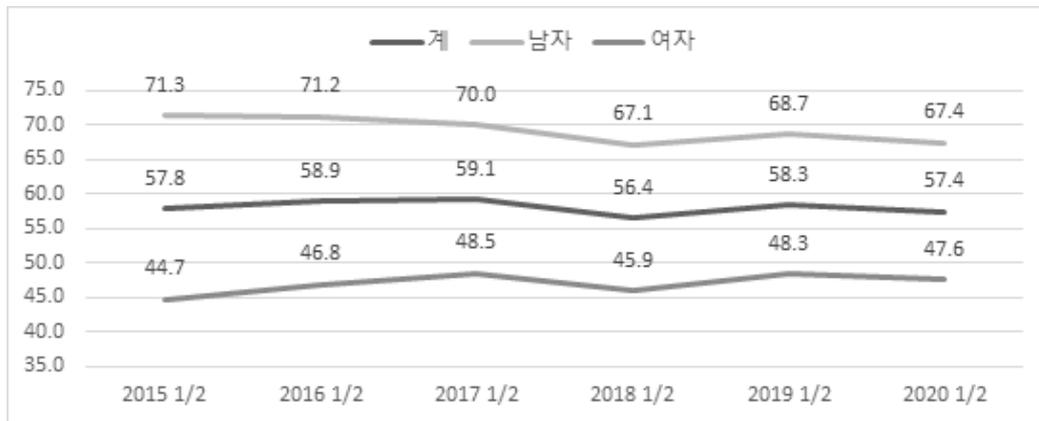
〈표 II-6〉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0 1/2)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성별		활동상태별			
	남	여	육아, 가사	재학, 진학준비	연로	기타
83.2	31.4	51.8	36.7	17.9	5.8	22.8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67.4%, 여성 47.6%임. 지난 5년간 성별 격차는 약간 감소함.

[그림 II-16] 목포시 경제활동참가율(2015~2020)[상반기]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1/2분기 ~ 2020 1/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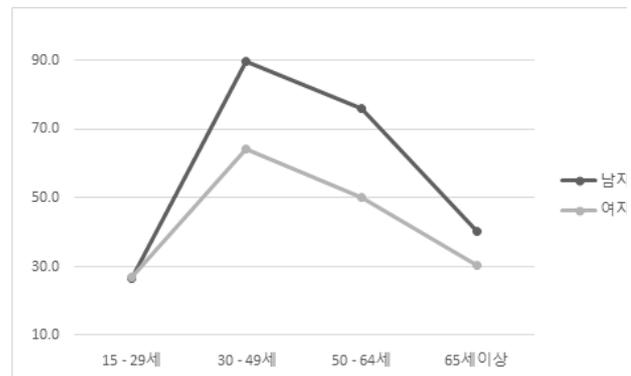
- 2020년 성별 고용률은 남성 65.0%, 여성 46.3%임. 15-29세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0.5%p 더 높음. 그러나 30대부터 역전되어 30-49세 25.5%p, 50-64세 25.9%p 남성 고용률이 더 높음.

〈표 II-7〉 성·연령별 고용률

연령	남자	여자	성별격차
계	65.0	46.3	18.7
15 - 29세	26.5	27.0	-0.5
30 - 49세	89.7	64.2	25.5
50 - 64세	75.9	50.0	25.9
65세 이상	40.4	30.5	9.9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 1/2분기)

[그림 II-17] 연령별 고용률



-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며,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임. 남성은 주로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종사함.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몰려있고, 그 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도 많이 종사함.

〈표 II-8〉 산업별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현황 I

산업분류	사업체 수 (개소)	종사자 수 남자 (명)	종사자 수 여자 (명)	계(명)
전체	8,676	28,738	28,657	57,395
농업, 임업 및 어업	4	95	17	112
광업	10	40	4	44
제조업	573	2,127	1,175	3,3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	136	29	16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4	298	39	337
건설업	600	4,125	819	4,944
도매 및 소매업	1,870	4,277	4,282	8,559
운수 및 창고업	232	3,734	418	4,152
숙박 및 음식점업	1,852	2,450	4,640	7,090
정보통신업	71	552	225	777
금융 및 보험업	213	1,355	2,070	3,425
부동산업	284	1,072	566	1,6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5	1,084	605	1,68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0	1,228	660	1,888
교육 서비스업	443	1,489	2,038	3,5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4	2,212	9,477	11,6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2	528	414	9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33	1,936	1,179	3,115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8)

- 자영업자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목포시 사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두 조사의 비교를 통해 사업체 수가 많고 여성 종사자 규모가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임을 알 수 있음.⁴⁾

〈표 II-9〉 산업별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현황 II

산업대분류	사업체 수 (개소)	종사자 수 남자 (명)	종사자 수 여자 (명)	계(명)
전 산업	21,392 ⁵⁾	40,977	40,936	81,681
농업, 임업 및 어업	4	95	17	112
광업	11	41	4	45
제조업	1,164	2,620	1,517	4,13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	138	29	16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	445	66	511
건설업	762	4,285	857	5,142
도매 및 소매업	6,273	7,351	7,486	14,837
운수업	1,614	5,079	467	5,546
숙박 및 음식점업	4,551	3,828	7,348	11,176

4) 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가공한 통계임. 이 결과와 「목포시 사업체 조사」를 비교해보면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수를 유추할 수 있음.

산업대분류	사업체 수 (개소)	종사자 수 남자 (명)	종사자 수 여자 (명)	계(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6	700	298	998
금융 및 보험업	233	1,361	2,036	3,397
부동산 및 임대업	588	1,255	713	1,9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0	1,184	645	1,8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서비스업	387	1,369	718	2,08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2,455	1,147	3,602
교육서비스업	1,016	2,785	4,529	7,3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62	2,305	9,695	12,00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8	934	788	67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47	2,747	2,344	2,747

※출처: 「2018년 기준 목포시 사업체조사」(목포시청 홈페이지)

- 목포시 전체 임금근로자는 약 76,400명임.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의 남녀 비율은 약 6:4로 남성의 비중이 큼. 여성 취업자의 약 29%인 12,500명은 비임금근로자이며, 이 중 5,300여 명(42.4%)이 무급가족 종사자로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취약함.

〈표 II-1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소계 임금근로자	자영업 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비임금근로자	총계 취업자
전체	52.3	18.0	6.1	76.4	25.5	5.9	31.5	107.9
여성	19.0	10.3	2.0	31.3	7.2	5.3	12.5	43.8
남성	33.2	7.7	4.1	45.0	18.4	0.6	19.0	64.1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 2/2)

-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구직자는 40, 50대 및 고졸·초대졸 학력 소지자의 비중이 높음.

〈표 II-11〉 연령별 구직자 현황(2019)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남	11.7%	17.0%	27.0%	26.9%	17.4%
목포	13.0%	19.2%	25.6%	25.1%	17.1%

※출처: e새일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료.

〈표 II-12〉 학력별 구직자 현황(2019)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2~3년)	대졸	대졸 이상
전남	0.6%	6.9%	10.4%	39.9%	23.8%	17.3%	1.1%
목포	0.5%	6.2%	11.1%	37.0%	26.9%	17.7%	0.6%

※출처: e새일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료.

5) 전체 사업체 21,392개 중 18,372개(85.9%)는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사업체임.

- 새일센터 이용 구직자 중 다수가 보건·의료직종에 취업함. 그 외 경비·청소, 이미용·숙박·음식, 사회복지, 사무·회계·관리 순임.

〈표 II-13〉 취업자 직종별 분포(2019)

구분	사무 회계 관리	건설 기계 회계	영업 판매	교육 연구	이미용 숙박 음식	전기 전자	보건 의료	경비 청소	사회 복지	기타
전남	21.6%	3.3%	3.1%	3.2%	12.3%	0.2%	14.9%	9.5%	17.0%	14.9%
목포	12.3%	3.2%	2.8%	2.0%	12.7%	0%	25.8%	12.8%	12.7%	15.7%

※출처: e새일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료.

○ 일·생활 균형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⁶⁾은 3,832개사(대기업 408, 중소기업 2,444, 공공기관 980)로, 이 중 목포소재 기업(관)은 9개사(중소기업 7, 공공기관 2)임.⁷⁾

〈표 II-14〉 목포시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

신규 인증연도	기관(업)명	분류
2014/2019(재)	목포시청	공공기관
2016	뉴21커뮤니티주식회사	중소기업
2017	(유)호남관리	중소기업
2018	(유)목포신도DigitalOA	중소기업
2018	선일물산(주)	중소기업
2018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공공기관
2019	(주)한국아이티	중소기업
2019	유한회사 중앙환경	중소기업
2019	한진기공사	중소기업

※출처: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

경제활동 및 일·생활균형 부문 현황

- 경제활동참가율은 57.4%(남 67.4%, 여 47.6%)임.
- 30-40대 고용률이 남성 89.7%, 여성 64.2%로 성별 고용격차가 큼.
- 임금근로자 성비, 상용근로자 성비 모두 남성 비중이 높음. 여성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몰려 있음.
-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은 9개사(공공기관 2, 중소기업 7)임.

6)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지역별, 업종별) 자료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 참조.

7) 목포시 출연기관(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노벨평화상기념관, 수산물유통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및 출자기관(대양산단(주))은 미인증 상태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사회환경 조성 초기 단계에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친화인증 추진이 필요함.

○ 의사결정

- 목포시 기초의원은 남성 17명, 여성 4명으로 전체 의원 중 여성 비율은 19%임.

〈표 II-15〉 목포시 기초의원 현황(2020)

구분	계	지역	비율
여성	4	1	3
남성	17	17	-
계	21	18	3

*출처: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 전체 85개 위원회에서 총 324명의 여성위원(당연직 32명, 위촉직 296명)이 활동함.

〈표 II-16〉 목포시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2020. 1.)

총 위원 수(명)			여성위원 수(명)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1,172	302	870	324 (27.65%)	32 (10.60%)	296 (34.02%)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여성위원 비율은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음. 아래 38개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를 넘음.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가 많음. 여성위원 비율이 60% 이상인 위원회도 11개 있음.

〈표 II-17〉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현황(2020. 1.)

부서명	위원회 명	위원수(명)			여성위원 수(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6	2	14	7	1	6	42.9%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8	4	4	3		3	75.0%
건설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9	4	5	2	0	2	40.0%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7	1	6	3	0	3	50.0%
건축행정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10	3	7	3	0	3	42.9%
관광과	으뜸맛집선정위원회	18	1	17	8	1	7	41.2%
관광과	해수욕장협의회	9	7	2	2	1	1	50.0%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4	3	2	0	2	66.7%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4	5	3	0	3	60.0%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89	0	89	36	0	36	40.4%
노인장애인과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	10	2	8	4	0	4	50.0%
농업정책과	농업농촌및식품정책심의회	15	2	13	6	0	6	46.2%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5	3	12	9	1	8	66.7%
문화예술과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9	4	5	3	1	2	40.0%
민원봉사실	경계결정위원회	9	4	5	2	0	2	40.0%

부서명	위원회 명	위원수(명)			여성위원 수(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위원회	9	4	5	2	0	2	40.0%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위원회	8	4	4	2	0	2	50.0%
보건위생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	2	8	4	0	4	50.0%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6	2	4	4	1	3	75.0%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20	3	17	9	1	8	47.1%
세정과	지방세심의위원회	10	4	6	3	0	3	50.0%
세정과	기부심사위원회	11	4	7	3	0	3	42.9%
수도과	수돗물평가위원회	9	2	7	3	0	3	42.9%
여성가족과	아동급식위원회	11	2	9	7	1	6	66.7%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8	2	6	3	0	3	5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12	2	10	7	1	6	60.0%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14	3	11	9	2	7	63.6%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2	2	10	9	1	8	80.0%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5	3	12	6	0	6	50.0%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위원회	12	1	11	8	0	8	72.7%
여성가족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14	3	11	6	1	5	45.5%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12	6	6	5	2	3	50.0%
일자리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11	2	9	4	0	4	44.4%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5	2	1	0	1	50.0%
자치행정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1	5	6	4	1	3	50.0%
하당보건지소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9	1	8	6	1	5	62.5%
해양항만과	목포항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11	6	5	4	2	2	40.0%
회계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1	5	6	3	0	3	50.0%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아래 13개의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15% 미만임. 이 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개임.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하여 성별 차이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II-18〉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15% 미만 위원회 현황(2020. 1.)

부서명	위원회 명	위원수(명)			여성위원 수(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건설과	보행환경개선위원회	7	4	3	0	0	0	0.0%
관광과	축제추진위원회	40	5	35	5	1	4	11.4%
기획예산과	지방재정의 계획·공시심의위원회	10	3	7	0	0	0	0.0%
농업정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12	4	8	1	0	1	12.5%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20	5	15	2	0	2	13.3%
도시문화재과	시문화유산위원회	16	1	15	2	0	2	13.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위원회	22	5	17	2	0	2	11.8%
민원봉사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5	4	0	0	0	0.0%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5	9	1	0	1	11.1%
민원봉사실	지명위원회	7	3	4	0	0	0	0.0%
수산진흥과	수산조정위원회	15	5	10	2	1	1	10.0%

부서명	위원회 명	위원수(명)			여성위원 수(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안전총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24	17	7	2	2	0	0.0%
자치행정과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20	1	19	2	0	2	10.5%
지역경제과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15	2	13	1	0	1	7.7%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목포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291명 중 165명으로 약 12.8%임.
- 2018년 「목포시 사업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9,113개(42.6%)임. 숙박 및 음식점업(65.2%), 교육서비스업(54.1%),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46.4%) 순으로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음.⁸⁾ 반면, 여성대표자 비율이 낮은 산업은 운수업(5.1%),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7.9%), 광업(9.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1%)임.

〈표 II-19〉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

(단위: 개, 명, %)

산업대분류	사업체 수(자영업) ⁹⁾	여성대표자 수	여성대표자비율
전 산업	21,392(12,716)	9,113	42.6
농업, 임업 및 어업	4(0)	-	-
광업	11(1)	1	9.1
제조업	1,164(591)	315	27.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8(2)	4	22.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8)	7	21.9
건설업	762(162)	146	19.2
도매 및 소매업	6,273(4,403)	2,730	43.5
운수업	1,614(1,382)	83	5.1
숙박 및 음식점업	4,551(2,699)	2,969	65.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6(45)	28	24.1
금융 및 보험업	233(20)	36	15.5
부동산 및 임대업	588(304)	181	3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0(105)	47	1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서비스업	387(167)	102	26.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0)	6	7.9
교육서비스업	1,016(573)	550	5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62(48)	338	44.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8(416)	296	43.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47(1,714)	1,274	46.4

※출처: 「2018년 기준 목포시 사업체조사」(목포시청 홈페이지)

- 8)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4,551)의 절반 이상(2,699)은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사업체임. 교육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수만으로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을 가늠하기 어려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성별 대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9) 괄호 안의 수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사업체 수를 뺀 값으로,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사업체 수임.

의사결정 부문 현황

- 여성 기초의원 비율이 낮음. 여성의원 75%가 비례대표임.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4.02%임.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5% 미만임.
- 사업체 여성대표자 비율이 42.6%로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자가 포함된 수치임.

다. 보육 및 복지

○ 보육

- 목포시 영유아(0-5세) 인구는 10,13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41%를 차지함. 이중 여아는 4,861명, 남아는 5,276명으로 성비는 자연 성비보다 높은 108.5(명)임.

〈표 II-20〉 영유아 인구 현황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비율(%)
여아 (명)	579	637	726	930	956	1,033	4,861	4.21
남아 (명)	610	701	805	1,002	1,058	1,100	5,276	4.60
전체 (명)	1,189	1,338	1,531	1,932	2,014	2,133	10,137	4.41
성비	105.3	110.0	110.8	109.8	110.6	106.4	108.5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 2019년 기준, 유아 1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9.9개로 전국 16.4개, 전남 15.2개에 비해 많음. 지난 3년간 보육시설 개수는 감소했으나 영유아 인구도 감소하여 1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증가함.

〈표 II-21〉 보육시설 현황(2017-2019)

(단위: 개, 명)

구분	2017			2018			2019		
	유아 1천명 당 보육시설	보육 시설 _계	주민등록인구 (0~5세)	유아 1천명 당 보육시설	보육 시설 _계	주민등록인구 (0~5세)	유아 1천명 당 보육시설	보육 시설 _계	주민등록인구 (0~5세)
전국	15.7	40,238	2,568,516	16.2	39,171	2,415,349	16.4	37,371	2,285,605
전남	14.3	1,241	87,010	15.0	1,205	80,516	15.2	1,147	75,543
목포	18.0	218	12,129	18.8	208	11,065	19.9	202	10,137

※출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7~2019)

- 이용률은 민간어린이집이 59.64%로 가장 높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5.05%에 그침.¹⁰⁾

〈표 II-22〉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대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이용률(2020)

항목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개소_개	189	9	20	64	94	1	1
정원_명	10,901	538	1,949	6,435	1,859	50	70
현원_명	7,083	358	1,156	4,224	1,245	31	69
이용률_%	-	5.05	16.32	59.64	17.58	0.44	0.97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9개(5.1%)로 전남 다른 시에 비해 적은 편임(광양 25개, 여수 20개, 순천 18개, 나주 13개). 부주동, 상동, 용해동, 원산동에 2개소, 하당동에 1개소가 위치함.

〈표 II-23〉 국·공립어린이집 현황(2020)

시설명	위 치	정원	현원	종사자	최초운영	위탁기관
목포 YWCA	하당동	104	83	13	'92.10.12.	목포 YWCA
예향	상동	73	52	11	'97.12.01.	개인
카리타스	원산동	80	74	12	'02.01.08	광주천주교 유지재단
휴먼시아	부주동	31	27	10	'08.03.02.	개인
시립옥암주공2차	부주동	36	26	8	'10.05.17.	개인
포미타운4단지	용해동	54	31	12	'14.08.01.	개인
행복주택	용해동	51	37	16	'18.02.27.	개인
현대	상동	34	15	4	'20.01.01.	개인
셋별	원산동	75	57	11	'20.03.01.	개인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 2019년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¹¹⁾은 18개소(민간 7, 가정 11)임.

〈표 II-24〉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2019)

구분	어린이집 수(개소)	정원 수(명)	현원 수(명)
전남	85	5,631	4,994
목포시	18	1,079	1,001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

10) 2020년 11월 말 기준, 전라남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임.

11) 공공형 어린이집은 가정, 민간, 직장(운영비 미지원), 협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 정원총족률,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함(위라검, 2020: 19; 46).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도록 함.

- 24시간 어린이집¹²⁾ 1개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¹³⁾ 3개소가 운영중임.
- 열린어린이집¹⁴⁾은 2018년 17개소에서 2019년 36개소로 확대됨(증가율 52.7%).
- 유치원은 총 55개소(공립 33, 사립 22)로, 전남 소재 유치원(542개소)의 약 10%를 차지함.

〈표 II-25〉 유치원 현황(2019)

원수 (개소)	학급수 (개)	원아 수 (명)			교원 수 (명)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소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55	224	3,503	1,749	1,754	341	5	336
(공33 사22)	(공81 사143)	(공1,278 사2,225)			(공174 사167)		

※ 출처: 전라남도, 「전라남도기본통계」

○ 아동·청소년

- 6~12세 초등학령 인구는 17,533명(여 8,590, 남 8,943)이며 성비는 104.1명임.

〈표 II-26〉 초등학령 인구 현황(2019)

구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계	비(%)
계 (명)	2,322	2,637	2,638	2,571	2,370	2,440	2,555	17,533	7.62
여 (명)	1,142	1,289	1,320	1,254	1,155	1,200	1,230	8,590	7.45
남 (명)	1,180	1,348	1,318	1,317	1,215	1,240	1,325	8,943	7.80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20년 6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개소함. 참고로, 전남에는 7개 시·군에 1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중임.

〈표 II-27〉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위탁기관명	소재지	인력	사업비	개소일	수탁기관	수탁기간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옥암동	3명 (센터장 1, 돌봄교사 2)	102백만원 (국59, 도14, 시29)	'20.6.1.	(사)청소년문화공동체	'20.5.1.~ '24.10.31. (4년 5개월)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12) 영유아 대상 24시간(07:30~익일07:30)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13) 가정양육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함.

14)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육아정보의 공유 및 양육환경의 개방을 특징으로 함.

-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원도심권 29, 해당권 7, 남악근교권 4)¹⁵⁾가 운영중임. 종교단체(교회)가 운영하는 곳이 15개소로 가장 많음.

〈표 II-28〉 지역아동센터 현황

운영주체	소재지			시설 수 (개소)	정원 (명)	현원 (명)	이용률(%)
	원도심권	해당권	남악근교권				
계	29	7	4	40	1,100	1,030	93.6
아동복지시설	1	-	-	1	29	29	100.0
종교단체(교회)	9	3	3	15	375	348	92.8
사단법인	9	1	-	10	287	264	91.9
개인	10	3	1	14	409	389	95.1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 아동 복지시설(생활)로는 양육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가 있음.

〈표 II-29〉 아동 생활 복지시설 현황

유형	15개 시설명	정원	현원	종사자	소재지
계	-	468	312	178	
양육 시설 (6)	경애원	75	56	23	산정동
	성덕원	75	59	23	죽교동
	동민영아원	50	40	26	용해동
	공생원	100	51	23	유달동
	목포아동원	90	50	25	용해동
	자립생활관	30	14	2	용해동
공동 생활가정 (5)	목포우리집	7	7	3	원산동
	푸른초장그룹홈	7	6	3	연 동
	매당기행	7	5	3	상 동
	사랑샘	7	7	3	목원동
	한울타리	6	4	3	북향동
쉼터 (2)	목포햇살아래그룹홈	7	4	5	연산동
	우들공(우리들의 공간)	7	5	5	신흥동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15) <2019년 목포시 사회지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상동, 해당동, 신흥동을 해당권으로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을 남악근교권으로, 나머지 17개동을 원도심권으로 분류함.

- 청소년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민간)와 이용시설 6개소(직영 2, 위탁 4)가 운영중임.
- 위기·가출청소년 보호시설 2개소가 모두 남자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여자청소년쉼터가 부재함.

〈표 II-30〉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자청소년단기쉼터	남자청소년중장기쉼터
업무	청소년상담	학교밖청소년상담	위기·가출청소년보호	위기·가출청소년보호
인력	5명	3명	8명	8명
소재지	옥암동	옥암동	목원동	상동
운영자	목포시장(직영)	목포시장(직영)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법인)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법인)
구분	청소년문화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性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업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	찾아가는 性교육, 지도자 양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력	3명	6명	5명	14명
사업비	90백만원 (시비100%)	90백만원 (시비100%)	165백만원 (국47,도2,시51)	※ 자체 수익금으로 사업비 등 총당
소재지	만호동	부흥동	상동	상동
위탁 기관 및 기간	목포YMCA 2019.1.1.~ 2021.12.31.(3년)	목포YMCA 2019.3.1.~ 2022.2.28.(3년)	목포YMCA 2018.1.1.~ 2020.12.31.(3년)	목포YMCA 2018.1.1.~ 2020.12.31.(3년)

※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2020. 7. 1 기준)

○ 여성·가족

- 여성·가족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5개소(모자보호 2, 폭력피해자보호 3), 이용시설 8개소(직업교육훈련 2, 폭력피해상담 4, 가족지원 2)가 있음.

〈표 II-31〉 여성복지시설(생활) 현황(2020)

구분	시설	태화모자원	성모의 집	여성의 쉼터	해늘	전남이주여성쉼터
유형		한부모가족보호	미혼모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종사자		4명	4명	6명	8명	5명
인원	정원	30세대 99명	12명	20명	15명	11명
	현원	65명(모25,자40)	5명(미혼모4,자1)	12명(여성 8, 자 4)	13명(여성장애인)	12명(여성 5, 자 7)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표 II-32〉 여성복지시설(이용) 현황(2019)

구분	시설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여성상담센터	여성인권 지원센터	전남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형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성폭력상담	통합상담 (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	가족상담, 공동육아	조기 적응, 자립 지원
종사자		9명	11명	5명	6명	5명	6명	14명	12명
이용자수 (상담건수)		49,966명		1,544건	1,951건	1,190건	491건	34,348명	12,507명

※ 출처: 목포시 내부자료(2020. 7. 1 기준)

보육 및 복지 부문 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약 5.1%)과 이용률(5.05%)이 낮은 편임.
- 영유아 돌봄에 비해 초등 돌봄 시설이 부족한 편임.
- 청소년 생활복지시설(2개소)이 모두 남자청소년쉼터임. 위기·가출 여자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가 부재함.
-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이 7개소(상담 4, 보호 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라. 건강 및 안전

○ 건강

- 자신의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5.7%임. 전남 평균 및 4개 시의 응답율보다 높아 주관적 건강수준은 대체로 양호함.

〈표 II-3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2017~2019)

(단위: %)

행정구역별	2017	2018	2019
전라남도	46.8	43.8	45.1
목포시	44.9	48.6	45.7
여수시	43.7	37.6	44.7
순천시	43.3	38.9	38.7
나주시	43.5	43.2	40.8
광양시	43.1	39.2	41.8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제공)

-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을 종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체계화한 EQ-5D지표는 양호한 편임(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음). 또한 지난 3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됨.

〈표 II-34〉 EQ-5D(2017~2019)

행정구역별	2017	2018	2019
전라남도	0.958	0.960	0.963
목포시	0.962	0.964	0.976
여수시	0.960	0.959	0.959
순천시	0.958	0.967	0.960
나주시	0.945	0.947	0.941
광양시	0.960	0.961	0.973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제공)

-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전국 및 전남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높음.

〈표 II-35〉 자살률 현황(2017~2019)

행정구역별	성별	2017	2018	2019
전국	계 (명)	24.3	26.6	26.9
	남 (명)	34.9	38.5	38.0
	여 (명)	13.8	14.8	15.8
전라남도	계 (명)	25.1	28.0	25.4
	남 (명)	36.3	42.6	39.4
	여 (명)	13.9	13.3	11.3
목포시	계 (명)	23.9	35.0	29.2
	남 (명)	36.8	48.5	43.8
	여 (명)	11.1	21.5	14.8

※ 출처: 인구동향과(사망원인통계)(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제공)

○ 안전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등급¹⁶⁾ 중 범죄 등급이 5등급으로 열악함.

〈표 II-36〉 지역 안전등급 현황(2019)

행정구역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목포시	3	2	5	3	4	3
여수시	4	3	4	3	3	3
순천시	3	4	3	3	2	3
나주시	5	4	2	4	4	4
광양시	3	3	3	2	2	2

※ 출처: 행정안전부(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제공)

16)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수를 상대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로 구성됨. 등급이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함.

- 지난 3년간 성폭력 범죄¹⁷⁾의 발생과 검거가 모두 증가했음.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임.

〈표 II-37〉 성폭력 발생 및 검거 건수 현황(2017~2019)

구 분	'17년	'18년	'19년
발생 건수	147	159	183
검거 건수	134	135	166
피해자 성별	남 7 여 133	남 18 여 127	남 18 여 161

※ 출처: 목포경찰서 내부자료

-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 건수가 늘었음.¹⁸⁾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

〈표 II-38〉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현황(2017~2019)

구 분	'17년	'18년	'19년
신고 건수	1,505	1,439	1,360
검거 건수	289	247	405
피해자 성별	남 49 여 219	남 18 여 114	남 36 여 218

※ 출처: 목포경찰서 내부자료

-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신고와 검거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표 II-39〉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현황(2017~2019)

구 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17년	'18년	'19년	'17년	'18년	'19년
신고 건수	145	189	204	45	69	104
검거 건수	58	40	64	7	3	34

※ 출처: 목포경찰서 내부자료

건강 및 안전 부문 현황

- 주관적 건강 수준은 좋은 편이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높음.
- 범죄 측면에서 지역의 안전등급이 낮은 편임.
- 지난 3년 간 성폭력 발생이 증가함. 2019년 기준 183건 발생하여 166건 검거됨(검거율 90.1%).
- 2019년 가정폭력 신고는 1,360건임. 신고 대비 검거 건수는 많지 않음.

17) 상기 성폭력은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죄를 포함한 것임.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간의 폭력 범죄를 지칭함. 그러나 경찰청 통계자료는 부부 사이의 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별도로 집계함.

2.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가. 추진기반

○ 관련 조례

- 여성가족과 소관 자치법규는 28건(조례 25건, 규칙 3건)임.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가 다수임. 이밖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표 II-40〉 자치법규 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제정일	최근 개정일
1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2005.07.28.	2015.04.13.
2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12.19.	2019.10.21.
3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	2015.04.13.	
4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4.20.	2013.06.19.
5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07.04.02.	2015.08.03.
6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2.29.	
7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1.08.16.	2013.04.10.
8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95.05.01.	2019.10.21.
9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1988.03.22.	2015.08.03.
10	목포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2000.10.02.	2012.10.08.
11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1996.12.30.	2015.08.03.
12	목포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1999.12.27.	2015.06.01.
13	목포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000.07.31.	2012.10.08.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0.12.	2019.07.01.
15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06.25.	2015.08.03.
16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12.29.	
17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7.30.	2010.12.27.
18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11.06.20.	
19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2.10.08.	2018.12.17.
20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2013.01.21.	2016.04.04.
21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020.5.25	
22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0.08.	2018.12.17.
23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02.23.	2017.06.05.
24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21	
25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15.	
26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21.	
27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2.16.	
28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15.	

※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과 관련된 법규로는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2012. 10. 제정)와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2013. 1. 제정)이 있음.

〈표 II-41〉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구조

구분		주요내용
총칙	기본이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평등한 책임과 권리,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
	시의 책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마련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기본시책	양성평등정책 촉진	성주류화 조치(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참여	시정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지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성차별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평등한 가족생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양성평등기금	기금의 설치 등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보칙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2012. 10. 제정)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이에 따르면,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에 힘써야 함(제3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도 규정됨(제11조). 이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실·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제18조)하도록 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함.
- 정부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시행에 발맞춰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2020.05.25.)도 제정함. 이어「제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안]도 수립함.

○ 조직·인력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는 본청 자치행정복지국 산하 여성가족과임.

〔그림 II-18〕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2020)



- 일반직은 20명으로 과장 1인, 팀장 4인, 팀원 15인으로 구성됨. 공무원 인원은 51명임.

〈표 II-42〉 여성가족과 조직·인력 현황

구분	총계	일반직(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직 등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73	20	-	1	4	6	7	2	51
현원	71	20	-	1	5	5	6	3	51

- 팀별로는 보육 5명, 아동청소년 5명, 여성정책 5명, 드림스타트 4명으로 운영됨.

〈표 II-43〉 여성가족과 팀별 인원 및 업무

보육팀 (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책 수립 및 추진 • 어린이집(189개소) 운영지원 및 종사자 관리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아동청소년팀 (5명) ※ 공무원 등 9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 아동복지시설(15개소), 청소년시설(8개소)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여성정책팀 (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다문화·한부모 가족지원 시책 수립 및 추진 • 여성복지시설(13개소) 운영 지원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직업훈련 지원
드림스타트팀 (4명) ※ 공무원 4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아동복지서비스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아동센터(40개소) 운영 지원

▪ 참고: 아동보호팀 신설(2021. 1월 예정)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대응, 사례관리 등

○ 주요 사업

- 2020년, 여성가족과는 ‘행복한 삶이 있는 여성과 가족, 미래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음. 이에 (1)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2) 꿈과 미래가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3)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건강가정 문화 조성, (4)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44〉 2020년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추진방향

비전	행복한 삶이 있는 여성과 가족, 미래가 있는 아동·청소년
성과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② 꿈과 미래가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③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건강가정 문화 조성 ④ 취약계층아동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주요업무 추진체계	보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열린 어린이집 확대 ○ 보육품질 향상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아동청소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지급 - 아동복지시설(13개소) 운영 지원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센터(2개소) 운영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확대
	여성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공감 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시설(2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등 - 건강가정 조성사업 ○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및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 여성복지시설(6개소) 운영 - 여성취업지원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드림스타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적극적인 돌봄 체계 구축, 돌봄 공백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40개소) 운영 -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예산

- 2020년도 목포시청 조직별 본예산 구성에서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은 전체의 절반(50.07%)을 차지함. 산하 과별로는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이 가장 많고, 여성가족과가 그다음임.

〈표 II-45〉 2020년도 본예산

구분	예산액(천원)	구성비(%)
총계	822,099,376	100.00
본청	715,332,067	87.01
자치행정복지국	411,650,010	50.07
자치행정과	47,916,047	5.83
교육체육과	12,645,414	1.54
사회복지과	57,172,045	6.95
노인장애인과	176,976,473	21.53
여성가족과	115,775,718	14.08
민원봉사실	1,164,313	0.14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2020년도 여성가족과 본 예산액 115,775,718천원 중 78%에 해당하는 90,506,060천원은 국·도비(균특 및 기금 포함), 22%에 해당하는 25,269,658천원이 시비로 국·도비의 비중이 큼.

〈표 II-46〉 2020년도 예산 현황

구분	예산액(천원)
일반회계	110,448,831
특별회계	-
기금	5,326,887
계	115,775,718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표 II-47〉 2020년도 예산 재원

재원	예산액(천원)
국·도비(균특, 기금 포함)	90,506,060
시비	25,269,658
계	115,775,718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주요 사업비 지출 규모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26.11%), 누리과정·차액 보육료 지원(13.34%), 아동수당 지원(12.34%),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12.30%) 순임. 시비 지출 규모가 큰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임(시비의 10.36%).

〈표 II-48〉 2020년도 주요사업 사업비 현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230,239 (국 22,672,679 ^{75%} , 도 5,290,292 ^{17.5%} , 시 2,267,268 ^{7.5%})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3,374명)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차액 보육료 지원	15,447,977 누리과정 보육료 (도 14,245,303 ^{100%})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 238,562, 시 964,112)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3,709명) 보육료 및 민간·가정 차액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178,168 (국 3,883,626 ^{75%} , 도 906,179 ^{17.5%} , 시 388,393 ^{7.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1,829명) 양육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4,236,948 (국 1,847,128 ^{13%} , 기 483,356 ^{2%} , 도 2,529,708 ^{18%} , 시 9,376,702 ^{67%})	아동복지시설(15개소)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510,092 (국 1,692,905 ^{31%} , 도 1,209,356 ^{22%} , 시 2,607,831 ^{47%})	지역아동센터(40개소)운영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1,626,287 (도 1,035,513 ^{64%} , 시 590,774 ^{36%})	취약계층 결식우려 아동(1,830여명) 급식지원
아동수당 지원	14,285,257 (국 11,427,990 ^{80%} , 도 857,288 ^{6%} , 시 1,999,979 ^{14%})	만0~7세 이하 아동(12,212여명) 아동수당(월10만원) 지급
아이돌봄 지원사업	2,672,380 (국 1,870,636 ^{70%} , 도 400,872 ^{15%} , 시 400,872 ^{15%})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정 지원	5,026,731 (국 2,599,685 ^{55%} , 도 782,152 ^{17%} , 시 1,644,894 ^{28%})	한부모복지시설(2개소) 운영지원 및 한부모세대 (1,800여 세대) 양육비 등 지원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위원회

- 여성가족과는 총 10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조정하는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함.

〈표 II-49〉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칭	위원 수	법적 근거	기능
1	보육정책위원회	12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기본방향과 정책심의
2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8	아동복지법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 심의
3	아동급식위원회	10	아동분야 사업 지침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4	양성평등위원회	13	목포시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정책 수립
5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2	목포시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성과 심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2	목포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정책개선 등에 관한 심의
7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11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시책 개발
8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12	목포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운영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9	지역돌봄협의체	11	목포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
10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14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드림스타트 사업 자문

- 양성평등위원회는 아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으로 구성됨.

〈표 II-50〉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2020. 10.)

	직 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목포시 부시장	김○○	당연직
2	위 원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	
3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이○○	
4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소장)	김○○	
5	"	광주전남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민○○	
6	"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안○○	
7	"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장)	이○○	
8	"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문○○	
9	"	여성상담센터 (소장)	김○○	
10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	
11	"	여성의 쉼터 (소장)	조○○	
12	"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정○○	
13	"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조○○	
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	
15	"	여성가족과장	이○○	당연직

○ 유관단체

- 유관단체로는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원단체 189개),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원단체 15개), 목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원단체 40개)가 있음.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목포YWCA의 회원수가 2,400명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표 II-51〉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회원 수
1	사)대한어머니회 전남연합회 목포지회	36
2	사)나누며사는사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	30
3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목포시지부	27
4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목포시지회	50
5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목포시지부	20
6	사)목포시새마을부녀회	459
7	목포시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	80
8	사)한국부인회전남지부 목포시지회	39
9	사)여성지도자연합회 전남지부목포시지회	22
10	사)목포YWCA	2,400
11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포시지회	40
12	사)한국생활개선 목포시연합회	361
13	사)한국원자력여성 목포시지회	100
14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목포분회	250
15	목포농협 농가주부모임	40

나. 성주류화 추진현황

○ 성별영향평가¹⁹⁾

-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함. 이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²⁰⁾

19)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됨. 2015년부터 정부는 민관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도 두어 관련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함.

20) 2019년부터 양적 평가는 축소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실적(정책개선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개선됨. 2019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15건 중 3건의 정책이 개선되어 정책개선율은 20.0%임. 참고로 전라남도(본청)는 30.19%, 전남 시군구 평균은 30.18%임(2019.12.31. 기준).

〈표 II-52〉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2017-2019)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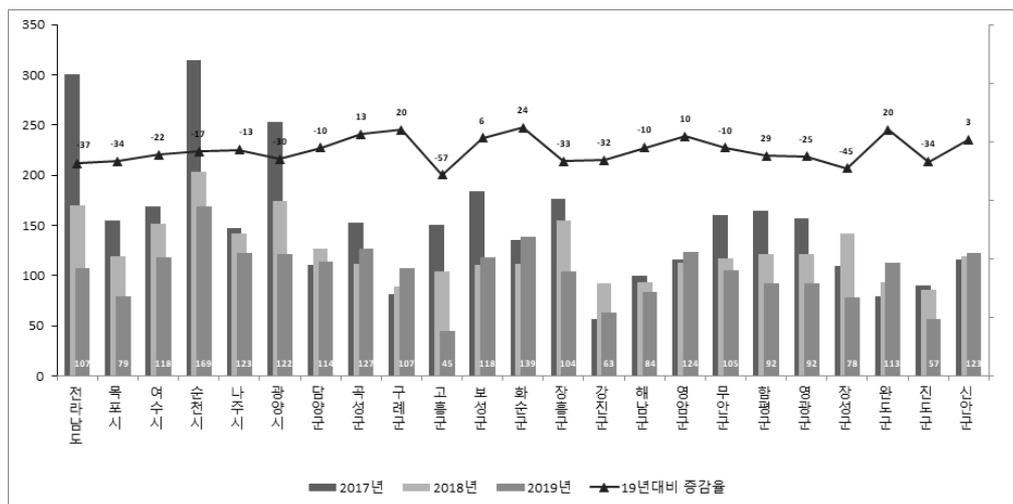
구분	2019				2018				2017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79	64	0	15	119	65	1	53	155	73	2	80	
1. 제외대상	19	19	0	0	22	22	0	0	26	26	0	0	
평가 대상	2. 개선사항 없음	56	43	0	13	94	42	0	52	93	41	2	50
	3. 자체개선안 동의	2	1	0	1	3	1	1	1	34	4	0	30
	4. 개선의견	2	1	0	1	0	0	0	0	2	2	0	0
	반영결과	계	2	1	0	1	0	0	0	2	2	0	0
		수용	2	1	0	1	0	0	0	2	2	0	0
		불수용	0	0	0	0	0	0	0	0	0	0	0
		일부수용	0	0	0	0	0	0	0	0	0	0	0
중단	0	0	0	0	0	0	0	0	0	0	0		
5. 기타(미완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 수: 15건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지난 3년 간 전남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대체로 감소함. 2019년 전남 평균 추진 건수는 104건임. 추진실적은 순천(169건), 화순(139건), 영암(124건), 나주(123건), 신안(123건)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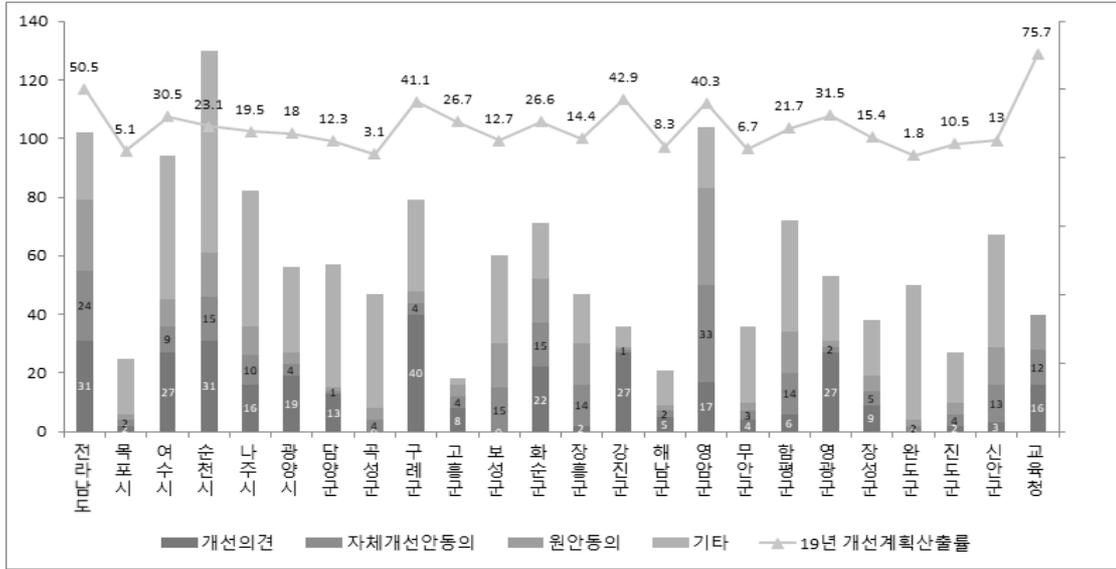
[그림 II-19] 행정단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2017-2019)



※출처: 전남양성평등센터, 『2019년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미출판)

- 2019년 전체 추진과제 대비 개선계획 수립 비율은 교육청(75.7%), 전라남도(50.5%), 강진군(42.9%), 구례군(41.1%) 순임. 목포시는 개선의견 2건, 자체개선안동의 2건으로 개선계획 수립 비율이 5.1%에 그침.

[그림 II-20] 행정단위별 개선계획 수립 비율(2019)



※출처: 전남양성평등센터, 『2019년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미출판)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이수율은 20.5%(5급 이상 1.7%, 6급 이하 18.8%)로, 전라남도 22.6%, 기초자치단체 평균 38.3%에 비해 낮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큰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II-53〉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2019)

(단위 : 명, %)

기관명	전체 공무원	교육이수 공무원	교육이수율	교육이수 공무원 현황	
				5급 이상	6급 이하
합 계	22,760	7,887	34.7	591(2.6)	7,296(32.1)
전라남도	5,263	1,189	22.6	235(4.5)	954(18.1)
기초전체	17,497	6,698	38.3	356(2.0)	6,342(36.2)
목포시	1,250	256	20.5	21(1.7)	235(18.8)

※출처: 전남양성평등센터, 『2019년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미출판)

다. 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 설치목적: 양성평등의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일자 : 2007. 10. 8.
- 총조성액 : 1,855백만원(출연금 1,500백만원 / 이자 355백만원)
- 집행액 : 193백만원(기금 공모사업 추진)
- 현재 보유액: 1,662백만원(통합관리기금 1,523백만원/ 자체운영 139백만원)

- 2019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하여 총 3개의 사업을 선정함. 신청기관이 적어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37%에 그침.

〈표 II-54〉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실적(2019)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세상의 중심에서 여성장애인 자아(self)를 외치다	○ 3백만원, 350명	37%
	○ 장애인 맞춤형 건강교실("한걸음씩 함께 가요")	○ 3백만원, 300명	
	○ "공감 한스폰, 인문 두스폰으로 만드는 젠더레시피Ⅲ"	○ 5백만원, 266명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 2020년 현재, 총 7개 기관의 7개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상승함. 성평등 실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표 II-55〉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현황(추진중)

수행단체	사업명	지원액 (천원)	비고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양성평등, 거리두기 벗어나다	4,270	총계 28,270 (천원)
목포YMCA(목포기독교청년회)	이퀄리티(남=녀)	4,500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공감한스폰, 인문두스폰으로 만드는 젠더레시피Ⅳ	4,500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가족생활	4,000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전남지회	당신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4,000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여성친화적 소비문화교육·홍보	4,000	
(사)건강나눔	두드릴락(樂)	3,000	

※출처: 목포시청 내부자료

라. 요약 및 결론

○ 강점(S)

- 양성평등 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도 정비됨.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 있음. 우선,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이 많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76명으로 적은 편임.²¹⁾ 또한 관내에 국립 목포대학교가 있어 지역 내 전문가 집단 및 우수한 인재 풀이 존재함. 여성·가족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와 시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다수 존재함.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기금이 설치·구성되어 있음.

○ 약점(W)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중에서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가 되는 성인지 통계 구축이 미흡함. 부서별 행정자료와 조사 등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의무화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성주류화 제도의 운영 성과가 미흡한 편임. 정책개선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 평가지표에 이를 포함하여 성주류화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역할을 실질화하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율이 낮음.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이수율은 1.7%에 불과함. 이는 정책 실행 의지와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기회(O)

- 최근 목포시의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객이 늘어남. 영화 및 방송 매체를 통해 도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관광도시의 위상도 강화됨.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콘텐츠 등을 더하여 유서 깊은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음. 이러한 관광 측면의 매력 요소를 양성평등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성숙한 성평등 문화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성평등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청년여성의 순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21) 참고로, 인구 50만 미만 시는 214명, 인구 20~30만 시는 250명(2020년 6월말 기준)임(목포시청 홈페이지 조직운영현황 참조).

○ 위협(T)

- 성평등을 둘러싼 성·연령 별 인식 격차가 크고, 정책의 개입 지점과 방향에 대한 인식 상의 혼란이 존재함. 성평등과 양성평등, '여성' 정책과 '양성' 평등정책을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현행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도 함.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으로 구래의 여성정책이 남성의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었지만, 이것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존 정책과 대립되는 것은 아님.
- 현재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는 4개팀(20명)의 편제를 갖추. 이 중 3개팀(14명)은 보육과 아동·청소년 돌봄 사업을 운영함. 또한 주요 사업비의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음. 여성정책팀(5명)이 양성평등 촉진 시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족지원, 여성폭력방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큰 편임. 더욱이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증진할 만한 수단도 부족함.
- 부서를 순회하는 행정조직의 특성상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음. 성주류화 제도는 성평등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여성정책팀을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운영 전담 부서를 분리·설치하고, 전문 담당관을 충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확보는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 제도를 정착시키고 가부장적 가족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임.

[그림 II-2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SWOT 분석



○ (전략 1) 약점을 보완하여 강점을 극대화

- 성인지 통계 구축으로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둘러싼 인식 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히 추진하도록 함.



성인지 통계 구축



성인지 역량 강화

- 부서 협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도입,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 등으로 성주류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관협력방식의 회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도록 함.



성주류화 운영 내실화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 (전략 2) 위협에 대응하여 기회를 확장

-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직구조에 명확히 구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등 남성의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직구조에 구현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부문 사업 강화

- 양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 담당관을 설치하여 전문성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전문 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등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 시정 전반 양성평등정책 자문 등을 통해 성평등 도시 목표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위원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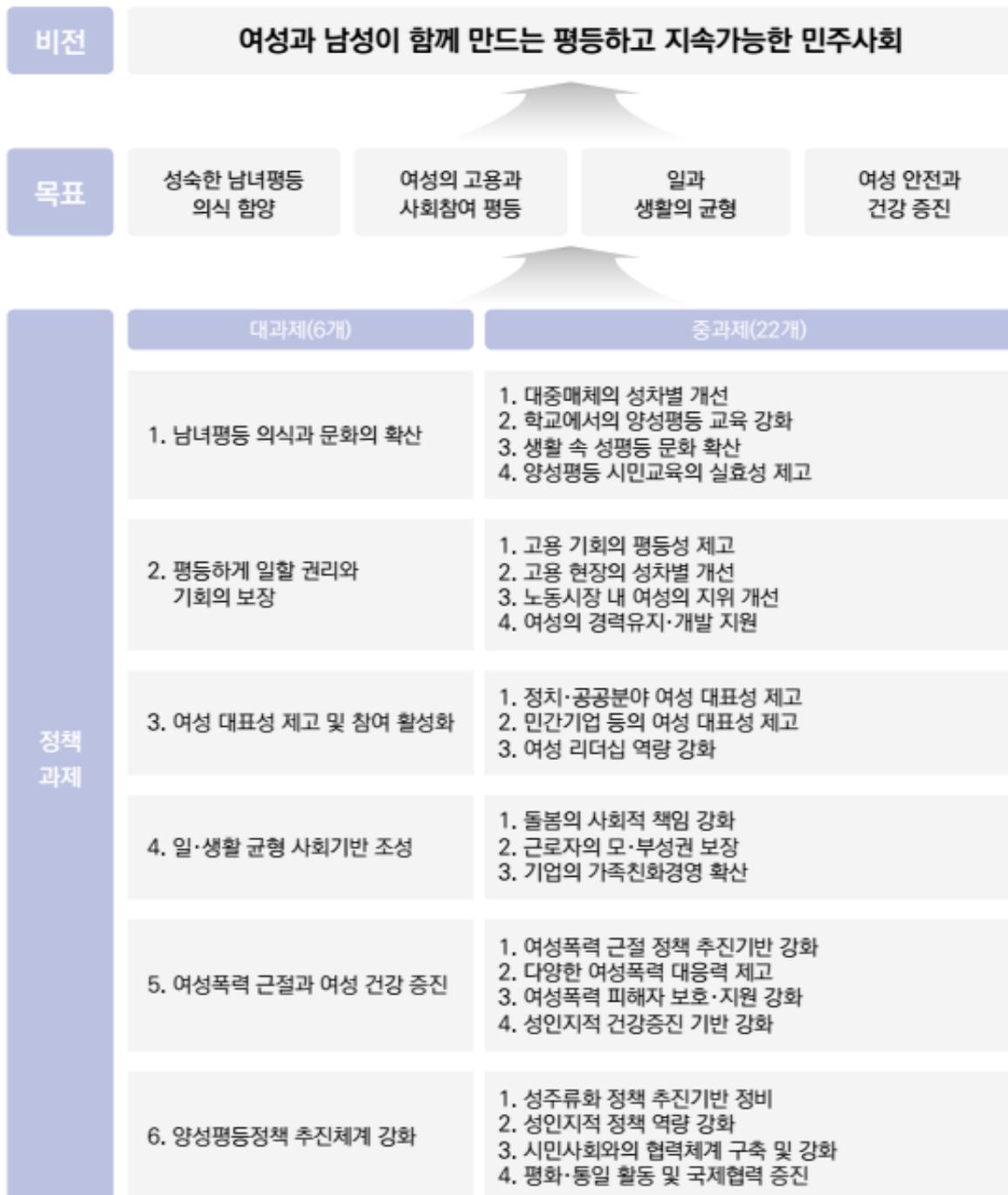
: 부서 경계를 넘어 성별영향평가 운영 총괄,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 자문 등 역할 수행

3. 상위계획

○ 중앙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이어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근본적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둬. 또한 고용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그림 11-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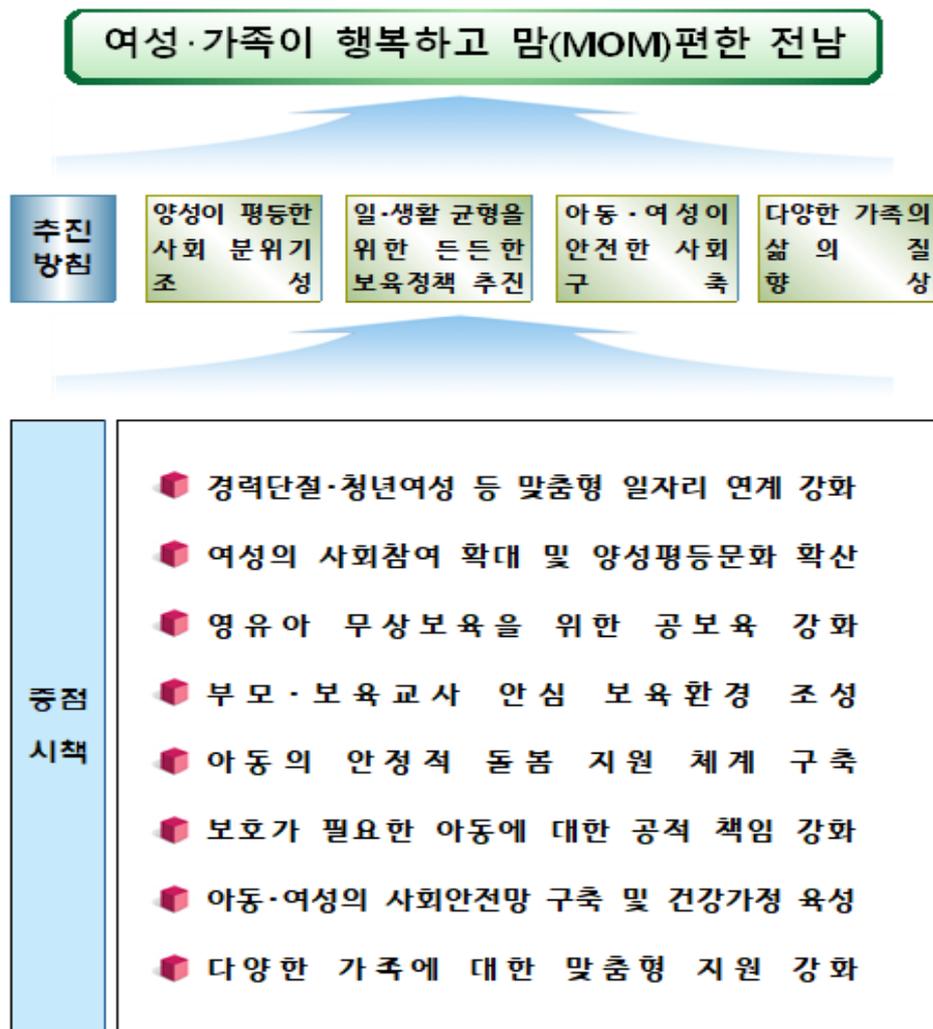
○ 전라남도 2020년도 시행계획(안)

- 전라남도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

〈표 11-56〉 전라남도 2020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인지적 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그림 11-23]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 목표와 추진방침



○ 2030 목포 증장기 종합발전계획

- 인구, 환경, 경제, 문화/관광, 복지, 행정 등의 영역에서 주요 사안을 검토하여 2030 목포시 증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됨.

[그림 11-24] 2030 목포 증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 및 정책체계도

미래상		젊은목포, 해양목포, 미래목포!	
키워드	분야	정책비전	정책목표
해양수산 특화발전 협력성장	경제산업/ 일자리	노동과 기업의 가치와 자유를 존중하는 해양활력도시	명품 및 청년 기업 육성
			광역경제 프로그램
			도심의 경제 거점화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의 완성
문화예술 시민문화 관광도시	문화/관광	오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도시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및 상품 개발
			관광도시 수용태세 강화
			특화 관광 콘텐츠 및 자원개발 추진
			해양관광 도시 정체성 확립
			원도심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발전시스템 구축
스포츠건강 도시 조성			
맞춤복지 지역사회 돌봄 교육복지	보건/복지/ 교육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시민의 소득 및 편안한 노후 보장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모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
시민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훈훈한 情시스템 조성			
사람중심 질적성장 도시재생	도시/주거/ 교통	인간 존중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도시	미래변화를 준비하는 도시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주택정책 추진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계획
미래 교통수요의 대응체계 마련			
친환경 지속가능	공원녹지/ 환경/경관	자연과 인간 모두가 건강한 안전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
			내일을 준비하는 공원 계획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포 조성
시민소통 공감행정	행/재정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행정개혁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공감 행정 도시
			신뢰할 수 있는 건전 재정 운영 도시

○ 목포시 청년정책 제1차 기본계획(2018~2022)

- 2017년에 목포시 청년정책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됨. 목포형 청년정책 비전 체계는 살 자리, 일 자리, 설 자리, 한 자리의 4개 영역에서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촉진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동시에 목포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상을 그림.

[그림 II-25] 목포형 청년정책 비전 체계



○ 시정방침

- 2020년 목포의 시정은 경제, 관광, 복지, 행정의 4개 영역에서 활력, 매력, 행복, 투명성과 활기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둬.

[그림 II-26] 2020년 시정방침



제 3 장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요구 조사

1.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 요구조사
2. 양성평등정책 발굴 원탁회의

Ⅲ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요구 조사

1.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 요구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명: 목포시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 요구 조사
- 목 적: 목포시민의 의식과 요구에 반응하는 양성평등정책 수립
- 대 상: 목포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 내 용: 양성평등의 의식과 경험, 목포시 양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 정책 영역별 중요도 인식 등

〈표 Ⅲ-1〉 설문지 구성

구분	항목	내용
I. 성평등 의식과 경험	• 성역할 및 양성평등 인식	생계부양자 역할, 돌봄 역할, 성별 관계에서 주도성, 직종과 성별 등
	• 성차별 경험	취업, 임금·승진, 학교, 가정, 친구·연인 관계,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 양성평등교육 경험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 폭력 및 안전 인식 및 경험	부부폭력·데이트폭력·직장내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용인 정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 두려움을 느낀 경험, 성추행이나 위협적 상황을 느낀 경험
	• 양성평등 수준 인식	현재와 미래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양성평등을 위해 우선 개선할 부분
II. 목포의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 목포시 양성평등 수준	현재와 미래 목포시의 양성평등 수준
	• 목포시 양성평등 환경 인식	양성평등 의식, 여성 노동,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생활, 여성 안전, 양성평등 추진
III. 성평등 정책 영역별 중요도 인식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및 중요도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남녀의 일할 권리, 여성 대표성, 돌봄 및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예방 및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세부과제 중요도	영역별 세부과제의 중요도 판단 및 가장 시급한 과제 선정과 그 이유

○ 응답자 특성

-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372명으로 남성이 151명(40.6%), 여성이 221명(59.4%)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4명(14.5%), 30대가 68명(18.3%), 40대가 102명(27.4%), 50대가 87명(23.4%), 60대 이상이 61명(16.4%)임.

〈표 Ⅲ-2〉 응답자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151	40.6	
	여성	221	59.4	
	계	372	100.0	
연령	19-29세	54	14.5	
	30-39세	68	18.3	
	40-49세	102	27.4	
	50-59세	87	23.4	
	60세 이상	61	16.4	
	계	372	100.0	
	결혼 여부	기혼 유배우	239	
기혼 무배우		43	11.7	
미혼		85	23.2	
계		367	100.0	
학력	무학	6	1.6	
	초등학교	5	1.4	
	중학교	10	2.7	
	고등학교	103	28.9	
	대학(2,3년제)	87	23.6	
	대학교(4년제)	135	36.7	
	대학원	22	6.0	
	계	368	100.0	
직업	소득있는 직업	252	68.3	
	가사, 학업 중 틈틈이 일함	23	6.2	
	일이 있으나 잠시 쉬고 있음	16	4.3	
	일하지 않음	78	21.1	
	계	369	100.0	

나. 조사결과 요약

○ 성평등 의식과 경험

1) 양성평등 의식

- 목포시민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와 성평등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3개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음.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매우 그렇다’고 응답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것으로 해석함. 단, 결과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항들(9~12)은 응답을 역코딩함. 결국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III-3〉 성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항목	여성	남성	전체	유의수준
1)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2.20	2.23	2.21	0.805
2)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2.10	2.23	2.15	0.145
3)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2.00	2.17	2.07	0.048*
4)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5	2.09	2.01	0.069
5)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2.33	2.28	2.31	0.536
6)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1.92	2.13	2.01	0.009**
7)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92	2.32	2.08	0.000***
8)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91	2.19	2.02	0.000***
9)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1.86	2.17	1.98	0.000***
10)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82	1.97	1.88	0.045*
1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2.35	2.53	2.42	0.023*
12)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2.20	2.52	2.33	0.000***
13)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필요하다면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1.52	1.84	1.65	0.000***

*p < 0.05 ** p < 0.01 *** p < 0.001

- 성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중간점수인 2.5보다는 낮아 비교적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문항별로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음. 가장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항목은 ‘13) 감원 필요시 여성을 먼저 해고’이며, 비교적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항목은 ‘11) 여성 직군에 남성 진출’, ‘12) 남성 직군에 여성 진출’임. 그러나 두 항목의 평균은 각각 2.42, 2.33으로 2.5보다는 작음.
- 성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평등한 태도를 보임. 유일하게 ‘5)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 자녀 돌봄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여성의 평균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다만 ‘1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항목과 더불어 5)항목에 대한 여성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4〉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부정 응답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5)여성은 자녀 돌봄을 우선시해야	
전체		372		58.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1	151	57.5	59.6
연령	29세 이하	28	26	71.4	76.9
	30-39세	40	28	75.0	67.9
	40-49세	65	37	60.0	67.6
	50-59세	52	35	40.4	51.4
	60세 이상	36	25	47.2	32.0
학력	중졸이하	12	9	25.0	33.3
	고졸	63	40	44.4	45.0
	대졸이상	143	101	66.4	67.3
소득수준	상	44	45	56.8	64.4
	중상	47	25	66.0	48.0
	중하	50	49	54.9	55.1
	하	32	21	50.0	57.1

주1: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 응답을 합한 수치임.

- 성·연령별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30대와 남성 20대로, 특히 20대 남성이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성평등한 인식을 보여줌. 2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성의 응답률은 44.9%p의 차이를 보여 세대 간에 확연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률이 높음.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의 일정한 방향성은 관찰되지 않음.
- 위 〈표 III-3〉의 항목들 중 1), 2), 4), 5)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중 '7)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됨', '8)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함'은 남성성 통념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임. 아래 표의 응답률이 높을수록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두 항목 모두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의 응답률보다 약 20%p 더 높음.

〈표 III-5〉 남성성 통념 및 이성관계의 주도성에 관한 인식(부정 응답률)

(단위: %)

구분		7)남성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됨		8)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함	
전체		73.9		79.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82.8	60.9	87.3	67.5
연령	29세 이하	92.9	61.5	85.7	80.8
	30-39세	85.0	67.9	95.0	71.4
	40-49세	93.8	83.8	92.3	81.1
	50-59세	74.5	54.3	75.0	51.4
	60세 이상	66.7	28.0	88.9	52.0

구분		7)남성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됨		8)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함	
학력	중졸이하	50.0	44.4	75.0	66.7
	고졸	74.2	45.0	79.4	57.5
	대졸이상	89.9	69.3	91.6	71.3
소득수준	상	88.6	66.7	88.6	66.7
	중상	87.2	56.0	87.2	68.0
	중하	78.0	65.3	84.0	75.5
	하	78.1	42.9	87.5	42.9

주: '전혀 아니다', '아니다' 응답을 합한 수치임.

- '7)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와 '8)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항목의 부정 응답률은 각각 73.9%와 79.3%로,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의 56.8%, 69.2%보다 높은 수치임. 조사대상과 시점이 상이하여 두 조사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2020년 목포시민의 '남성성' 대한 인식이 더 유연함.
- 7)항목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부정적이며, 8)에 대해서는 여성은 30대, 남성은 40대가 가장 부정적임. 또한 남녀 모두 대졸이상 학력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의 차이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음.
- '9)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중요' 항목에 대한 성과 연령, 학력, 소득수준 별 교차분석 표는 아래와 같음.

<표 III-6>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태도(긍정 응답률)

(단위: %)

구분		9)여성의 경제적 자립 중요	
전체		83.9	
		여성	남성
		87.8	78.1
연령	29세 이하	85.7	80.8
	30-39세	85.0	60.7
	40-49세	87.7	86.5
	50-59세	90.4	80.0
	60세 이상	88.9	80.0
학력	중졸이하	91.7	88.9
	고졸	84.1	77.5
	대졸이상	89.5	78.0
소득수준	상	79.5	90.5
	중상	89.4	77.6
	중하	90.0	76.9
	하	90.6	75.6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수치임.

- '9)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은 83.9%임. 성별로는 여성 87.8%, 남성 78.1%로 9.7%p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음. 30대 남성의 긍정 비율은 60.7%로 유독 낮음. 남녀 모두 중졸이하 학력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가장 중시함. 한편, 소득수준에서는 성별로 정반대의 경향이 관찰됨. 여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남성이 더 진출'과 '12)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여성이 더 진출'은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항목임. 이 두 항목에서만 남성의 평균점수가 2.5점을 상회함. 여성의 경우에도 두 항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임. 이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표 Ⅲ-7〉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한 인식(긍정 응답률)

(단위: %)

구분		11)여성 직종에 남성이 더 진출		12)남성 직종에 여성이 더 진출	
전체		55.6		62.1	
		여성	남성	여성	남성
		62.9	45.0	71.0	49.0
연령	29세 이하	71.4	46.2	85.7	42.3
	30-39세	65.0	56.9	67.5	50.0
	40-49세	56.9	43.2	63.1	48.6
	50-59세	65.4	45.7	75.0	48.6
	60세 이상	61.1	36.0	72.2	56.0
학력	중졸이하	58.3	55.6	66.7	66.7
	고졸	55.6	40.0	65.1	42.5
	대졸이상	67.1	46.5	74.1	50.5
소득수준	상	63.6	44.4	68.2	46.7
	중상	59.6	52.0	68.1	52.0
	중하	62.0	42.9	76.0	44.9
	하	71.9	47.6	78.1	47.6

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을 합한 값임

- '11)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남성이 더 진출'에 대해 여성은 62.9%, 남성은 45%가 동의함. '12)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여성이 더 진출'에 대해 여성은 71.0%, 남성은 49%가 동의하여,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22%p). 여성의 경우, 두 항목 모두 20대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고, 40대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낮음. 특히 11)항목에 대한 40대, 고졸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두 항목 모두 여성은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중졸이하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 소득수준이 중상일 때 여성은 긍정 비율이 가장 낮지만, 남성은 가장 높음. 이는 성별 직종분리와 관련하여 학력 및 소득 변수가 성별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2) 성차별 경험

- 목포시민의 성차별 경험 여부를 고용, 임금·승진, 학교, 가정 등으로 나누어 질문함. 이에 대한 응답을 있음, 없음, 해당없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적게는 19.1%(취업)에서 많게는 30.1%(공공기관 및 공공장소)까지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성차별 경험

(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있음	없음	해당없음	있음	없음	해당없음	있음	없음	해당없음	
1) 취업시 성차별 경험	17	99	34	54	104	62	71	203	97	14.592** (0.001)
	11.3	65.6	23.2	24.5	47.3	28.2	19.1	54.6	26.1	
2) 임금, 승진 성차별 경험	19	126	6	57	136	27	76	262	33	20.626*** (0.000)
	12.6	83.4	4.0	25.9	61.8	12.3	20.4	70.4	8.9	
3) 학교 성차별 경험	23	92	36	55	102	63	78	194	99	8.467* (0.014)
	15.2	60.9	23.8	25.0	46.4	28.6	21.0	52.2	26.6	
4) 가정 성차별 경험	18	125	8	87	119	13	105	244	21	35.373*** (0.000)
	11.9	82.8	5.3	39.7	54.3	5.9	28.2	65.6	5.6	
5) 친구, 연인 성차별 경험	25	102	24	72	100	48	97	202	72	18.604*** (0.000)
	16.6	67.5	15.9	32.7	45.5	21.8	26.1	54.3	19.4	
6) 공공기관, 공공장소 성차별 경험	27	101	23	85	91	44	112	192	67	25.177*** (0.000)
	17.9	66.9	15.2	38.6	41.4	20.0	30.1	51.6	18.0	

*p < 0.05 ** p < 0.01 *** p < 0.001

주1) 결측치가 있어 문항별 전체 합은 차이가 있음.

- 성차별 경험을 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은 성차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가정(39.7%)내에서, 남성은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17.9%)에서 성차별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 경험은 여성도 높은 편임(38.6%). 성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가정 내 성차별 경험으로 27.8%p 차이가 남.

3) 양성평등교육 경험 및 필요성

- 폭력예방 및 성평등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물음. 항목별로 교육 경험의 편차가 존재함.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다른 교육에 비해 높은 편임. 이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III-1] 성차별 경험('있음'만 표시)



<표 III-9> 양성평등교육 경험

(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받은	받지않음	받은	받지않음	받은	받지않음	
1) 성희롱 예방교육	115	36	121	97	236	133	16.509*** (0.000)
	76.2	23.8	55.5	44.5	64.0	36.0	
2) 성폭력 예방교육	110	40	110	108	220	148	19.338*** (0.000)
	73.3	26.7	50.5	49.5	59.8	40.2	
3) 가정폭력 예방교육	91	59	79	138	170	197	20.995*** (0.000)
	60.7	39.3	36.4	63.6	46.3	53.7	
4) 성매매 예방교육	87	63	75	142	162	205	19.760*** (0.000)
	58.0	42.0	34.6	65.4	44.1	55.9	
5) 양성평등교육	104	46	83	134	187	180	34.292*** (0.000)
	69.3	30.7	38.2	61.8	51.0	49.0	

*p < 0.05 ** p < 0.01 *** p < 0.001

- 성별 교육경험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교육 경험이 여성에 비해 높고, 이러한 격차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는 기업이나 학교 등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남성의 경우에도 항목별로 많게는 42%, 적게는 23.8%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나 기업·기관 등에 속해있지 않은 시민들이 관련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할 것임.

〈표 III-10〉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p-value)
	필요함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없음	
1) 성희롱 예방교육	132	10	206	7	338	17	2.636 (0.104)
	93.0	7.0	96.7	3.3	95.2	4.8	
2) 성폭력 예방교육	134	8	206	6	340	14	1.760 (0.185)
	94.4	5.6	97.2	2.8	96.0	4.0	
3) 가정폭력 예방교육	134	8	203	8	337	16	0.666 (0.415)
	94.4	5.6	96.2	3.8	95.5	4.5	
4) 성매매 예방교육	131	11	208	4	339	15	7.196** (0.007)
	92.3	7.7	98.1	1.9	95.8	4.2	
5) 양성평등교육	129	13	207	7	336	20	5.573* (0.018)
	90.8	9.2	96.7	3.3	94.4	5.6	

*p < 0.05 ** p < 0.01 *** p < 0.001

-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함. 다만, 성매매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성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항목은 성폭력 예방교육임. 목포시민 대부분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도 요구됨. 교육 방식도 블렌디드 러닝 또는 플립플랩 방식 등을 활용하여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²²⁾

4) 폭력 및 안전에 대한 인식

- 부부 사이의 폭력,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용인 정도를 물음.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용인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A)'는 응답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남성은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 여성은 부부 사이의 폭력(84.6%)을 제외한 세 항목에서 90%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남녀 모두 부부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법적 처벌을 유보(B)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가족 내 폭력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며, 용인될 수 없더라도 법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줌.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널리 인지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예방사업에 힘써야 함.

22)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플랩 방식은 거꾸로 교육이라고도 불림. 수강자가 해당 동영상 미리 학습한 후 강사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토론회 수업을 하는 학습자 능동형 교육을 말함. 예컨대, 폭력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의 경우 강사의 강의로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집합교육 시간에 동영상 내용을 토대로 강사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거나 소규모 혹은 전체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법적 처벌’(A)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데이트 폭력임(여성 93.2%, 남성 78.1%).
- 성매매와 관련하여 남성의 10.6%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C)’고 본 반면, 여성의 0.9%만이 그렇게 생각하여 성별 인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 제정·시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성매매를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음.

〈표 III-11〉 폭력 등에 대한 허용 정도

(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A	B	C	A	B	C	A	B	C	
1) 부부 사이의 폭력	108	33	10	187	29	5	295	62	15	10.272** (0.006)
	71.5	21.9	6.5	84.6	13.1	2.3	79.3	16.7	4.0	
2) 데이트 폭력	118	25	8	206	14	1	324	39	9	19.984*** (0.000)
	78.1	16.6	5.3	93.2	6.3	0.5	87.1	10.5	2.4	
3) 직장 내 성희롱	116	31	4	199	18	4	315	49	8	12.593** (0.002)
	76.8	20.5	2.6	90.0	8.1	1.8	84.7	13.2	2.2	
4) 성매매	109	26	16	199	20	2	308	46	18	25.708*** (0.000)
	72.2	17.2	10.6	90.0	9.0	0.9	82.8	12.4	4.8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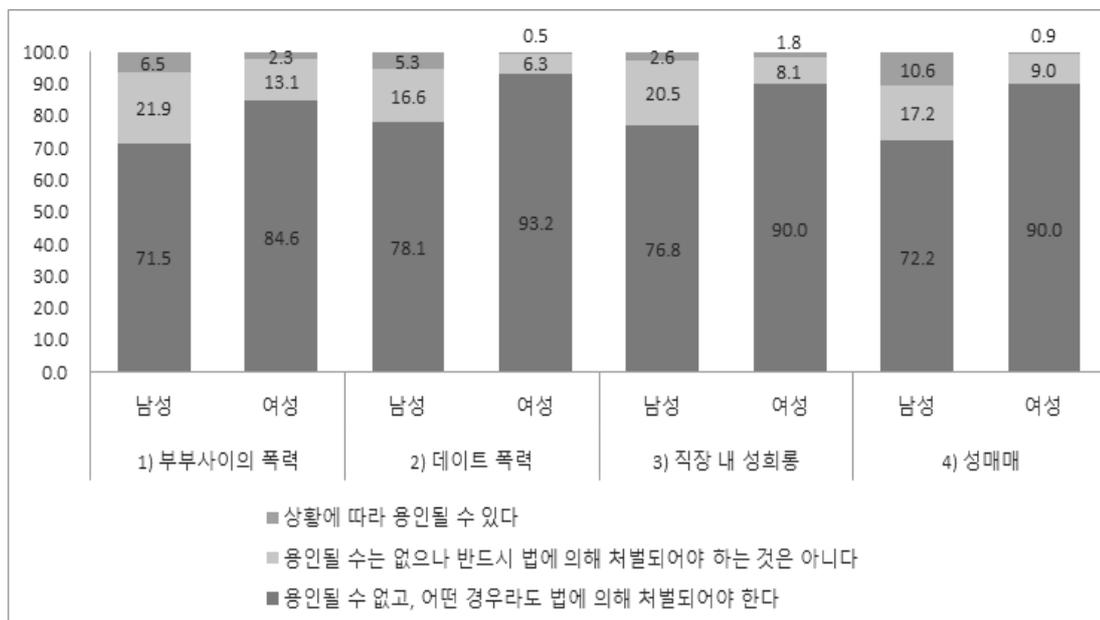
주1) 각각의 응답이 길이 A, B, C로 표기

A: 용인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B: 용인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그림 III-2] 폭력 등에 대한 허용 정도



- 강력한 처벌에 대한 동의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20대 이하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30대의 동의 비율이 유독 낮음. 모든 항목에서 30대는 남성 평균을 밑도는 응답률을 보임. 특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50%만 법적 처벌에 동의함.
- 남녀 모두 각 항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학력 및 소득수준 별로 상이함. 여성의 경우 부부 사이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대졸이상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성매매에 대해서는 중졸이하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옴. 남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 하인 집단의 동의 비율이 낮음.

〈표 III-12〉 강력한 처벌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1)부부폭력		2)데이트 폭력		3)직장 내 성희롱		4)성매매	
전체		372		79.3		87.1		84.7		82.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1	151	84.6	71.5	93.2	78.1	90.0	76.8	90.0	72.2
연령	29세 이하	28	26	100.0	80.8	100.0	88.5	96.4	92.3	92.9	73.1
	30-39세	40	28	87.5	57.1	90.0	67.9	87.6	71.4	87.5	50.0
	40-49세	65	37	83.1	83.8	93.8	83.8	90.8	75.7	92.3	73.9
	50-59세	52	35	78.8	62.8	94.2	77.1	90.4	62.9	86.5	82.9
	60세 이상	36	25	80.6	72.0	88.9	72.0	86.1	88.0	91.7	80.0
학력	중졸이하	12	9	83.3	77.8	91.7	66.7	91.7	77.8	100.0	77.8
	고졸	63	40	77.8	67.5	85.7	75.0	87.3	67.5	85.7	82.5
	대졸이상	143	101	87.4	72.3	96.5	80.2	90.9	72.3	90.9	67.3
소득 수준	상	44	21	90.9	75.6	97.7	82.2	90.9	71.1	88.6	71.1
	중상	47	49	80.9	72.0	91.5	80.0	85.1	80.0	93.6	80.0
	중하	50	25	86.0	73.5	96.0	79.6	88.0	71.4	94.0	71.4
	하	32	45	78.1	61.9	87.5	61.9	90.6	66.7	78.1	66.7

주: '용인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

- 사회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1)전혀 심각하지 않다, 2)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 심각한 편이다, 4) 매우 심각하다는 4점 척도로 물음.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임. 분석 결과, 전체 평균 3.02로 응답자들은 여성 대상 폭력이 '심각한 편'으로 인식함.

〈표 III-13〉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

항목	여성	남성	전체	t값(유의수준)
여성대상 폭력의 심각성 정도	3.26	2.66	3.02	-7.596*** (0.000)

*p < 0.05 ** p < 0.01 *** p < 0.001

- 성별 인식 격차는 비교적 큼. 여성 평균이 3.26으로 '심각'과 '매우 심각' 사이에 위치한다면, 남성 평균은 2.66으로 '심각하지 않음'과 '심각함' 사이에 위치함.
-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을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이 92.3%, 남성이 62.2%로 29.9%p 격차가 존재함.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²³⁾와 비교하면 2020년 목포시 여성 응답률은 3.5%p 높은 반면, 남성 응답률은 13.1%p 낮음. 조사 표본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목포시 남녀의 인식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III-14>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전체		372		19.8		80.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1	151	7.7	37.8	92.3	62.2
연령	29세 이하	28	26	0.0	50.0	100.0	50.0
	30-39세	40	28	15.0	46.4	85.0	53.6
	40-49세	65	37	6.3	47.2	93.8	52.8
	50-59세	52	35	7.7	20.0	92.3	80.0
	60세 이상	36	25	8.3	26.1	91.7	73.9
학력	중졸이하	12	9	8.3	37.5	91.7	62.5
	고졸	63	40	9.7	30.8	90.3	69.2
	대졸이상	143	101	7.0	41.0	93.0	59.0
소득수준	상	44	21	6.8	38.6	90.8	61.4
	중상	47	49	8.5	36.0	91.5	64.0
	중하	50	25	10.0	43.8	90.0	56.3
	하	32	45	12.5	38.1	87.5	61.9

주1: 심각하지 않다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 값을, 심각하다는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값을 합한 것임

주2: 결측값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100.0% 미만임.

-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여성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100.0%인 데 반해, 남성은 50.0%임. 50%p에 달하는 20대 남녀의 인식 격차는 성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대졸 이상 여성은 상대적으로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 남성은 상대적으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음.
-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음.
- 혼자 있을 때 두렵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물음. 장소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짐. 개방된 공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인 버스, 큰길 등에서는 위험을 느낀 비율이 작은 반면, 좁고 폐쇄된 공간인 택시, 골목길,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커짐.

23) <2016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여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 88.8%, 남성 75.3%임(최유진 외, 2016).

〈표 III-15〉 두려움을 느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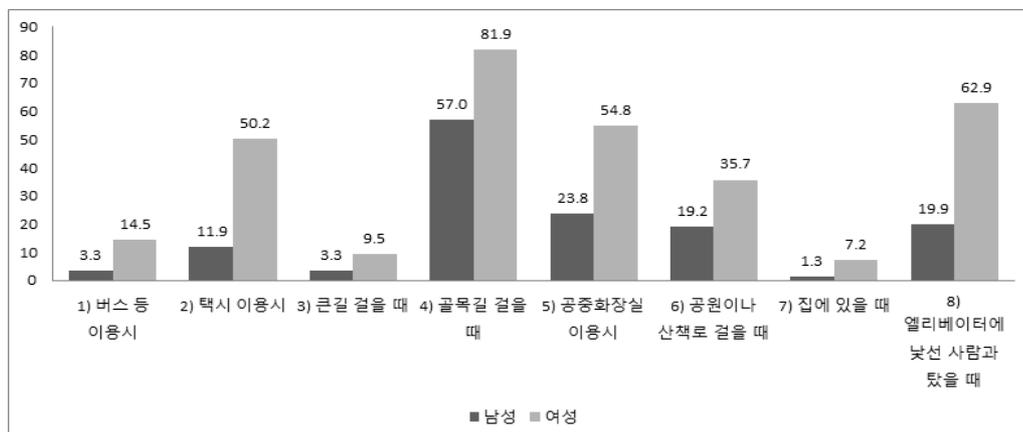
(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버스 등 이용시	5 3.3	146 96.7	32 14.5	189 85.5	37 9.9	335 90.1	12.492*** (0.000)
2) 택시 이용시	18 11.9	133 88.1	111 50.2	110 49.8	129 34.7	243 65.3	58.109*** (0.000)
3) 큰길 걸을 때	5 3.3	146 96.7	21 9.5	200 90.5	26 7.0	346 93.0	5.289* (0.021)
4) 골목길 걸을 때	86 57.0	65 43.0	181 81.9	40 18.1	267 71.8	105 28.2	27.558*** (0.000)
5) 공중화장실 이용시	36 23.8	115 76.2	121 54.8	100 45.2	157 42.2	215 57.8	35.138*** (0.000)
6) 공원이나 산책로 걸을 때	29 19.2	122 80.8	79 35.7	142 64.3	108 29.0	264 71.0	11.913** (0.001)
7) 집에 있을 때	2 1.3	149 98.7	16 7.2	205 92.8	18 4.8	354 95.2	6.817** (0.009)
8) 엘리베이터에 낚선 사람과 탔을 때	30 19.9	121 80.1	139 62.9	82 37.1	169 45.4	203 54.6	66.995*** (0.000)

*p < 0.05 ** p < 0.01 *** p < 0.001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려움을 느낌.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택시를 이용할 때(50.2%),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54.8%), 엘리베이터에서 낚선 사람과 탔을 때(62.9%), 골목길을 걸을 때(81.9%)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골목길을 걸을 때(57.0%) 두려움을 느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남녀의 경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낚선 사람과 탔을 때로, 43%p의 응답률 차이를 보임.

[그림 III-3] 두려움을 느낀 경험



-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중화장실은 ‘강남역 살인 사건’같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임. 최근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도 커짐. 이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정기적인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체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골목길을 걸을 때로 여성의 81.9%, 남성의 57%가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음. 골목길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는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안심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셉티트 기법²⁴⁾을 적용하여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년 사이 대중교통, 골목길, 엘리베이터 등에서 혼자 있을 때 성추행이나 폭력, 위협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음. 남성은 '있다'는 응답이 1.3%인 데 반해 여성은 11.3%임. 일상적 안전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표 Ⅲ-16〉 성추행, 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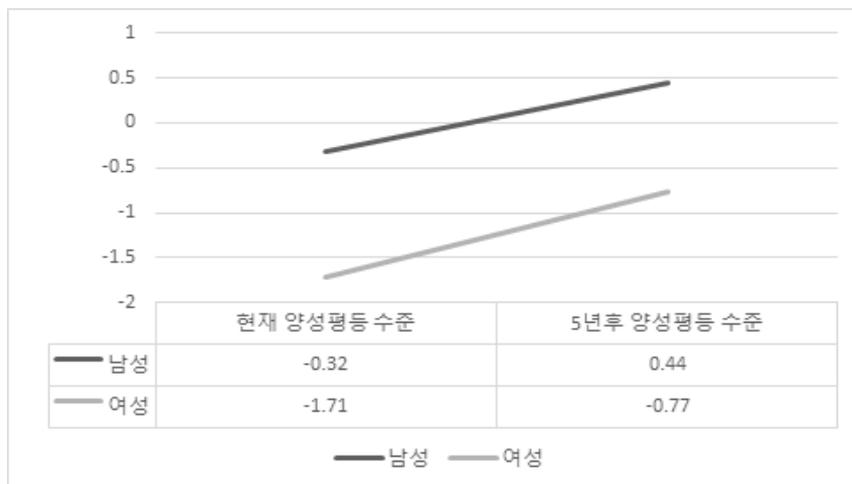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카이제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성추행, 폭력, 위협적 상황 경험	2	148	25	196	27	344	13.186*** (0.000)
	1.3	98.7	11.3	88.7	7.3	92.7	

5) 양성평등 수준

-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현재와 5년 후 전망으로 나누어 질문함. 완전평등(5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남성에게 불평등, 왼쪽으로 갈수록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측정함. 완전 평등을 0점, 여성에게 불평등할수록 음수로 커지도록, 남성에게 불평등할수록 양수로 커지도록 코딩하여 분석함.

[그림 Ⅲ-4]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하지만(-1.14), 5년 후에는 좀 더 평등한 수준(-0.28)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여성은 현재 여성에게

2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인 셉티트(CPTED)는 건축물 등의 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지칭함.

불평등(-1.71)할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도 약간 개선은 되지만 여전히 불평등(-0.77)할 것이라고 응답함. 반면, 남성은 현재를 거의 평등에 가깝게(-0.32) 인식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오히려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0.44)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이는 현재 양성평등정책이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의 정도를 보여줌. 양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함. 특히 성·연령별로 양성평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양성평등 수준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재코딩하여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별로 분석함. 여성의 경우 여성에게 불평등이 81.8%로 가장 많고, 5년 후에도 55.1%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고 예상함. 반면, 남성의 경우 현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2.4%이며, 이미 평등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37.7%임. 또, 5년 후에는 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이 45.7%로 증가하고,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는 예상도 32.5%로 나타남.

〈표 III-17〉 양성평등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현재						5년 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전체	372		65.2		23.4		11.4		41.4		41.1		17.4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21	151	81.8	42.4	13.4	37.7	5.5	19.9	55.1	21.9	38.0	45.7	6.9	32.5	
연령	29세 이하	28	26	78.6	42.3	17.9	38.5	3.6	19.2	59.3	34.6	40.7	34.6	0.0	30.8
	30-39세	40	28	80.0	32.1	12.5	46.4	7.5	21.4	55.0	10.7	35.0	60.7	10.0	28.6
	40-49세	65	37	93.8	54.1	4.7	27.0	1.6	18.9	59.4	29.7	34.4	29.7	6.3	40.5
	50-59세	52	35	76.5	40.0	13.7	28.6	9.8	31.4	52.9	14.3	41.2	48.6	5.9	37.1
	60세 이상	36	25	67.6	40.0	26.5	56.0	5.9	4.0	47.1	20.0	41.2	60.0	5.9	20.0
학력	중졸이하	12	9	58.3	11.1	25.0	88.9	16.7	0.0	50.0	11.0	41.7	66.7	8.3	22.2
	고졸	63	40	73.8	45.0	23.0	37.5	3.3	17.5	45.0	30.0	48.3	47.5	6.7	22.5
	대졸이상	143	101	85.8	44.6	8.5	38.0	5.7	19.3	59.6	19.8	33.3	43.6	7.1	36.6
소득수준	상	44	21	79.5	42.2	9.1	37.8	11.4	20.0	52.3	22.2	45.5	46.7	2.3	31.1
	중상	47	49	87.0	44.0	10.9	32.0	2.2	24.0	65.2	8.0	28.3	44.0	6.5	48.0
	중하	50	25	80.0	46.9	16.0	36.7	4.0	16.3	64.0	26.5	28.0	36.7	8.0	36.7
	하	32	45	78.1	38.1	15.6	28.6	6.3	33.3	45.2	23.8	48.4	57.1	6.5	19.0

주: 각각 여성에게 불평등(1-4), 남녀평등에 응답한 사람(5), 남성에게 불평등(1-4)의 3개 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함.

- <2016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²⁵⁾와 비교하면 현재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의 전체 비율은 비슷하지만, 남녀 간 격차는 더 큼. 2016년 조사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여성 62.6%, 남성 50.8%였음. 2020년 목포시의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한 여성 응답자는 81.8%로 더 높고, 남성 응답자는 42.4%로 더 낮음.
- 여성은 40대, 대졸이상, 중상의 소득 집단이, 남성은 20대, 고졸, 중하의 소득 집단이 현재와 미래 모두 '여성에게 불평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그 외 연령, 학력, 소득수준 별 불평등 인식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다만 현재와 미래 '여성에게 불평등' 항목에서 30대 남녀 간 인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이는 30대 남성의 응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임. 30대 남성의 32.1%만이 현재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며, 5년 후에 그 비율은 10.7%로 감소함.
-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함.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3)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이며, 그다음이 '1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8)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과 돌봄 부담의 편중'임.

<표 III-18>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것

(단위: 명)

항목	1순위	2순위	계	순위
1)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 편견, 비하	47	18	65	6
2)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 편견, 비하	20	24	44	8
3)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	76	40	116	1
4) 여성의 고용 기회 제한	28	8	36	9
5) 여성의 고용 불안 및 저임금	46	35	81	4
6)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의존	39	42	81	4
7) 정치, 공공 부문, 민간 기업 등에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적은 것	4	14	18	11
8)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과 돌봄 부담의 편중	25	62	87	3
9)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기업 문화(장시간 근로, 잦은 출장 등)	17	37	54	7
1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	53	56	109	2
11) 여성 건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과 지원 부족	8	15	23	10
12)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미약 및 담당자 역량 부족	6	12	18	11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및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폭력,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과 돌봄 부담 편중 순으로 나타남.

25) 아래의 표는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 중 현재와 5년 후의 양성평등 수준 전망 결과임(최유진 외, 2016).

구분	사례수(명)	현재(2016년)			5년 후(2021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전체	7,339	62.6	21.0	16.4	36.7	38.5	24.8
성별	여성	74.2	14.6	11.2	46.7	34.2	19.1
	남성	50.8	27.5	21.6	26.6	42.8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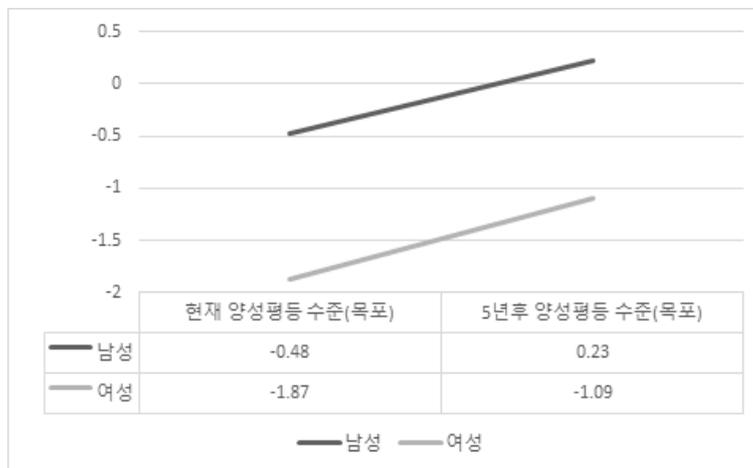
- 시민의 인식에 부응하여 가부장적 가족구조 및 성차별 의식 개선, 여성폭력 근절, 공공 돌봄 확충 및 남성의 돌봄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목포의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1) 목포의 성평등 수준

- 목포시의 양성평등 수준을 현재와 5년 후 전망으로 나누어 질문함. 평등(0점)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평등할수록 음수로 커지도록, 남성에게 불평등할수록 양수로 커지도록 코딩하여 분석함.
- 전체 평균은 -1.30으로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것으로 나옴. 5년 후에는 이것이 약간 완화될 것(-0.56)으로 전망됨.

[그림 Ⅲ-5]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



- 성별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함. 여성은 현재 -1.87, 5년 후에는 -1.09로 여성에게 불평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반면 남성은 현재 -0.48로 평등에 가까우며, 5년 후에는 0.23으로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해질 것으로 예상함.
-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재코딩하여 연령, 학력, 소득수준 별로 분석함.
- 여성은 40대, 남성은 20대가 현재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5년 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30대 남성은 현재와 5년 후 '여성에게 불평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음. 30대 남성의 42.9%는 현재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그 비율이 64.3%로 증가함. 40대 남성의 경우, 16.7%가 현재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년 후 예상에서는 이 수치가 41.7%로 증가함.
- 남녀 모두 중졸이하 학력층에서 현재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5년 후 예상에서도 마찬가지임.
- 남녀 모두 소득 층위에 따른 불평등 인식의 일정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음.

〈표 III-19〉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현재						5년 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전체	372		67.9		23.6		8.4		47.2		39.0		13.8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21	151	82.1	47.3	14.2	37.3	3.7	15.3	62.5	23.3	32.0	49.3	4.6	27.3	
연령	29세 이하	28	26	85.7	53.8	14.3	26.9	0.0	19.2	57.1	34.6	42.9	42.3	0.0	23.1
	30-39세	40	28	79.5	39.3	15.4	42.9	5.1	17.9	64.1	14.3	30.8	64.3	5.1	21.4
	40-49세	65	37	92.2	50.0	6.3	33.3	1.6	16.7	70.8	27.8	24.6	30.6	4.6	41.7
	50-59세	52	35	75.9	51.4	17.3	34.3	7.7	14.3	57.7	22.9	38.5	54.3	3.8	22.9
	60세 이상	36	25	74.3	40.0	22.9	52.0	2.9	8.0	62.9	16.0	28.6	60.0	8.6	24.0
학력	중졸이하	12	9	50.0	22.2	33.3	77.7	16.7	0.0	41.7	11.1	50.0	77.8	8.3	11.1
	고졸	63	40	83.9	47.5	14.5	32.5	1.6	20.0	56.5	25.0	41.9	50.0	1.6	25.0
	대졸이상	143	101	83.7	50.0	12.8	35.0	3.5	15.0	67.6	24.0	26.8	47.0	5.6	29.0
소득수준	상	44	21	72.7	44.4	18.2	37.8	9.1	17.8	56.8	24.4	43.2	46.7	0.0	28.9
	중상	47	49	80.9	60.0	19.1	20.0	0.0	20.0	70.2	16.0	23.4	52.0	6.4	32.0
	중하	50	25	81.6	46.9	14.3	40.8	4.1	12.2	63.3	24.5	30.6	44.9	6.1	30.6
	하	32	45	81.3	47.6	15.6	33.3	3.1	19.0	59.4	12.8	37.5	52.4	3.1	23.8

주: 각각 여성에게 불평등(1-4), 남녀평등(5), 남성에게 불평등(1-4)의 3개 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함.

- 목포의 양성평등 환경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함.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는 중간값인 3점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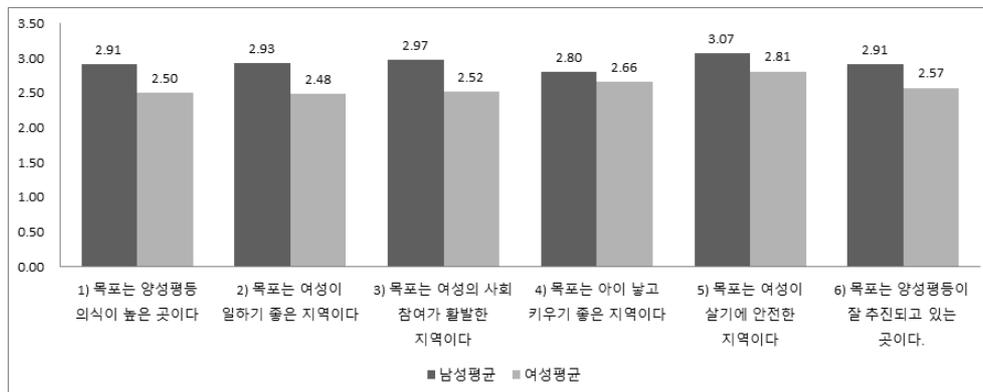
〈표 III-20〉 목포의 성평등 환경인식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목포는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곳이다	2.91	2.50	2.66	5.582*** (0.000)
2) 목포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	2.93	2.48	2.66	5.814*** (0.000)
3) 목포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	2.97	2.52	2.70	5.370*** (0.000)
4) 목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다	2.80	2.66	2.72	1.581 (0.115)
5) 목포는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지역이다	3.07	2.81	2.92	3.023** (0.003)
6) 목포는 양성평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2.91	2.57	2.70	4.534*** (0.000)

- 6개 항목 모두에서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2) 목포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항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고, '1) 목포는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곳'이 그다음임. 이 두 항목은 '3) 목포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과 더불어 성별 인식 편차가 크게 나타남. 남성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4)목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지만 이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 남녀 모두 '5)목포는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지역이다'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김. 단 평균점수가 모두 3점 내외로, '보통이다'에 해당됨.

[그림 III-6] 목포의 성평등 환경 인식



○ 성평등 정책 영역별 중요도 인식

1) 양성평등정책 만족도와 중요도

- 목포시의 6개 분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만족함(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함. 전체 평균은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2점)과 '만족'(3점)의 사이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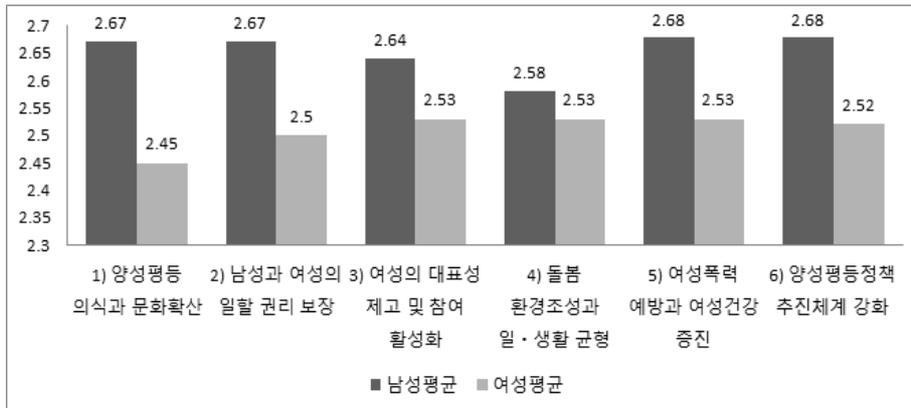
〈표 III-21〉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2.67	2.45	2.54	3.372** (0.001)
2)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2.67	2.50	2.57	2.530* (0.012)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2.64	2.53	2.57	1.642 (0.101)
4) 돌봄환경 조성 and 일·생활 균형	2.58	2.53	2.55	0.572 (0.568)
5)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건강 증진	2.68	2.53	2.59	2.249* (0.025)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68	2.52	2.56	3.362** (0.001)

- 성별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음. 남성의 경우도 '만족'(3점)에는 미치지 못함.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며,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돌봄환경 조성 and 일·생활 균형'임.

[그림 III-7]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 목포시의 6개 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함.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중요함(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함.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6개 분야 모두에서 ‘중요함(3점)’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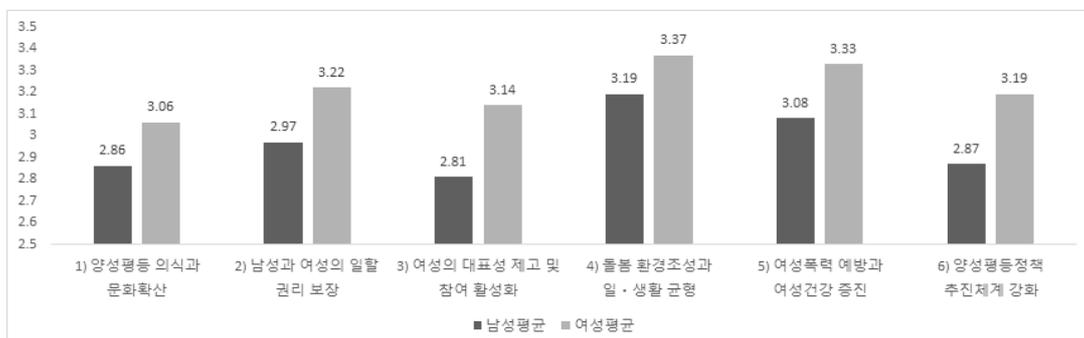
<표 III-22>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평균	여성평균	전체평균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2.86	3.06	2.98	-2.835** (0.005)
2)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2.97	3.22	3.12	-3.893*** (0.000)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2.81	3.14	3.01	-4.704*** (0.000)
4) 돌봄 환경조성과 일·생활 균형	3.19	3.37	3.30	-2.591* (0.010)
5)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건강 증진	3.08	3.33	3.23	-3.735*** (0.000)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87	3.19	3.06	-4.875*** (0.000)

- 중요도 평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돌봄 환경조성과 일·생활 균형’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정책을 가장 중요시함. 이어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건강 증진’,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8] 목포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2)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세부과제 중요도

2-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영역에 속하는 8개의 세부정책에 관해 중요도를 물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중요함(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함.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과제는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3.34점)임. 이어 '아동·청소년 양성평등교육 강화'(3.31점),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강화'(3.31점),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강화'(3.23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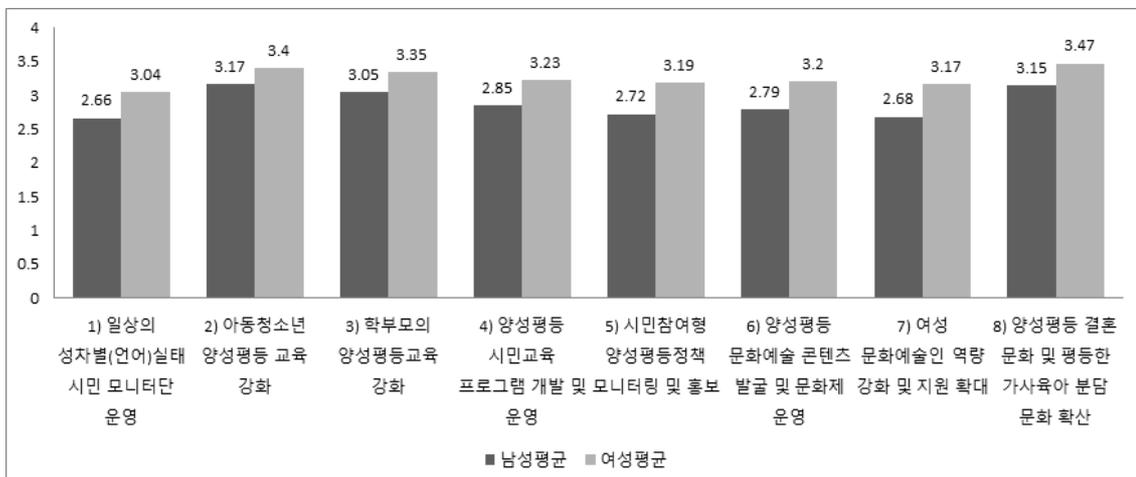
〈표 III-23〉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평균	여성평균	전체평균	
1) 일상의 성차별(언어)실태 시민 모니터단 운영	2.66	3.04	2.88	-5.394*** (0.000)
2) 아동·청소년 양성평등교육 강화	3.17	3.40	3.31	-3.414** (0.001)
3)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3.05	3.35	3.23	-4.116*** (0.000)
4) 양성평등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5	3.23	3.08	-5.559*** (0.000)
5) 시민참여형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2.72	3.19	3.00	-6.777*** (0.000)
6) 양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문화제 운영	2.79	3.20	3.04	-5.845*** (0.000)
7) 여성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2.68	3.17	2.97	-6.723*** (0.000)
8)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3.15	3.47	3.34	-4.896*** (0.000)

- 남녀 모두 결혼 및 돌봄에서 양성평등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김.

[그림 III-9]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8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아동·청소년 양성평등교육 강화’(33.7%)이며, 그다음은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32.6%)임.

〈표 III-24〉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빈도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일상의 성차별(언어)실태 시민 모니터단 운영	19	5.5	5
2) 아동청소년 양성평등교육 강화	116	33.7	1
3)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38	11.0	3
4) 양성평등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2	9.3	4
5) 시민참여형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16	4.7	6
6) 양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문화제 운영	7	2.0	7
7) 여성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4	1.2	8
8)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112	32.6	2
계	344	100	-

- 아동·청소년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선택한 이유로는 “어린시절부터 교육이 필요”, “청소년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여성혐오 문화 심각” 등이 제기됨.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음.
- 양성평등 결혼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 만큼 가사와 육아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임. 가정에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많음.
- 양성평등한 결혼 및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이 고민되어야 함. 또한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 성평등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2-2)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영역의 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물음. 모든 과제의 평균점수가 ‘중요함’(3점)을 충족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3.33점)임. 그다음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3.29점)와 ‘여성집중 직종 근로환경 개선’(3.27점)이 꼽힘.
- 분석 결과,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와 여성 특화 일자리 확대보다는 여성 근로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을 중요시함을 보여줌. 과제별 중요도 인식에서 성별 편차가 있으나 크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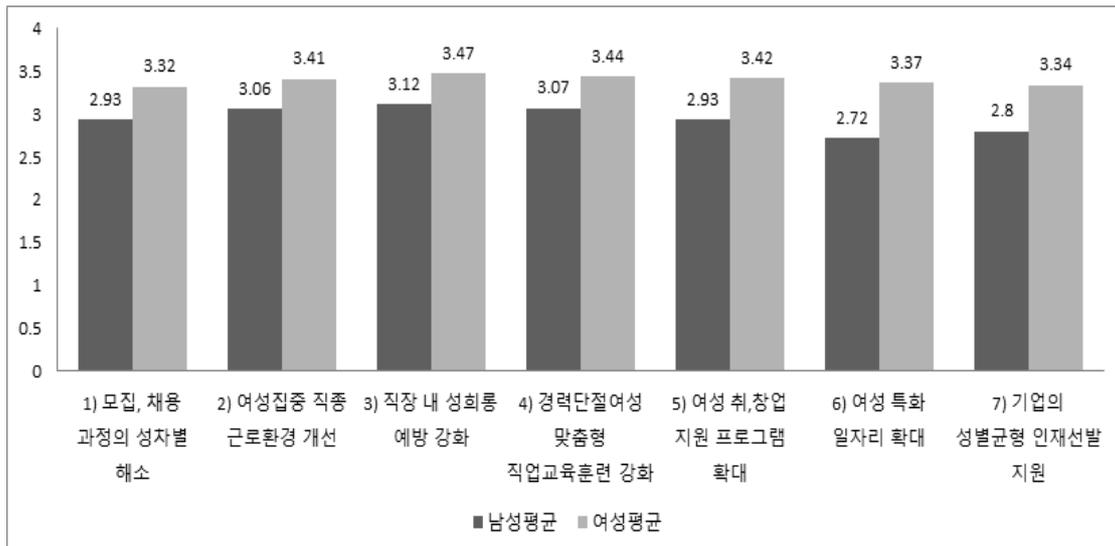
〈표 III-25〉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모집, 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2.93	3.32	3.16	-5.893*** (0.000)
2) 여성집중 직종 근로환경 개선	3.06	3.41	3.27	-4.992*** (0.000)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3.12	3.47	3.33	-5.146*** (0.000)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3.07	3.44	3.29	-5.755*** (0.000)
5)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2.93	3.42	3.22	-7.012*** (0.000)
6) 여성 특화 일자리 확대	2.72	3.37	3.11	-8.125*** (0.000)
7) 기업의 성별 균형 인재선발 지원	2.80	3.34	3.12	-7.728*** (0.00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여성집중 작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필요에 맞는 취·창업훈련 제공 등이 모색되어야 함.

[그림 III-10]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보장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7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 중요도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표 III-26〉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빈도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모집, 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39	11.3	4
2) 여성집중 직종 근로환경 개선	63	18.3	3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87	25.3	1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76	22.1	2
5)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38	11.0	5
6) 여성 특화 일자리 확대	24	7.0	6
7) 기업의 성별균형 인재선발 지원	17	4.9	7
계	344	100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선택한 이유로는 최근 빈번히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 남녀 모두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위해서” 등의 답변이 있었음.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꼽은 이유로는 “출산, 육아하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이 “단순 취미” 수준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발생의 맥락 및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의 7개 세부과제의 중요도에 관해 질문함. 여타 영역의 과제들에 비해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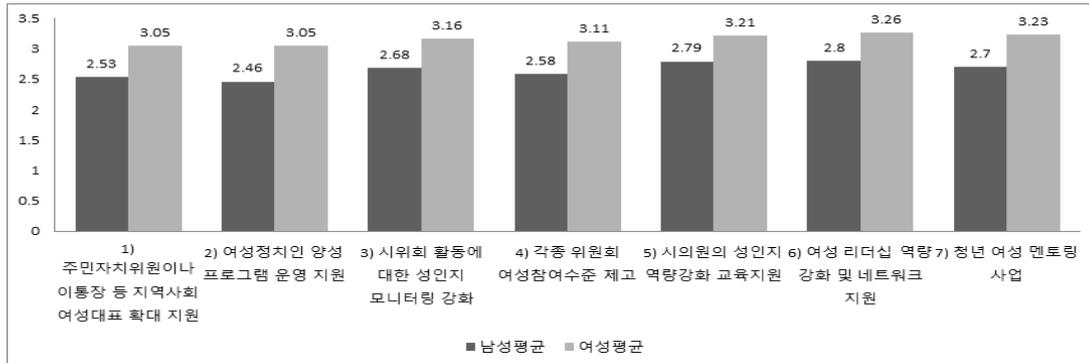
〈표 III-27〉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사회 여성대표 확대 지원	2.53	3.05	2.84	-6.779*** (0.000)
2)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46	3.05	2.81	-7.451*** (0.000)
3) 시 의회 활동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강화	2.68	3.16	2.96	-6.402*** (0.000)
4)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수준 제고	2.58	3.11	2.90	-7.579*** (0.000)
5)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지원	2.79	3.21	3.04	-5.103*** (0.000)
6)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2.80	3.26	3.08	-5.759*** (0.000)
7) 청년 여성 멘토링 사업	2.70	3.23	3.01	-6.891*** (0.000)

- 과제별 중요도는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지원’,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순임.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나 ‘지역사회 여성대표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중요도 인식이 낮은 편임.

[그림 Ⅲ-1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7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 분석 결과, 중요도 평가와 동일하게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지원’ ‘청년 여성 멘토링 사업’순으로 나타남.

<표 Ⅲ-28>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 등 지역사회 여성대표 확대 지원	26	7.9	6
2)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	6.7	7
3) 시 의회 활동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강화	43	13.1	4
4)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수준 제고	41	12.5	5
5)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지원	58	17.7	2
6)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85	25.9	1
7) 청년 여성 멘토링 사업	53	16.2	3
계	328	100.0	-

-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여성 리더의 부족”,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 필요”,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 등이 지적됨.
-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와 정책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언급됨.
-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을 키우고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여성리더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여성청년과 여성리더를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

2-4) 돌봄과 일·생활 균형

-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의 7개 세부과제의 중요도에 관해 질문함. 여타 과제들에 비해 중요도 점수가 매우 높은 편임. 세부과제별로 차이가 크진 않지만,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음.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요구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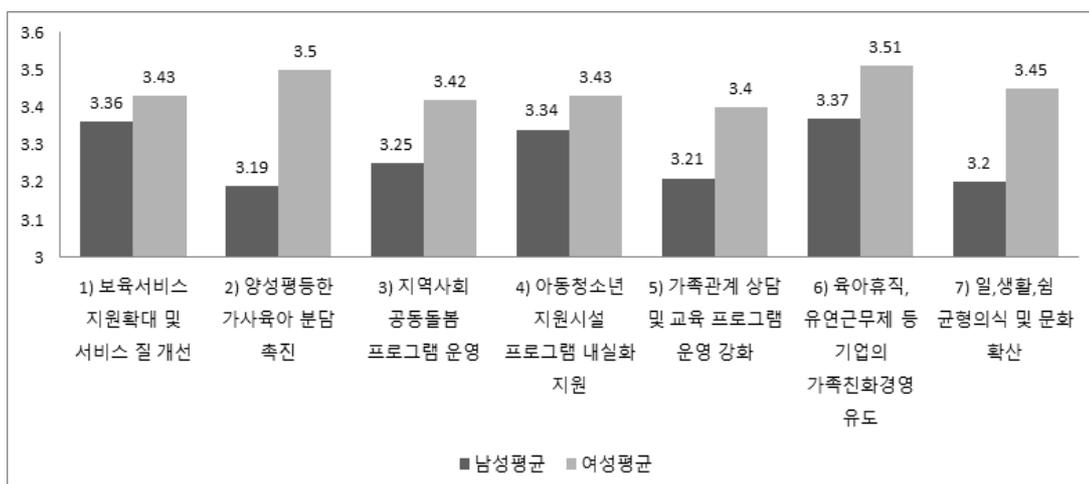
〈표 Ⅲ-29〉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평균	여성평균	전체평균	
1)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3.36	3.43	3.40	-1.071 (0.285)
2)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촉진	3.19	3.50	3.37	-4.486*** (0.000)
3) 지역사회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3.25	3.42	3.35	-2.590* (0.010)
4)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	3.34	3.43	3.39	-1.351 (0.178)
5)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3.21	3.40	3.32	-2.666** (0.008)
6)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	3.37	3.51	3.45	-1.971 (0.050)
7) 일, 생활, 심 균형의식 및 문화 확산	3.20	3.45	3.35	-3.841*** (0.000)

- 세부과제별 중요도 인식에서 성별 인식 차이가 발견됨. 여성은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촉진'과 '일·생활·심 균형의식 및 문화확산'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남성은 이를 낮게 평가함. 대신에 남성은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와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프로그램 내실화'를 더 중요시함.

[그림 Ⅲ-12]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7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선택하도록 함. 분석 결과,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촉진' 순으로 나타남.

〈표 III-30〉 돌봄과 일·생활 균형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85	25.2	1
2)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촉진	60	17.8	3
3) 지역사회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36	10.7	4
4)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	31	9.2	5
5)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29	8.6	7
6)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	65	19.3	2
7) 일·생활·쉼 균형의식 및 문화 확산	31	9.2	5
계	337	100.0	-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선택한 이유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있어야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력유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촉진”이 너무 요원해 보여서라는 의견도 있었음.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를 선택한 이유로 “가정과 일에 모두 충실하기 위해”가 언급됨.

2-5)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의 7개 세부과제의 중요도에 관해 질문함. 대체로 모든 과제를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중에서도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3.49점)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강화’(3.47)의 평균점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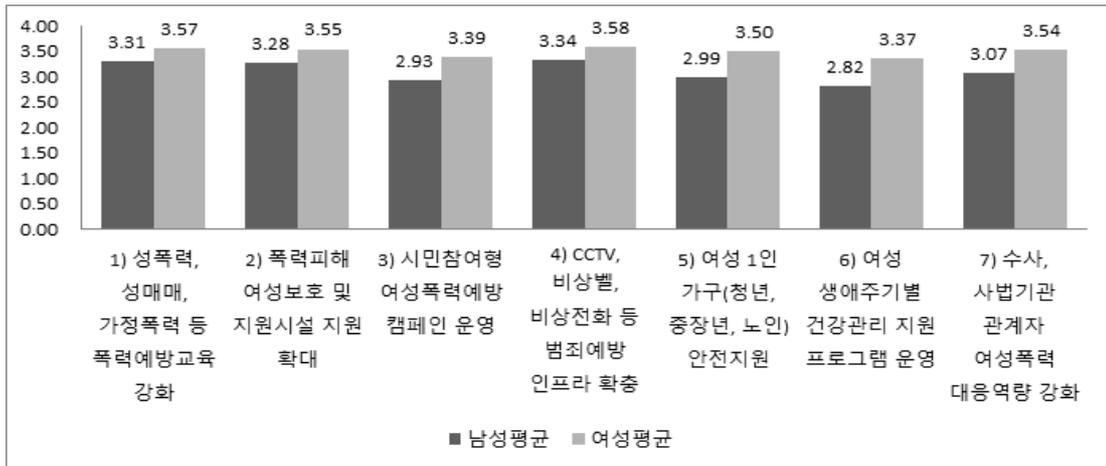
〈표 III-31〉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3.31	3.57	3.47	-4.014*** (0.000)
2)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시설 지원 확대	3.28	3.55	3.44	-4.158*** (0.000)
3) 시민참여형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2.93	3.39	3.20	-6.458*** (0.000)
4)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3.34	3.58	3.49	-3.525*** (0.000)
5) 여성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인) 안전지원	2.99	3.50	3.29	-7.329*** (0.000)
6)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2.82	3.37	3.15	-7.734*** (0.000)
7) 수사, 사법기관 관계자 여성폭력 대응역량 강화	3.07	3.54	3.35	-7.019*** (0.000)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여성 1인 가구 안전’의 중요도를 둘러싼 성별 인식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여성을 지원대상으로 한정된 과제에 대한 남성의 거부감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III-13]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7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과제와 그 이유를 적도록 함. 중요도 인식과 유사하게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비율이 높음. 이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시설 지원확대’ 순임.

<표 III-32>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96	28.2	2
2)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시설 지원 확대	45	13.2	3
3) 시민참여형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11	3.2	6
4)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117	34.4	1
5) 여성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인) 안전지원	33	9.7	4
6)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1.8	7
7) 수사, 사법기관 관계자 여성폭력 대응역량 강화	32	9.4	5
계	340	100.0	-

-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선택한 근거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를 선택한 경우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효과적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최근 성폭력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정기 점검, 우범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2-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6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질문함. 모든 항목이 '중요함'에 해당하는 3점 내외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민관협력 강화',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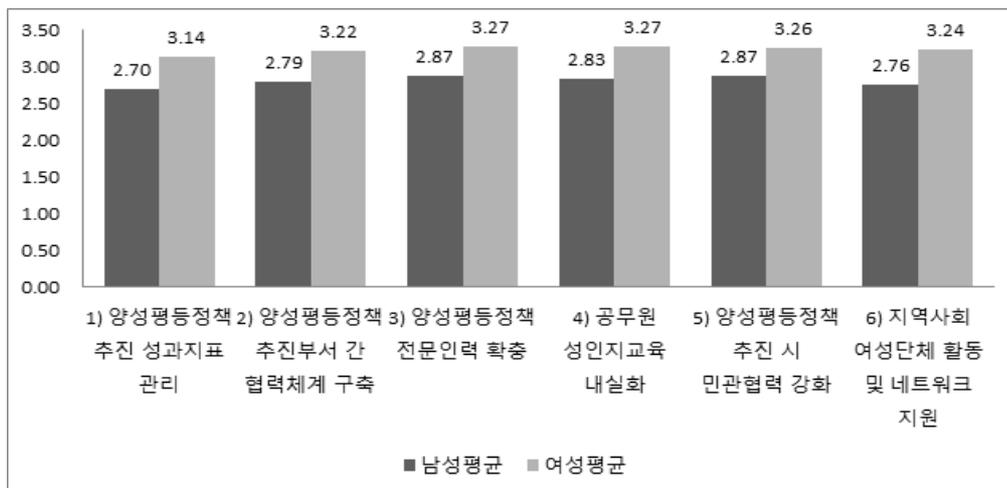
〈표 III-3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단위: 점)

항목	남성	여성	전체	
1)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지표 관리	2.70	3.14	2.96	-5.978*** (0.000)
2)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2.79	3.22	3.05	-6.176*** (0.000)
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2.87	3.27	3.11	-5.197*** (0.000)
4)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	2.83	3.27	3.09	-5.617*** (0.000)
5)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민관협력 강화	2.87	3.26	3.10	-5.617*** (0.000)
6)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2.76	3.24	3.05	-6.439*** (0.000)

- 목포시민들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III-14]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중요도



- 위 6개 세부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한 과제는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임.

〈표 III-34〉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영역 세부과제 우선순위

(단위: 빈도 %)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1)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지표 관리	23	7.2	6
2)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42	13.2	4
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90	28.2	1
4)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	66	20.7	2
5)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민관협력 강화	42	13.2	4
6)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56	17.6	3
계	319	100.0	-

-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성평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응답이 많았음. 현재 성별이나 세대별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만큼,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합의를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형식적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수립,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다. 요약 및 결론

- 모든 영역에서 성·연령 별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확인됨. 삶의 경험과 해석의 차이가 현재 성평등을 둘러싼 인식의 불일치와 갈등으로 나타남.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의제 공론화와 열린 토론 위주로 성평등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학교에서의 성(인권/평등)교육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인 경우가 많음. 또한 설문조사 결과, 폭력예방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지만 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인식 수준은 여성이 더 높음. 이는 일률적인 성평등 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품게 함. 연령, 성, 직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여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이며, 2순위에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과 돌봄 부담 편중’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양성평등의 실현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정착이 중요함을 보여줌.

〈표 III-35〉 설문 영역별 주요 결과 요약

구분	항목	내용
I. 성평등 의식과 경험	• 성역할 및 양성평등 인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또 남성보다 여성이 평등한 지위 및 역할을 더 요구함. 동시에 여성은 자녀 양육을 일차적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성차별 경험	여성보다 남성보다 성차별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음. 특히 가정 내 성차별 경험은 3배 이상 많음.
	• 양성평등교육 경험	남성의 교육 경험이 더 많음. 이는 교육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남녀 모두 응답자의 90% 이상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함.
	• 폭력 및 안전 인식 및 경험	남녀 모두 가정폭력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 여성대상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별 인식 격차가 큰 편임.
	• 양성평등 수준 인식	여성 응답자의 81.8%는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반면, 남성 응답자의 42.4%만 이에 동의함. 또, 5년 후에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남성 비율이 32.5%로 여성 비율 6.9%와 대비됨.
II. 목포의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 목포시 양성평등 수준	여성 응답자의 82.1%, 남성의 47.3%는 목포의 환경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시민들은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 수준보다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목포시 양성평등 환경 인식	목포의 성평등 환경과 관련하여 남성은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에 가장 낮은 점수를, 여성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김.
III. 성평등 정책 영역별 중요도 인식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및 중요도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여성폭력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중요도 평가에서는 남녀 모두 돌봄환경 조성 및 일·생활균형에 높은 점수를 줌.
	•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세부과제 중요도	남녀 모두에게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돌봄과 일·생활 균형임. 그중에서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가족친화경영 유도가 시급한 과제로 꼽힘.

○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세부과제 중요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아래와 같음.

〈표 III-36〉 정책영역별 중요도 1순위 과제 및 가장 시급한 과제

(단위: 점)

항목	중요도 1순위 과제	가장 시급한 과제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2)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4) 돌봄환경 조성 및 일·생활 균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5)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건강 증진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2. 양성평등정책 발굴 원탁회의

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정책 발굴 원탁회의

○ 개요

〈표 III-37〉 문화·예술 분야 원탁회의 개요

구분	참석	일시 및 장소
발제	김○○(한국전통문화산업개발원 대표, 문학박사)	2020. 9. 8. 14:00~17:00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
토론	박○○(목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박○○(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 원장, 시인) 박○○(협동조합시네마엠엠 대표)	
현황 진단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중심의 예술에서 생활/대중 예술 시대로 전환, 예술인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 • 생활/대중 예술 시대 일반 동호인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공간에 대한 욕구 • 40대 이하 청년 예술인 부재, 예술인 내 세대 격차와 인식 단절 • 예술계 내부 성평등 문제의식 환류 기회 부재 • 가족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격차, 공론화의 필요성 • 관이 주도하는 지역축제 운영의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 공모사업 운영 시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 관광, 문화예술 분야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 • 청년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육성

○ 주요 결과

○ 성평등 문제의식 환류

- 예술계 내 성평등 의제가 제기되거나 문제의식이 환류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함. 이는 예술계 내부가 위계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또 40대 이하 청년 예술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옴. 외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성평등 의제가 환류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여성운동단체나 성평등 전문기관과 문화·예술 생산자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교류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성평등을 의제로 한 지역 내 협의체 구성은 지역 리더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와 성평등 의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모사업 연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공모사업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적이 제기됨. 먼저, 영화진흥위 보조금 사업 수혜 경험에 기반하여 지원사업 운영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영화진흥위에서 제공한 폭력예방교육이 유익했으며, 2018년 미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문화예술 현장이 성폭력 및 성평등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시 보조금 사업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짐. 이는 문화예술계 내부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인식의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성평등 콘텐츠 지원

- 또한 목포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할 때, 가족의 다양성이나 성평등을 주제로 제시하는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위촉시 양성평등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기됨. 향후 문화예술과와 여성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도 양성평등문화제 형식의 기획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됨. 다만 현재 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 운영보다는 시민사회의 창발성을 극대화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음. 관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콘텐츠 생산이나 운영은 민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임.

○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 제고

- 문화예술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점이 지적됨. 한 원탁회의 참여자는 문화예술 관련 회의에 가면 자신 외에 여성 참석자가 거의 없다고 토로함. 이에 관광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회 현황 검토 결과,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축제추진위원회 11.4%, 도시재생위원회 11.8%,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33.3% 등으로 확인됨. 성인지 관점에서 관광, 도시재생, 문화예술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육성

- 문화예술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재 풀이 확보되어야 함. 여성 문화예술인의 발굴·육성·지원이 중요함. 민선7기 공약사항인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성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여성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볼 수 있음.

나. 청년 분야 양성평등정책 발굴 원탁회의

○ 개요

〈표 III-38〉 청년 분야 원탁회의 개요

구분	참석	일시 및 장소
발제	이○○(협동조합함께평화)	2020. 9. 9. 16:00~18:00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
토론	이○○(목포YMCA)	
	박○○(여성인권지원센터)	
	서○○(도시재생스튜디오)	
	장○○(관찰아마일)	
현황 진단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청년정책 협의회 '동행'(50인)의 2년 간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 •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한자리 목포시 청년정책 평가 •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혼란 • 청년들이 교류, 활동할 공간 및 플랫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제의 공론화 •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 청년정책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 청년정책 입안시 성별 특성과 요구 고려

○ 주요 결과

○ 성평등 의제의 공론화

-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반면, 고용·임금·대표성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성별 격차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이 여성정책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됨. 다른 한편,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서 포괄적인 차별금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20-30대 청년층 내부의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을 둘러싼 복잡한 인식의 지형이 원탁회의 내에서도 드러남.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인식의 차이와 갈등을 봉합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인 공론화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

○ 청년 소모임 지원

-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경력 추구에 관한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성장을 지지·지원할 수 있는 매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관련 욕구를 인터넷이나 타지역 모임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함. 공간을 비롯한 청년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개입 지점과 방안을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역 청년들의 소모임을 지원하여 이들이 스스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한자리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모임이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함.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 증진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낮고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28.6%로 40% 규정에 미달함. 청년 당사자와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 청년기본법의 이념은 사회 각 부문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 내에서도 성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지난 2017년, 「목포시 청년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음. 그런데 본 계획의 <목포 청년활동 현황과 실태 분석>에서 성별 교차분석이 미흡하여 성별 특성과 요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해당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청년 정책 전반에서 여성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이 성별로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원탁회의

○ 개요

〈표 III-39〉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원탁회의 개요

구분	참석	일시 및 장소
발제	경○○(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020. 9. 10. 14:00~16:00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
토론	김○○(목포YWCA 사무총장)	
	박○○(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이○○(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문○○(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최○○(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원)	
현황 진단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추진현황 검토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제고 필요 • 성주류화 도구 시행 시 부서 간 협력 강화 유도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모니터링) 방안 •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매체 발굴 및 보급 방안 • 양성평등기금운영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담당 전문인력 확충 • 양성평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 •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강화 • 양성평등주간 운영 내실화 • 남성 참여 유도형 사업 고민

○ 주요 결과

○ 성주류화 운영 내실화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양적·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개선과제 산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평가책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5급 이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이 낮은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됨.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큰 만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함.

○ 양성평등정책 전문 담당관 운영

- 여성정책팀 업무가 많고, 부서 변경에 따른 담당 주무관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면이 있음.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추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별도로 두어 성주류화 업무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부서 간 협력 강화 추진

- 또한 성별영향평가 등의 업무에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됨. 공무원 승진 시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성평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이 제안됨.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됨.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사업

- 양성평등주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전주시 젠더 축제가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됨. 지역의 현황에 근거하여, 해마다 양성평등정책 영역의 주요 의제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ex. 가정폭력 추방,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 등). 이와 관련하여 민관 협의기구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해 강연, 포럼, 토크 콘서트, 영화제, 백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도록 함. 또한 성평등 의제를 공론화하고 세대·성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됨(책자 발간, 웹툰 제작 등).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우수사례로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이 참조됨.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더불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그 일환으로 지역 여성단체와 더불어 양성평등정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관련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양성평등기금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전 컨설팅 및 주제 공모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대상자를 발굴, 수혜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 사업의 주제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사업 수혜대상을 확장하려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단계에서도 개별 컨설팅을 통해 회계처리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남성의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거나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음.

제 4 장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2021-2025)

1.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2. 정책 비전과 목표

IV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

1.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가. 상위 법령 및 계획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을 따름.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에 기반하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함.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및 동등한 대우를 추구함.
-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데 역점을 둠.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의 구조를 반영함.

- 성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에 집중
-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 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강화
- 성 주류화 제도 운용의 내실화 도모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과 시차가 발생함.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시차로 인한 문제가 크지는 않겠으나, 2023년부터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 및 전남의 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춰가는 세부 조정작업이 필요함.

나. 목포시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

○ 목포시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인구, 가구·가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보육, 아동·청소년 및 여성·가족 복지, 건강, 안전 영역의 성별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 정책과제와 연결함.
-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추진실적 등에 대한 SWOT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의 전략과 주요 과제를 도출함.

○ 목포시민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반응

-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시민의 성평등 의식 및 요구에 부응하는 세부과제 발굴에 힘씀.

- 양성평등을 둘러싼 성·세대 간 인식 편차에 주목하여 정책의 개입 지점과 방향을 설정함.
- 분야별 원탁회의(3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3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연구자, 활동가) 의견을 수렴함.
- 계획수립 단계별로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열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민선 7기 공약 및 여타 분야 계획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 양성평등정책 발굴

-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여성 일자리 창출(경제·일자리 분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난감도서관 운영, 초등학생 지역돌봄 서비스확대 운영(교육·보육 분야),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복지·건강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안전대책 마련(소통·안전 분야) 등은 양성평등정책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됨.
- 목포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경제·일자리 분야),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의 사업은 성인지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과제로 추진가능함. 이에 성인지 관점에서 관광, 문화·예술, 청년 정책을 검토하고 양성평등정책 과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함.
- 「2030 목포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명시된 6개 분야 정책비전에 성평등 가치를 통합하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발전 계획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목포시 청년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및 세부과제들이 양성평등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의 현황과 여건에 근거하여 추진기반 정비

- 시민참여형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의 정책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리더의 성인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둠.
-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주도하도록 함.

2. 정책 비전과 목표

가. 비전

○ 생활 속 성평등 실현, 매력 도시 목포

-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조응하는 동시에 목포의 도시발전 구상과 시정방침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함.
- 중장기 종합계획의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표현함.
- 사회 전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상호존중의 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여 목포시의 매력을 배가하는 데 초점을 둠.

나. 정책목표

○ 성평등 문화

- 위로부터의 법·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의식과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성숙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는 등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일방의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기성의 차별적인 관념과 실천을 바꿔나가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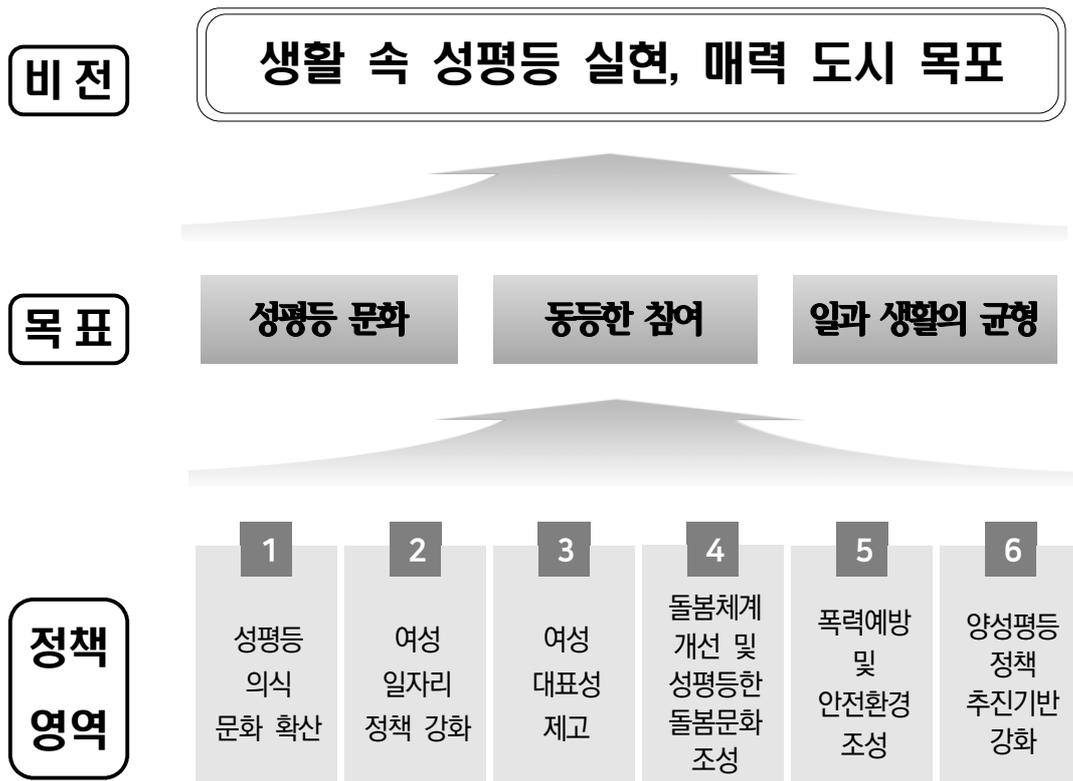
○ 동등한 참여

- 사회 각 부문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gender gap)가 존재함.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해야 할 것임. 역사적인 차별과 성별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의 참여와 자기실현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일과 생활의 균형

- 일·생활 균형의 핵심은 지금까지 여성이 전담해온 가족 내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남성이 함께 분담하는 데에 있음.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생활에서 남성의 돌봄 권리와 책임을 장려하는 근로환경 및 기업문화 조성이 절실함.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의 권리 및 책임을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V-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비전, 목표, 정책영역



다. 정책영역과 과제

○ 정책영역 1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양성평등을 둘러싼 성·세대 간 인식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목포시민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함. 또한 성평등이 시민의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촉진함.
- 주요 정책과제: 성평등 교육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 정책영역 2 :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은 양성의 동등한 참여 및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과제임. 이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임금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시책을 마련함.
- 주요 정책과제: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취·창업 지원, 여성 근로자 권익 증진

○ 정책영역 3 : 여성 대표성 제고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지도자의 성비가 매우 불균형함. 의회 등 정책결정 기관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주요 정책과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리더 성인지역량 강화, 청년 여성리더 양성

○ 정책영역 4 :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남녀가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이에 조화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생활 균형 확산 시책을 강구함.
- 주요 정책과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 정책영역 5 :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에 기반한 폭력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함. 이에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함.
- 주요 정책과제: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 정책영역 6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성주류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함. 또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인력의 성인지 역량 강화에도 힘씀.
- 주요 정책과제: 양성평등 추진기반 정비, 성인지 역량 강화

〈표 IV-1〉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의 구조

정책 비전	생활 속 성평등 실현, 매력 도시 목포		
정책 목표	성평등 문화	동등한 참여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과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1.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1-1. 성평등 교육 강화 1-2. 성평등 문화 정착	1-1-1.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확대·강화 1-1-2. 양성평등 시민교육 활성화 1-2-1. 성숙한 성평등 의식 함양 1-2-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2-1. 여성 일자리 확대 2-2. 여성 취·창업 지원 2-3. 여성 근로자 권익 증진	2-1-1.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2-2-1.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2-2-2. 취약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2-3-1.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2-3-2. 직장 내 성차별 개선
	3. 여성 대표성 제고	3-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2. 여성리더 성인지 역량 강화 3-3. 청년 여성리더 양성	3-1-1. 의사결정·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3-2-1. 여성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3-3-1. 청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1.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4-2.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4-1-2. 다양한 유형의 공동돌봄체계 지원 4-2-1.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4-2-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5-1.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5-2.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5-3. 범죄예방 환경 구축	5-1-1.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 홍보 5-2-1.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5-3-1.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6-1. 양성평등 추진기반 정비 6-2. 성인지 역량 강화	6-1-1. 성 주류화 운영 내실화 6-1-2.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지표 관리 6-1-3. 민관협력체계 구축 6-2-1.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6-2-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제 5 장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1.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3. 여성 대표성 제고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지역특화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1.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1-1. 성평등 교육 강화	1-1-1.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신규] •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시행[신규]
		1-1-2. 양성평등 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기초교양 프로그램 운영[신규] • 주민자치센터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신규] • 청년 성평등 소모임 운영 지원[신규]
	1-2. 성평등 문화 정착	1-2-1. 성숙한 성평등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홍보 콘텐츠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신규] • 양성평등 가치 확산 홍보 확대[신규] • 양성평등문화제 기획 및 운영 내실화[계속]
		1-2-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 개선 공모전[신규] • 성·세대 공감 '가족' 이해 프로젝트 운영[신규]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2-1. 여성 일자리 확대	2-1-1.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일자리 목표제 운영[신규] •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신규]
	2-2. 여성 취·창업 지원	2-2-1.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실시[신규]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계속] • 여성창업지원 종합서비스 구축[신규]
		2-2-2. 취약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모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계속] •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취업 지원 강화[계속] • 중고령 여성 자립역량 증진 평생교육 개발 및 운영[신규]
	2-3. 여성 근로자 권익 증진	2-3-1.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집중직종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신규] • 요양보호사 근무개선 지원[신규]
		2-3-2. 직장 내 성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차별 실태 점검 및 백서 발간[신규] • 고용상 성차별 근무환경 개선 지원[신규] • 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신규]
	3. 여성 대표성 제고	3-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1-1. 의사결정·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3-2. 여성리더 성인지 역량 강화		3-2-1.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여성인재 DB 구축 • 여성 리더 협의체 구성·운영[신규] • 성평등 정책 포럼('목포 여성포럼') 운영[신규]
3-3. 청년 여성리더 양성		3-3-1. 청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여성 진로 및 경력 개발 멘토링[신규] • 여성 정치아카데미 운영[신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1.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4-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속]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계속] •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 강화[신규]
		4-1-2. 다양한 유형의 공동돌봄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 지역거점(다함께 돌봄센터) 확대[계속]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돌봄품앗이 지원 확대[계속] •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신규]
	4-2.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2-1.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육아 소모임 운영[신규] • 양성평등 가족캠프 운영[신규]
		4-2-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공모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신규] • 일·생활 균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신규]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확대[신규]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5-1.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5-1-1.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관점 통합 폭력예방교육 강화[계속] •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지원[신규] • 여성폭력 실태 및 정책 홍보 강화[신규]
	5-2.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5-2-1.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대응 유관기관 공조·협력 강화[계속] • 폭력피해여성 응급 및 의료지원 강화[계속] •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기관 환경 개선[신규]
	5-3. 범죄예방 환경 구축	5-3-1.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신규] • 공중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강화[계속] • 여성폭력방지 지역주민연대 활동 지원[계속]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6-1. 양성평등 추진체계 정비	6-1-1. 성 주류화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평가지표에 성주류화 운영 실적 포함[신규] •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신규]
		6-1-2.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신규] • 「목포시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신규]
		6-1-3.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신규] •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구성·운영[신규] •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계속]
	6-2. 성인지 역량 강화	6-2-1.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전담 팀 분리 및 인력 확충[신규] • 양성평등정책 전문 담당관 설치[신규] •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계속]
6-2-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계속] • 고위·관리직 성인지 교육 강화[신규]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신규] 	

V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1.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가. 현황 및 과제

기존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문제로 드러내는 동시에 일상의 실천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이러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의 일차적인 매개는 교육임. 목포시민 대부분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교육 매체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그 효과를 높이고 가족문화 개선사업을 시행함.

1-1

성평등 교육 강화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여성 96.7%, 남성 90.8%)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함.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시민의 양성평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1-2

성평등 문화 정착

- 성평등을 둘러싼 연령·성별 인식 격차가 큼. 단적으로 여성 응답자의 81.8%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여기는 반면, 남성 응답자의 42.4%만 그렇게 생각함. 이는 성별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음.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하여 성평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유형의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성평등이 일상 속 친숙한 의제로 자리잡고, 중요한 가치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 다른 한편, 가족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조화로운 공존 및 친밀성의 관계를 촉진하는 가족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1-1. 성평등 교육 강화	1-1-1.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신규] • 교사·학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 시행[신규]
	1-1-2. 양성평등 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기초교양 프로그램 운영[신규] • 주민자치센터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신규] • 청년 성평등 소모임 운영 지원[신규]
1-2. 성평등 문화 정착	1-2-1. 성숙한 성평등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홍보 콘텐츠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신규] • 양성평등 가치 확산 홍보 확대[신규] • 양성평등문화제 기획 및 운영 내실화[계속]
	1-2-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 개선 공모전[신규] • 성·세대 공감 '가족' 이해 프로젝트 운영[신규]

나. 세부과제

1-1-1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성평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연령·성에 따른 인식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나와 다른 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배양
- 일상의 성차별 언어와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 환기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성·연령별 양성평등교육 교재 개발 및 열린 토론식 수업 지원
 - 성차의 이해와 존중, 성평등한 가족생활 등을 내용으로 연령대에 맞는 교재 제작·보급
 - 학교 성평등 교육 TF팀 구성·운영
 - 성별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 지원
-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시행
 - 각급 학교에서 연2회 운영
 - 아동·청소년 생활 및 진로 지도와 상담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관점 및 폭력예방교육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교육체육과
- 주관기관: 목포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 협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평등교육 교재 개발	추진계획	운영계획 수립	교재 개발	제작·보급	제작·보급	제작·보급
	예산(백만원)	-	13	5	5	5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예산(백만원)	30	30	30	30	30
예산_계(백만원)		30	43	35	35	35

1-1-2 양성평등 시민교육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 등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양성평등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목포시민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도서관 교양·문화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성인지 인권, 폭력예방 등 양성평등 인문·사회 교양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20-30대 청년에게 양성평등이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함.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상호 교류와 이해의 기회를 확장, 성숙한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시민의 성평등 의식 고취

□ 사업내용

- 양성평등 기초교양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민 아카데미’, 목포시립도서관 기초교양 교육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포함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원
- 청년 성평등 소모임 운영 지원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소모임 활동 공모 및 선정을 통한 지원
 - 오픈형 라운지(플랫폼) ‘청년카페’ 조성, 독서 토론 등 모임 공간 제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일자리청년정책과
- 주관기관: 목포문화재단, 목포시립도서관, 동 주민센터
- 협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평등 기초교양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민 아카데미’	추진계획	운영계획 수립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예산(백만원)	-	2	2	2	2
주민자치센터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운영계획 수립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예산(백만원)	-	12	12	12	12
청년 성평등 소모임 운영 지원	추진계획	운영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5	5	5	5
예산_계(백만원)		-	19	19	19	19

1-2-1 성숙한 성평등 의식 함양

□ 현황 및 필요성

- 성인지 관점과 평등 의식이 시민의 일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체현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여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를 높이도록 함. 시민의 눈으로 본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의 성차별을 공론화하고 성평등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내용

- 시 홍보 콘텐츠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 시의 각종 홍보 콘텐츠 및 행사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 조치
 - 양성평등 가치 확산 홍보 확대
 - ‘모두가 행복한 목포 양성평등 UCC 공모전’ 운영
 - ‘시민이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 목포’를 주제로 방송 광고 제작·송출
 -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출품, ‘성평등 도시’ 목포 이미지 구축
 - 양성평등문화제 기획 및 운영 내실화
 -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양성평등문화제를 운영
 - 양성평등문화제 시민기획단 구성, 연차별 주제 선정 및 사전 기획으로 내실있는 문화제 운영
- * 양성평등주간 : 9.1.~9.7.(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문화예술과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 홍보 콘텐츠 성인지 모니터링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양성평등 가치 확산 홍보 확대 • UCC 공모전 등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2	2	2	2	2
양성평등문화제 기획 및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	기획단 운영				
	예산(백만원)	15	15	15	15	15
예산_계(백만원)		17	17	17	17	17

1-2-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1순위 과제로 꼽힘. 또한 성차별 경험 조사에서 여성의 가정 내 성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남(39.7%). 일상 속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에서부터의 변화가 시급함.
- <2019 목포시 사회지표>를 보면 세대별로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공감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5-29세 연령층 50.1%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함.

□ 사업목적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사업내용

- 가족문화 개선 공모전
 - 매년 대상과 주제를 달리하여 연1회 공모사업 운영(예. '십대의 눈으로 본 성평등 가족')
 - 가정 내 성차별 경험(언어, 행동)이나 성평등 가족의 상을 표현
 - 우수 작품을 선정, 목포역 등 주요 공공시설에 전시·출판하여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 확산
- 성·세대 공감 '가족' 이해 프로젝트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연계 가족문화 개선사업 운영
 - 특정 가정을 이상화하는 '건강가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 부모 역할, 자녀에 대한 기대, 가족 내 성 역할 등에 관해 성·세대 간 공감의 폭을 넓히는 사업 기획
 - 예) '가족 토크 콘서트' 개최, 10대 청소년부터 60대 노인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에 관해 토론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교육체육과
- 협력기관: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족문화 개선 공모전	추진계획	공모전 운영				
	예산(백만원)	7	7	7	7	7
성·세대 공감 '가족' 이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연차별 사업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12	12	12	12	12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가. 현황 및 과제

30-49세 남성 고용률은 89.7%인데 비해 여성 고용률은 64.2%에 그침.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함.

2-1

여성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여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 관광 도시로서 목포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광사업 연계 여성 일자리 발굴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2-2

여성 취·창업 지원

- 노무 상담 등 컨설팅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3

여성 근로자 권익 증진

- 여성 근로자 집중 직종의 고용 및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개선을 지원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2-1. 여성 일자리 확대	2-1-1.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일자리 목표제 운영[신규] •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신규]
2-2. 여성 취·창업 지원	2-2-1.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실시[신규]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계속] • 여성창업지원 종합서비스 구축[신규]
	2-2-2. 취약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모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계속] •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취업 지원 강화[계속] • 중고령 여성 자립역량 증진 평생교육 개발 및 운영[신규]
2-3. 여성 근로자 권익 증진	2-3-1.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집중직종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신규] • 요양보호사 근무개선 지원[신규]
	2-3-2. 직장 내 성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차별 실태 점검 및 백서 발간[신규] • 고용상 성차별 근무환경 개선 지원[신규] • 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신규]

나. 세부 추진과제

2-1-1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 일자리나 취·창업지원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으로 국한되어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
 - * 민선7기 공약사항에 ‘여성 일자리 창출’이 있지만 내용은 기존 여성인력전문기관의 사업들이 대부분임.
- 기존 일자리 및 취·창업지원 사업에서 성별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이에 일자리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여성 일자리 목표제와 같이, 일자리 정책의 성과목표에 여성 일자리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목포시 관광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관광 산업에서 여성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를 증진함.

□ 사업목적

-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여성 일자리 목표제 운영
 - 일자리와 관계된 모든 정책의 성과 목표에 여성 일자리 또는 취·창업 비율 명시
 - 일자리·청년 정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개선 과제 도출 및 조치
-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 중심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교육, 창업 보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
 - 테마여행 마을 해설사, ‘맛의 도시’ 맛 해설사 선발, 운영 등
 - 관광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
 - 여성 택시 운전자 양성, ‘목포 낭만×안심콜’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광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 일자리 목표제 운영	추진계획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 ‘맛 해설사’ 운영	추진계획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5	5	5	5
예산_계(백만원)		-	5	5	5	5

2-2-1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출산·육아로 인한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직장 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 이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목적

-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증진

□ 사업내용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실시
 - 여성 근로자 심리·노무 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제공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
 - 여성일자리전문기관 사업 연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취창업교실 대상 발굴 및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예방)
- 여성창업지원 종합서비스 구축
 - 창업 상담, 정보 제공, 자문 및 컨설팅 제공 등 여성창업 관련 종합서비스 구축
 - 창업매니저, 창업경진대회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사업 정비
 -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계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 주관기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협력기관: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추진계획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예산(백만원)	-	-	-	-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	추진계획	점검 및 개발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여성창업지원 종합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체계 정비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7	7	7	7
예산_계(백만원)		-	7	7	7	7

2-2-2 취약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취업 취약계층에는 실업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됨.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취약층 여성 경제적 자립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청소년 한부모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 자립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훈련 기간 생계비 보전 지원 강화
 - 고립감, 좌절, 무기력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진로·경력 상담 지원 강화
-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취업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집단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고령 여성 자립역량 증진 평생교육 개발 및 운영
 -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역량 증진 및 사회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 운영
 -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신증년 사업' 연계 여성 대상자 발굴
 -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화 역량 강화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일자리청년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주관기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등
- 협력기관: 목포 성모의집,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청소년 한부모 직업교육훈련 지원	추진계획	시비 지원				
	예산(백만원)	3	3	3	3	3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취업지원 강화	추진계획	점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10	10	10	10
중고령 여성 자립역량 증진 평생교육 운영	추진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10	10	10	10	10
예산_계(백만원)		13	23	23	23	23

2-3-1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 고용은 대면 돌봄을 위주로 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대면 돌봄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짐. 이에 돌봄 종사자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전국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월임금총액은 남성 4,420천원, 여성 2,514천원(임금 성비 57%)임.

□ 사업목적

-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집중직종의 근로 감독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집중직종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목포시 여성 고용 현황자료를 토대로 여성집중직종을 선별하여 고용, 임금, 근무환경 등 근로실태를 파악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일자리(특히 대면 돌봄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 요양보호사 근무개선 지원
 - 방문요양기관 대상 목포형 ‘좋은돌봄’ 인증제 시행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요양기관을 인증, 시 보조금 지원
 - * 2019년말 기준, 목포시에는 총 67개의 방문요양기관이 운영중임.
 - * 타 시도 사례: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도입(서비스, 일자리, 기관 운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 협력부서: 지역경제과
- 협력기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집중직종 근로조건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	활용	활용	활용	활용
	예산(백만원)	7	-	-	-	-
요양보호사 근무개선 지원 • ‘좋은돌봄’ 인증	추진계획	계획 수립	인증(1)	인증(2)	인증(3)	인증(4)
	예산(백만원)	-	5	10	15	20
예산_계(백만원)		7	5	10	15	20

2-3-2 직장 내 성차별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지위도 열악함. 이는 성희롱·성차별을 구조화하는 요인이기도 함. 이에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함.
- 남성 임금(100)을 기준으로 여성 임금을 나타낸 목포시 임금 성비는 65.41%에 불과함(정지연, 2019: 56).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적 직장 문화 개선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사업내용

- 성희롱·성차별 실태 점검 및 백서 발간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노무 상담 및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된 성희롱·성차별 사례를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인계, 수집 사례를 백서로 발간하여 공론화
- 고용상 성차별 근로개선 지원
 - 성차별 관련 진정 청구 개설, 접수 사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개선 지원
- 성평등 임금 공시제 단계적 도입
 - 별도의 조례 제정 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출자·출연기관 남녀직원의 직급, 직종, 재직연수에 따른 임금을 공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주관기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협력기관: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희롱·성차별 실태 점검 및 백서 발간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고용상 성차별 근로개선 지원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추진계획	법규 정비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5	5	5	5	5

3. 여성 대표성 제고

가. 현황 및 과제

의사결정 지위의 성별 불균형이 두드러짐. 이에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및 관리직 지위의 여성 비율을 높여가되,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지역 여성리더 협의체를 운영하고 청년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를 지원함.

3-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사회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관리직 성비는 매우 불균형함.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2 여성 리더 성인지 역량 강화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 간 교류 테이블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증진의 기회를 확장하는 한편, 성평등 포럼('목포 여성포럼')을 운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함.

3-3 청년 여성 리더 양성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여성 인재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여성 리더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여성의 상호 격려, 지지, 성장의 기반을 조성함. 또한 청년 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3-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1-1. 의사결정·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관리 강화[계속] •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신규] •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신규]
3-2. 여성 리더 성인지 역량 강화	3-2-1.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성인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여성인재 DB 구축 • 여성 리더 협의체 구성·운영[신규] • 성평등 정책 포럼('목포 여성포럼') 운영[신규]
3-3. 청년 여성 리더 양성	3-3-1. 청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여성 진로 및 경력 개발 멘토링[신규] • 여성 정치아카데미 운영[신규]

나. 세부 추진과제

3-1-1 의사결정·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관리하여 특정 성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및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26)

- 목포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2.8%임. 이는 팀장 이상급 공무원의 85%이상이 남성임을 의미함. 이에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요구됨.

□ 사업목적

-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대표성)에서의 성별 불균형 해소

□ 사업내용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관리 강화
 - 여성인재 DB의 체계적 관리 및 운용으로 40% 목표 달성(2020.1. 현재 34%)
 -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비율 점검을 통한 특정 위원회 여성위원 편중 현상 완화
-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점검 및 관리
 - 여성 관리자 현황 파악 및 비율 확대에 필요한 계획 수립·운용
-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
 - 여성 공무원 핵심부서 순환 배치
 - 여성 공무원 승진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리더십 교육 과정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전 부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관리 강화	추진계획	점검 및 관리	40% 달성	유지	유지	유지
	예산(백만원)	-	-	-	-	-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관리	추진계획	점검 및 관리	10%	15%	17%	20%
	예산(백만원)	-	-	-	-	-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	추진계획	지원	지원	지원	지원	6급 이상 20%
	예산(백만원)					
예산_계(백만원)		-	-	-	-	-

26) 단,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둠.

3-2-1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성인지 역량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부문별로 고립·분산되어 있는 여성 리더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필요함. 여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지지와 지원 강화 및 여성 리더 역량 증진을 도모함.
- 성평등 포럼(‘목포 여성포럼’)을 운영하여 의제 선도 그룹을 육성, 양성평등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함.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의제의 선도적 추진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목포시 여성인재 DB 구축
 -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참조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여성 리더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여성인재 DB에 등록된 여성 리더들의 교류·협력 테이블 구성,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분야별 활동 성과 등을 교류하며 역량 강화
 - 지역 청년여성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하는 멘토단으로 활동
- 성평등 포럼(‘목포 여성포럼’) 운영
 - 정치인, 공무원, 학자, 활동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으로 양성평등 의제 선도 및 지지 그룹 육성
 -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연 2회 개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포 여성인재 DB 구축	추진계획	구축	관리·운영	관리·운영	관리·운영	관리·운영
	예산(백만원)	-	-	-	-	-
여성리더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계획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성·운영
	예산(백만원)	3	3	3	3	3
성평등 포럼 운영 • ‘목포 여성포럼’	추진계획	연 2회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8	8	8	8	8

3-3-1 청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 인구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큼. 학업 및 취업 인구 유출로 보임. 성평등한 목포시 구현을 위해서는 미래 여성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멘토링 사업으로 청년 여성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 목포시 시의원 21명 중 여성의원은 4명(지역구 1인, 비례대표 3인)에 불과함. 정치적 대표에서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청년 여성의 정치 역량 및 실무 능력 증진을 위한 정치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차세대 여성 인재 발굴·육성

□ 사업내용

- 청년 여성 진로 상담 및 경력 개발 멘토링 사업
 -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청년 여성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지원
 - 목포시 여성리더 협의체(구성)를 통해 분야별 ‘10인의 멘토단’ 운영, 멘토링 실시
- 여성 정치아카데미 운영
 - 목포시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 대상 정치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지역 소재 대학 또는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설, 목포시의회 협조 요청
 - 나의 삶과 정치, 여성이 바꾸는 정치, 정치과정의 이해, 지역정치 현안 토크아카데미 등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 협력기관: 목포대학교, 전남여성가족재단, 목포시의회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청년 여성 진로 및 경력 개발 멘토링 • ‘10인의 멘토단’ 운영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3	3	3	3	3
여성 정치아카데미 운영	추진계획	시범 운영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예산(백만원)	2	5	5	5	5
예산_계(백만원)		5	8	8	8	8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

가. 현황 및 과제

목포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27명에서 2019년 0.948명까지 떨어짐.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저출생의 해법이 되기 어려움.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성평등한 돌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4-1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이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개별 가족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목포시민 대상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중요도 조사에서도 ‘돌봄환경 조성 및 일·생활 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성평등한 돌봄 분담 문화를 조성한다면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2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재해의 상황에서 공공 돌봄의 한계가 드러남. 가족 내 돌봄 분담 및 책임 공유가 중요한 이유임. 최근 청년세대 사이에서 아빠 육아 등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는 삶의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시책을 펼쳐야 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4-1.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4-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속]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계속] •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 강화[신규]
	4-1-2. 다양한 유형의 공동돌봄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 지역거점(다함께 돌봄센터) 확대[계속]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돌봄품앗이 지원 확대[계속] •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신규]
4-2.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2-1.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육아 소모임 운영[계속] • 양성평등 가족캠프 운영[신규]
	4-2-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공모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신규] • 일·생활 균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신규]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확대[신규]

나. 세부 추진과제

4-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189개소 중 9개소로 5.1%를 차지함(2020.7.1. 기준). 이는 전남 평균 14.2% 및 시 평균 11.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민선 7기 공약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점진적 확충(~2022)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5.05%임. 행정동별로는 부주동, 상동, 용해동, 원산동에 2개소, 하당동에 1개소가 위치함. 0-4세 인구비를 고려하여 원도심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영유아 보육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신규 개소
 - * 연산동, 대성동, 부주동은 0-4세 인구가 4% 이상임.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평가인증제를 활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유도 및 재선정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로 만족도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계획	운영비(21개소)	운영비(22개소)	운영비(23개소)	운영비(24개소)	운영비(25개소)
	예산(백만원)	875	920	960	1,000	1,040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추진계획	서비스 관리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995	1,040	1,080	1,120	1,160

4-1-2 다양한 유형의 공동돌봄체계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보육사업이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초등돌봄의 인프라가 부족함. 초등 공동돌봄을 위한 시설(다함께 돌봄센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자녀가 함께 교류하는 품앗이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이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현재 목포시에는 2곳의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중임.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돌봄 인프라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초등돌봄 지역거점(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2020년 현재 1개소가 운영중임. 초등돌봄 수요를 고려해 원도심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확대
 - 자녀돌봄품앗이 가족 대상 교육 및 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 기존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를 통한 청소년 놀이·휴식·문화 공간 활성화
 - * 경기도 청소년 휴(休)카페 운영 모델 벤치마킹: 북카페, 노래방, 파티룸 등 힐링 공간 운영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자치 공간·자율 운영 모델 육성·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주관기관: 청소년문화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협력기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계획	설치 검토	지역 선정	신규 개소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	-	120	120	120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강화	추진계획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예산(백만원)	5	5	5	5	5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복합 힐링 공간 운영	추진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10	10	125	130	130

4-2-1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내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큼. 이는 '집안일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2%(남성 52.1%, 여성 72.0%)인 <2019 목포시 사회지표> 결과에서도 확인됨. 남성의 돌봄 참여는 부성권을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함.

□ 사업목적

-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공존의 파트너십 확립 및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남성 육아 소모임 활동 지원
 - 기업이나 지역 단위 남성 육아 소모임을 선정하여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및 활동비 지원
 -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남성 대상 가사·육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동영상 제작 및 보급 등 교육 매체 다양화
- 양성평등 가족캠프 운영
 - 기존 가족활동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역할 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포괄, 가족 다양성 인식 고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주관기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협력기관: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남성 육아 소모임 운영 지원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양성평등 가족캠프 운영	추진계획	시범 운영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10	10	10	10	10

4-2-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현황 및 필요성

- <2019 목포시 사회지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36.8%는 일보다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함. 남녀 모두 일·생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임. 남녀 모두가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한편, 돌봄과 여가도 조화롭게 분담·향유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목적

-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공존·공생의 파트너십 촉진,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일·생활 균형 공모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
 -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공모전 운영
 -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영화제, 바자회 등) 전개
- 일·생활 균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
 - 근로자·사업주·유관기관·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운영, ‘목포형 위라벨’ 협의
-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 출자·출연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가족친화교육 지원
 -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우수사례 발굴·홍보

* 추진근거: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일·가정양립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 협력기관: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생활균형 공모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	추진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5	7	7	7	7
일·생활균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	추진계획	네트워크 운영				
	예산(백만원)	3	3	3	3	3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2	2	2	2	2
예산_계(백만원)		10	12	12	12	12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가. 현황 및 과제

가족·학교·일터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이에 폭력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함.

5-1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성차별 구조에서 기인함. 따라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통장 등 주민 대표들과 시 보조금 사업 운영자도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시책이 요구됨.

5-2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여성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과 긴급 보호 등의 구조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적 공조 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여성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여 폭력피해자 복지 증진을 도모함.

5-3 범죄예방 환경 구축

-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지역 기반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성폭력방지 '우리동네 파수꾼'을 결성·운영토록 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5-1.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5-1-1.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관점 통합 폭력예방교육 강화[계속] •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지원[신규] • 여성폭력 실태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신규]
5-2.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5-2-1.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대응 유관기관 공조·협력 강화[계속] • 폭력피해여성 응급 및 의료지원 강화[계속] •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기관 환경 개선[신규]
5-3. 범죄예방 환경 구축	5-3-1.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신규] • 공중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강화[계속] • 여성폭력방지 지역주민연대 활동 지원[계속]

나. 세부 추진과제

5-1-1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 홍보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성차별 구조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 이에 성차별적 관념 및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함. 교육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상에서 폭력에 대한 민감도와 경계심을 높이도록 함.

□ 사업목적

-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 가정폭력·성폭력·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 근절

□ 사업내용

- 성평등 관점 통합 폭력예방교육 강화
 - 성인지 관점과 성평등 문화, 여성폭력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지원
 - 이·통장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공모사업 등 시 보조금 사업 운영 단체·개인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여성폭력 실태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운영시 여성폭력 실태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가정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사업 운영(연중)
 - 가정폭력 인식 개선 스티커 대량 제작,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공 장소에 부착
 -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거나 정책적 개입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 개선

□ 추진체제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평등 관점 통합 폭력예방교육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3	3	3	3	3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7	7	7	7	7
여성폭력 실태 및 정책 홍보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15	15	15	15	15

5-2-1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 대응 기관(수사기관, 상담·보호 기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행정, 연구자 등)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자 구조·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추진근거: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강화로 여성인권 증진

□ 사업내용

- 여성폭력대응 유관기관 공조·협력 강화
 - 민·관·경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재발 방지
 - 사례 연계 및 공유 등을 통한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 폭력피해여성 응급 및 의료지원 강화
 - 가정폭력 사건 임시조치 및 현장 종결 이후 피해자 분리 시 응급지원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쉼터) 적극 연계
-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기관 환경 개선
 -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노후 환경 정비
 -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운영 검토
 -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 현황 파악을 통해 보호시설 설치 여부 검토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목포경찰서, 여성상담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의 쉼터, 해늘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폭력대응 유관기관 공조·협력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폭력피해여성 응급 및 의료지원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기관 환경 개선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예산_계(백만원)		10	10	10	10	10

5-3-1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 범죄 안전등급이 5등급으로 열악함.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등으로 범죄 안전지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을 ‘개인들 간의 일’이라거나 ‘심각하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함. 이러한 허용적 태도가 범죄발생에 일조함. 폭력을 방조·용인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지름길임.

□ 사업목적

-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집중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사업내용

-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여성밤길치안안전지도(www.safemap.go.kr) 기반 hot spot 환경 점검 및 개선
 - 안심등 설치, 가로등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 안심전남 앱 홍보를 통한 이용률 확대, 비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공중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강화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점검 강화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
 -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홍보물 제작·부착
- 여성폭력방지 주민연대(‘우리동네 파수꾼’) 활동 지원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폭력을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이에 상담·신고 등을 지원하는 주민연대를 활성화하도록 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한국전력공사, 목포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5	5	5	5	5
공중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2	2	2	2	2
여성폭력방지 주민연대 활동 지원 • ‘우리동네 파수꾼’ 활동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3	3	3	3	3
예산_계(백만원)		10	10	10	10	10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가. 현황 및 과제

양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정책 실행자의 관심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6-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 성주류화 제도 운영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은 여타 부서의 협력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또한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정책 전반에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통합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현장 민감형 정책을 실행, 양성평등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함.

6-2

성인지 역량 강화

-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여성정책팀을 확대·개편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함.
-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책 역량 및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내실있는 교육 운영이 요구됨.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추진사업
6-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 성주류화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평가지표에 성주류화 운영 실적 포함[신규] •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신규]
	6-1-2.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신규] • 「목포시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신규]
	6-1-3.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신규] •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구성·운영[신규] •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계속]
6-2. 성인지 역량 강화	6-2-1.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전담 팀 분리 및 인력 확충[신규] • 양성평등정책 전문 담당관 설치[신규] •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계속]
	6-2-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계속] • 고위·관리직 성인지 교육 강화[신규]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신규]

나. 세부 추진과제

6-1-1 성주류화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 성주류화 실적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전남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볼 때 저조함.

*2019.12.31.기준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79건(전남 평균 104건), 개선계획 수립 비율 5.1%(전남 평균 21.5%), 정책개선비율 20.0%(시·군 평균 30.18%)임.

○ 실무 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관심과 적극성이 요구됨. 이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높이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사업목적

○ 성주류화 시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통합, 정책 및 사업 운용에서의 성차별 개선

□ 사업내용

○ 부서 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운영 실적 포함

- 실과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운영 실적을 부서장 개인 성과평과와 연계

○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

-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전문성과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 등의 문제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

• 성인지 예·결산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 회계과와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그리고 민간 전문가(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양성평등센터)로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

• 연 3회 이상 개최(1차(2~3월) 협의체 운영방안, 2차(6~8월) 대상과제 선정, 3차(8~10월) 검토)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 협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양성평등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서 평가지표에 성주류화 운영실적 포함	추진계획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	추진계획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3	3	3	3
예산_계(백만원)		-	3	3	3	3

6-1-2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지표 관리

□ 현황 및 필요성

- 목포시 관련 통계 및 조사 등에서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 성별 교차분석이 수행되지 않으면 성별 현황과 의식 및 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인구·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육, 교육, 복지, 건강, 안전 등 분야별로 성인지 통계를 생산·관리하여 성별 현황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도록 함.
-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지역 성평등 지수를 높이도록 함.
-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관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사업목적

- 분야별 성별 현황과 정책 요구를 파악, 정책과정 전반에서 성차별적 요소 개선

□ 사업내용

-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 행정통계 생산 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정책 입안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목포시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
 - 인구·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육, 교육, 복지, 건강, 안전 분야 및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별 성인지 통계 생산
 - 1년 단위로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전 부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목포시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및 게시	추진계획	지표 구성·발간	갱신	갱신	갱신	갱신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	-	-	-	-

6-1-3 민관협력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관 주도의 정책 입안 및 실행으로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여성 고용 증진, 폭력피해 여성 지원 등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 전문가(연구자·활동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정책 과정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현장 민감형 정책을 실행, 정책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사업목적

- 성평등 관련 지역사회 현안에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협력망 구축

□ 사업내용

- 양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시민 모니터링단의 정책 점검 및 개선 요구(안)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간담회 개최
 -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및 효능감을 높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양성평등을 의제로 한 시의원, 공무원, 연구자,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 논의 테이블을 구성, 운영
 - 일상적 교류를 통한 연계·협력망 구축, 현안에 대한 공조 및 대응 강화, 사업 발굴 및 기획
-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 대상 욕구 파악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예산 집행실적 외 평가체계 마련, 우수사례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후속 사업 운영
 - 지역 현안 해결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마련
 - 연차별 주제선정(6개 정책영역 포괄)을 통한 공모사업 지원 대상 발굴 및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5	5	5	5	5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계획	협의체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5	5	5	5	5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 • 전문가 자문 등	추진계획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10	10	10	10	10

6-2-1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중앙정부의 8개 부처²⁷⁾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이 채용되는 등 성 주류화 및 여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성평등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
- 현재 목포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부서의 인력과 권한은 성 주류화 제도를 비롯한 양성평등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힘든 상황임.
- 이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전담 팀을 분리하고 전문 담당관(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양성평등정책 추진에서의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 사업내용

-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전담 팀 분리 및 인력 확충
 - 현행 여성정책팀의 확대·개편(1팀 5명에서 2팀 8명으로 증원)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및 점검, 시정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성주류화 운영 등
- 양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 담당관 설치
 - 양성평등정책 사업 발굴, 시정 전반 양성평등정책 자문, 성별영향평가 총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성인지예산 지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양성평등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등 역할 수행
-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 여성인재 DB 구축 및 활용, 위촉 시 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자문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전담 팀 분리 및 인력 확충	추진계획	계획 수립	검토, 추진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60	60	60
양성평등정책 전문 담당관 설치	추진계획	계획 수립	검토, 추진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40	40	40
양성평등위원회 전문성 제고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	-	100	100	100

27) 2019년 5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음.

6-2-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기준, 공무원 1,250명 중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 공무원은 256명으로 교육 이수율이 20.5%(5급 이상 1.7%, 6급 이하 18.8%)에 그침. 이는 전남 평균 22.6%보다 낮은 수치임.
- 담당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행정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가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관련 시급한 과제로 꼽힘.

□ 사업목적

- 행정의 성인지 역량 강화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성 제고

□ 사업내용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
 - 성인지 교육 필수 교육 인정
 - 연차별 교육 계획 수립(온/오프), 체계적 교육 시행(성인지 관점, 법령·정책, 사회 문화 등)
 -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율 목표 설정 및 단계적 상향 조정
 - * 추진근거: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인지 교육)
- 고위·관리직 성인지 교육 강화
 - 고위·관리직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체와 방식 다양화
 -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 유도 및 효과성 제고
 - 양성평등 관련 행사(포럼, 집담회, 독서 토론, 문화제, 영화제 등) 참여 독려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
 -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관리시설, 교육공무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 협력부서: 전 부서
- 협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양성평등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고위·관리직 성인지 교육 강화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	추진계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예산_계(백만원)		-	-	-	-	-

지역특화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지역특화과제

선창 일대 성매매 집결지(청소년 통행금지구역)를 성평등 문화·예술·인권 공간으로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선창 일대 성매매는 관광 도시 목포의 이미지와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협업하여 선창 일대를 여성 인권 증진 및 성평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함.

□ 사업목적

- 선창 일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환경 개선 및 여성 인권 향상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 여성 자립·자활 지원
 -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시행
-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협력 구축
 - 현 도시재생 테마에 여성 인권 증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망 구축
 - 업소 매입 및 공간 재구조화 추진
- 성평등 문화·예술·인권 공간 조성

* 전주 '선미촌' 사례 벤치마킹: 2016년부터 성매매 업소 매입,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추진중

□ 추진체계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 협력부서: 도시재생과
- 협력기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지원	추진계획	조례 제정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예산(백만원)	-	10	10	10	10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협력 구축	추진계획	협의체 구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예산(백만원)	-	-	-	-	-
성평등 문화·예술·인권 공간 조성	추진계획	계획 수립	업소 매입	업소 매입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500	500	500	500
예산_계(백만원)		-	510	510	510	510

단계별 추진계획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힘.

□ 계획수립 및 준비 단계(2021-2022)

- 법령·제도 등 기반 점검 및 정비
-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사업 선정 및 재원 조달
- 관련 부서, 기관 등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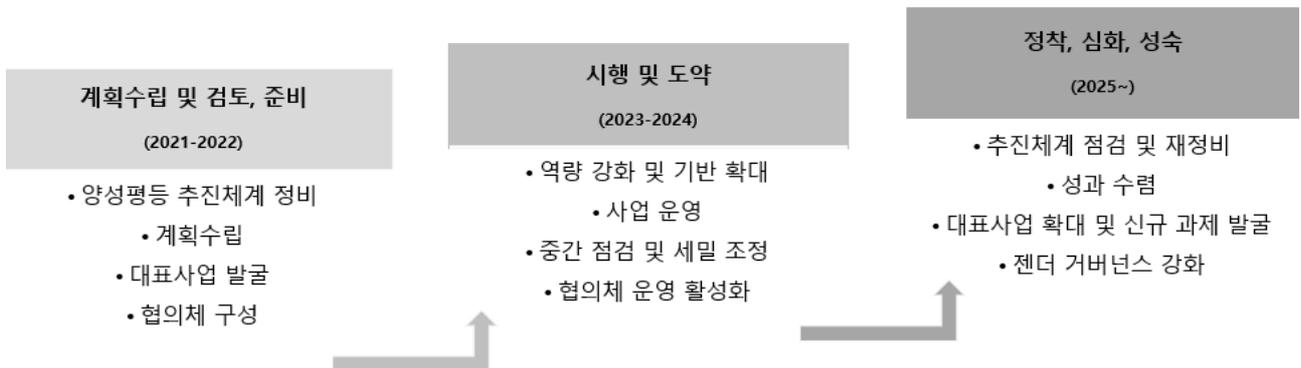
□ 시행 및 도약 단계 (2023-2024)

- 실행 역량 강화 및 지지 기반 확대
- 사업 운영 및 개선 사항 점검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틀을 고려한 사업 조정 및 조율
- 관련 부서, 기관 등 협의체 운영 강화 및 역량 축적

□ 정착 및 성숙 단계(2025~)

- 추진체계 재정비 및 새로운 도약 준비
- 사업 운영 성과 수렴 및 새로운 성과 목표 설정
- 정책영역별 대표사업 확대 및 신규 과제 발굴
- 명실상부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그림 V-1] 단계별 추진계획



〈표 V-1〉 정책영역별 과제 총괄표

중과제	소과제 및 세부사업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1.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1-1. 성평등 교육 강화	1-1-1.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아동·청소년 성·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시행							○	○
	1-1-2. 양성평등 시민교육 활성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양성평등 기초교양 프로그램 운영							○	
	② 주민자치센터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③ 청년 성평등 소모임 운영 지원							○	○	
1-2. 성평등 문화 정착	1-2-1. 성숙한 성평등 의식 함양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시 홍보 콘텐츠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	○
	② 양성평등 가치 확산 홍보 확대							○	
	③ 양성평등문화제 기획 및 운영 내실화								
	1-2-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가족문화 개선 공모전							○	
② 상·세대 공감 '가족' 이해 프로젝트 운영							○	○	
2.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2-1. 여성 일자리 창출	2-1-1. 여성 일자리 확대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여성 일자리 목표제 운영							○	○
	②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	○
2-2. 여성 취·창업 지원	2-2-1.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여성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실시							○	
	②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							○	
	③ 여성창업지원 종합서비스 구축							○	
	2-2-2. 취약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확대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청소년 한모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②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취업 지원 강화									
③ 중고령 여성 자립역량 증진 평생교육 운영							○	○	
2-3. 여성근로자 권익 증진	2-3-1. 사회서비스부문 여성근로자 처우 개선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여성집중직종 근로조건 실태조사							○	
	② 요양보호사 근무개선 지원							○	○
	2-3-2. 직장 내 성차별 개선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성희롱·성차별 실태 점검 및 백서 발간							○	
	② 고용상 성차별 근로개선 지원							○	
③ 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	

중과제	소과제 및 세부사업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3. 여성 대표성 제고									
3-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의사결정·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관리 강화								
	②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	
	③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							○	○
3-2. 여성 리더 성인지 역량 강화	3-2-1.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 및 성인지 역량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목포 여성인재 DB 구축							○	
	② 여성 리더 협의체 구성·운영							○	○
	③ 성평등 포럼(‘목포 여성포럼’) 운영							○	
3-3. 청년 여성 리더 양성	3-3-1. 청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청년 여성 진로 및 경력 개발 멘토링							○	○
	② 여성 정치아카데미 운영							○	
4. 돌봄체계 개선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1.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4-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②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③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
	4-1-2. 다양한 유형의 공동돌봄체계 지원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초등돌봄 지역거점(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②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돌봄품앗이 지원 확대								○	
③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		
4-2.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4-2-1.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남성 육아 소모임 지원							○	○
	② 양성평등 가족캠프 운영							○	
	4-2-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일·생활 균형 공모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							○	
	② 일·생활 균형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성							○	
③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							○	○	
5. 폭력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5-1.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5-1-1.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 홍보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성평등 관점 통합 폭력예방교육 강화								
	②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지원							○	
	③ 여성폭력 실태 및 정책홍보 강화							○	○

중과제	소과제 및 세부사업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5-2.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5-2-1.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여성폭력대응 유관기관 공조·협력 강화								
	② 폭력피해여성 응급 및 의료지원 강화								
	③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시설 환경 개선						△	○	
5-3. 범죄예방 환경 구축	5-3-1.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예방활동 강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	
	② 공중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강화								
	③ 여성폭력방지 주민연대 활동 지원								○
6.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6-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 성주류화 운영 내실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부서 평가지표 성주류화 운영 실적 포함							○	○
	②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체 운영							○	
	6-1-2.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지표 관리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	
	② 「목포시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	○
	6-1-3. 민관협력체계 구축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양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② 양성평등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	
③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									
6-2. 성인지 역량 강화	6-2-1.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제고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전담 팀 분리 및 인력 확충							○	
	②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	○
	③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6-2-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								○
② 고위·관리직 공무원 특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							○		
지역 특화 과제									
선창 일대 성매매 집결지를 성평등 문화·예술·인권 공간으로		'21	'22	'23	'24	'25	공약	신규	중점
	①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지원							○	
	②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협력 구축							○	
	③ 성평등 문화·예술·인권 공간 조성							○	

참고문헌

위라점. 2020. 『전남 농어촌 지역 공동돌봄 모델 개발』. 전남여성가족재단.
이순미 외. (미발간). 『2019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지연 외. 2019. 『2019 전남 시군 성평등정책 환경분석』. 전남여성가족재단.
최유진 외. 2016.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목포시청 자료

『목포시 청년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2018년 목포시 사업체조사』
『2019년 목포시 사회지표』
『2030 목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민선7기 목포시장 공약사항 자료』
『2020년 주요업무 계획』(국별)
『여성가족과 일반현황』
『2020년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 기타 자료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

[부록] 설문조사지

ID		-			
----	--	---	--	--	--

목포시민대상



주관기관 : (재)전남여성가족재단(책임연구원: 정인경)
 조사기관 : (주)폴인사이트(팀장 장경철, 062-374-7012)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라남도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도민의 일·생활·쉼의 균형이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연구, 교육,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목포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목포시민의 정책 경험과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 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성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원 기본정보 조사원 성명 조사일 년 월 일

응답자 기본정보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연령(만)	만 _____ 세	출생년월 _____ 년 _____ 월 생
주 소 지	목포시 _____ 동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며 응답 내용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성평등 의식과 경험

1. (양성평등 의식)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5)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7)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8)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필요하다면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성차별 경험)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여성이라서 또는 남성이라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정도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없다	1회	2회	3회	4회이상	해당없음
1) 일자리를 구할 때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임금·승진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학교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친구·연인 사이에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양성평등 수준) 귀하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5년에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남녀 평등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미래(5년 후)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9. (양성평등 수준) 다음 보기의 문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 편견, 비하
- 2)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 편견, 비하
- 3)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
- 4) 여성의 고용 기회 제한
- 5) 여성의 고용 불안 및 저임금
- 6)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의존
- 7) 정치, 공공 부문, 민간 기업 등에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적은 문제
- 8)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과 돌봄 부담의 편중
- 9)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기업 문화(장시간 근로, 잦은 출장 등)
- 1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
- 11) 여성 건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과 지원 부족
- 12)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미약 및 담당자 역량 부족
- 13) 기타(_____)

II. 목포의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1. (양성평등 수준) 귀하는 현재 목포의 양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5년에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남녀 평등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미래(5년 후)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2. (성평등 환경인식) 귀하는 목포시의 양성평등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포는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목포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목포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목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목포는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목포는 양성평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성평등 정책 영역별 중요도 인식

1. 다음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영역입니다. 목포시차 추진하는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또한, 해당 정책이 목포의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에 답해주세요)

항목	만족도				중요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예: 양성평등 기념행사 추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예: 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예: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돌봄 환경조성과 일·생활 균형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건강 증진 (예: 폭력 피해여성 안정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예: 성별영향평가 실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다음은 향후 목포시가 추진할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세부 과제들의 예시입니다.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과제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일상의 성차별(언어)실태 시민 모니터단 운영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3) 교원·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4) 양성평등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②	③	④
5) 시민참여형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①	②	③	④
6) 양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문화제 운영	①	②	③	④
7) 여성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8) 양성평등 결혼문화 및 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2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3.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영역 중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과제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2) 여성 집중 직종(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사·돌봄 노동자, 환경미화종사자 등) 근로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①	②	③	④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①	②	③	④
5)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6) 여성 특화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7) 기업의 성별균형 인재선발 지원	①	②	③	④

3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4.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영역 중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과제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 등 지역사회 여성대표 확대지원	①	②	③	④
2)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3) 시 의회 활동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강화	①	②	③	④
4)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수준 제고	①	②	③	④
5) 시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6)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①	②	③	④
7) 청년 여성 멘토링 사업	①	②	③	④

4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5. (돌봄과 일·생활 균형)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영역 중 돌봄 환경 및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과제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①	②	③	④
2) 양성평등한 가사·육아 부담 축진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4) 아동·청소년 지원 시설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①	②	③	④
6)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유도	①	②	③	④
7) 일·생활·쉼 균형 인식 및 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5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6.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영역 중 폭력예방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정책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2)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시설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3) 시민참여형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①	②	③	④
4) CCTV, 비상벨, 비상전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④
5) 여성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인) 안전 지원	①	②	③	④
6)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7)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6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7.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영역 중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과제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지표 관리	①	②	③	④
2)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확충	①	②	③	④
4)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	①	②	③	④
5)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민관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①	②	③	④

7_1. 위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 시급한 과제 : ()

나. 이유 :

<부가질문> 통계분석을 위한 부가질문입니다.

혼인 여부	① 기혼 유배우자	② 기혼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등)	③ 미혼
자녀수	_____명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2,3년제) 졸업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⑦ 대학원 졸업 이상(석사/박사)		
직업 여부 (지난 일주일간)	① 소득있는 직업 있음 ② 가사, 학업 등을 하면서 틈틈히 일함 ③ 일이 있으나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음		
종사자 지위 (직업 여부 ① 응답자만)	① 임금근로자(보수받음)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본인 월평균 소득	총 _____만원 (대략적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월평균 가구소득	총 _____만원 (대략적인 가구합산소득을 적어주세요)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종합계획
[2021-2025]

발행기관 목포시

발행일 2020년 12월 14일

발행처 목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Tel. 061)270-8813 Fax. 061)270-3568

인쇄 드림기획 061-276-0276
